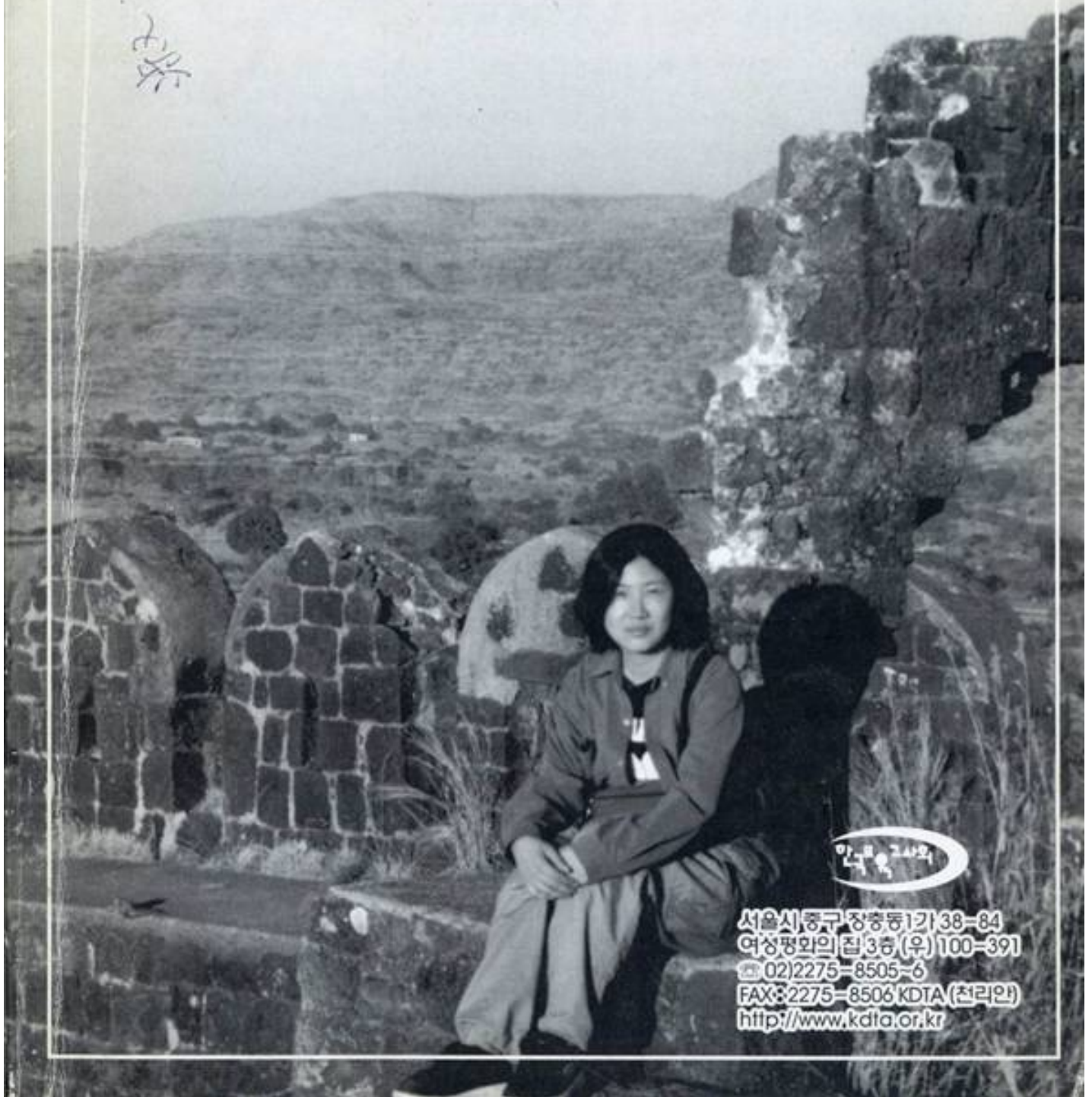


우리네아이들

보육활동의 길잡이

2000 3/4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 2275-8505-6
FAX: 2275-8506 KDTA (천리안)
<http://www.kdta.or.kr>

어린이 권리선언문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떻든간에, 남자들이 여자이든간에, 영어를 스든지 한국어를 스든지 서툰말을 스든지 사투리를 스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오랑 장애인이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런 일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아로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라는 것이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논다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귈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버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우리네 아이들

총권 74호 | 2000년 3/4월호

첫발행 1992년 5월 25일/

펴낸곳 한국보육교사회/펴낸이 정희연/

묵은이 이경녀, 김희정/펴낸날 2000년 3월 1일

2 권두언	실질적인 국민 참정권을 되찾은 낙천·낙선운동 남인호
4 보육정책1	보육사업현황과 정책 및 제도개선방향
9 보육정책2	2000년도 보육사업 요약 안내 황미애
19 2000년 한국보육교사회	2000년 한국보육교사회 사업방향 및 계획을 소개합니다. 편집부
26 '99행동연구모임'특집	이웃사람어린이집의 통합보육프로그램
42 현장교육1	맛집 요리집 윤금주
48 현장소식 1	아주 특별한 회원의 날 이색경험기 정명신
49 현장소식 2	확대간부연석회의에 참석한후 이창욱
51 현장소식 3	확대간부연석회의에 다녀와서 유익원
52 현장소식 4	모범지부상을 받고 최정임
53 어린이와 건강	4, 5세 아동의 발달 검사 고시환
57 인물탐방기	그녀의 삶이 궁금하다 이연호
60 어린이집에서의 하루	아! 벅찬 3월이네요 주예민
61 어린이들의 세상만들기	예술 어린이집에서 생긴일 위훈임
63 육아일기	나현이의 육아일기 -출생에서 1개월- 김연숙
66 옛이야기 소개	능담감부
68 세상읽기	계란으로 바위치기 운동을 시작하자! 박창희
70 쉬어가는 복지	청년으로 박재홍
71 시이배 정보영	아동 문제행동 상담실 임미란
72 여행기	인도를 생각하는 지금 난, 행복하다 김찬숙
74 견학기	이탈리아 견학기2 고은숙
78 목소리1	경력교사의 어려움
79 목소리2	한술이의 투철한 애국정신 경은희
80 종회소개	한국보육교사회 제4차 정기총회 및 수련회 스케치
84 알릴남	편집부
85 보육계 풍향	편집부
87 소식과 소식	편집부
92 편집부에서	편집부



김시영의 노동에 시달리는 보육교사에게 김시영의 힘은 아이들에게 더 큰 자유로움을 줍니다. 그래서인지 김시영을 만났을 때 여행할 다녀온 김시영 선생님들의 모습이 참 흥미롭고 보람됩니다.

모범지부상



인물탐방기



여행기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정치권이 변화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은 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였다. 정치인들만의 정치에 진절머리를 치던 유권자들도 총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주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주권이 돈과 지역주의, 흑색선전에 농락당하면서 정치는 먼나라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기본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절회의 기회가 온 셈이다.

|권두언|

실질적인 국민참정권을 되찾은 낙천낙선운동

남인순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400여개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총선시민연대는 1, 2차 낙천리스트(106명)를 발표하여 부패전력과 선거법 위반, 헌정질서 파괴전력이 있는 인사에 대해 공천하지 말 것을 각 정당에 요구하였다. 각 정당에서는 이 중 40여명을 공천하여 약 절반정도의 성공에 그치고 말았는데 그나마 낙천자 중심으로 (가칭)민국당을 결성해 낙천리스트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그만큼 낙선시켜야 할 대상이 늘어난 셈이다.

낙선운동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동이다. 현재 개정된 선거법 하에서는 선거운동기간(3월 28일~4월 12일)에 시민사회단체의 낙선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방법이 기자회견, 사이버상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유권자를 대상으로 낙선 대상자에 대한 낙선을 직접 호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낙선운동은 시민불복종 운동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유권자의 표현할 권리를 일부 제약하고 있지만 국민을 대신해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을 허용할 리 없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선 헌법 정신에 기초해 현행법이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다면 불복종 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불복종은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낙선운동은 낙선대상자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유권자의 결집과 호응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 있다. 그러나 지역감정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어 흠이 있는 후보라도 지역을 위해 일한다고 읍소하면 유권자의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총선시민연대에서는 영호남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지역감정 추방 캠페인을 다양하게 전개할 예정이다.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국회의원 낙선시키기, 영호남유권자 연대마당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두 함께 넘어야 할 장벽이다.

낙선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권자의 각성인데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여성유권자의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 우리 선거제도가 물신화되고 지역주의에 의해 왜곡되어 왔는데 물신화된 선거구조의 최말단에 여성들이 동원되고 있다. 선거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고 동원되거나, 여성들의 일상화된 대화구조를 통해 흑색선전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여성유권자의 모습을 탈피하지 않으면 정치개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정치권이 변화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은 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였다. 정치인들만의 정치에 진절머리를 치던 유권자들도 총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부터 부끄러운 여성유권자의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전국 100여개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들이 여성유권자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 낙선대상자 찍지 않기, 후보 공약 비교해서 여성친화적인 인물 선택하기, 지역주의와 연고주의에 흔들리지 않기, 소신과 상관없이 돈받고 선거운동 하지 않기 등 다양한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선에서 아동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들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총선과 민주시민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보면 어떨까? 단순한 거수기가 되지 않으려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번 총선시민연대 활동을 계기로 '정치'가 '일상의 정치'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화두로 만들어보자.

보육사업 현황과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편집부

이 글은 지난 2월 22일에 여성단체연합에서 있었던 2000년 총선 여성정책과제 제안을 위한 워크샵에서 발제한 보육관련 정책제안 내용입니다.

I. 보육사업 현황

1. 보육수요

구분	연령	영유아 계	0~1세	2세	3~5세	초등학생
수요	전체(0~5)	4,293	1,427	716	2,150	3,958
	보육수요 (비율)	1,083 (100%)	360 (100%)	181 (100%)	542 (100%)	631 (100%)
실제 이용	보육시설	655 (60.5%)	46 (12.8%)	97 (53.6%)	513 (94.7%)	20 (10%)
	유치원				535	
	기타학원				696	

• 단위:천명

• 자료:영유아보육사업장기발전계획(안), 보건복지부, 2000. 2. 17

• 초등학생 2만명은 민간 및 사회복지관 등에서 수행하는 방과후공부방 이용자 중 공공근로자 파견시설 아동임

1997년 「보육시설확충3개년계획」이 끝나고 난후 정부는 갈급한 보육수요는 충족된 것으로 파악하고 보육의 질적수준 향상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한 바 있다. 출산율의 저하로 아동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대량의 보육시설 확충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의 표에서 보여지다시피 3~5세의 경우는 수요대비 94.7%에 이르고 있으나 3세 미만 영아의 경우는 여전히 수요에 비해 시설의 부족을 알 수 있다. 특히 0~1세의 경우는 12.8%밖에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방과후보육이 질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족율이 극히 낮은 상황이다. 위의 표에서 초등학생의 경우는 IMF이후 공공근로자 파견시설을 근거로 한 수치인데 이들 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과후보육이 방과후 특별활동식의 프로그램 운영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실질적 의미에서 방과후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치는 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영아보육과 방과후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98년 9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저소득아동 방과후 생활지

도 보조교사 파견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한시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방과후보육에 대한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2 보육이용 및 시설현황('99년 9월말 현재)

구분		국공립	법인	단체	직장	민간	가정	계
보육시설	시설수(개소)	1,280	1,975	260	200	8,048	6,673	18,436
	비율(%)	6.9	10.7	1.4	1.1	43.7	36.2	100.0
보육이용	이용수(명)	99,898	154,236	12,605	7,421	307,651	73,573	655,384
	비율(%)	15.2	23.6	1.9	1.1	47.0	11.2	100.0
이용수(명)/개소		78.5	78.0	48.5	37.1	38.2	11.0	35.5

정부의 「보육시설확충3개년계획」이 시작된 '95년과 '99년 9월말 현재를 비교해 보면 시설에 있어서는 9,085개소에서 18,436개소로 아동수에 있어서는 293,747명에서 655,384명으로 많은 양적확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 확충이 민간보육시설의 증가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의미에서 보육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양적확충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실제로 3개년 계획중 공공시설의 증가는 3,150개소 목표에 1,673개소가 증가하여 53%밖에 달성되지 못하였고 직장보육시설은 1,440개소 목표에 121개소만 확충되어 8%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간시설의 경우는 3,000개소 목표에 7,143개소가 확충되어 238%의 목표 초과달성을 하였다. 3년동안 확충된 보육시설 중 민간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79.9%나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이 많은 부분 민간보육시설에 의존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보육의 공공성 측면을 볼 때 공공비율이 90%이상인 프랑스, 스웨덴 등과 일본의 50%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공공성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아동의 권리보호 측면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등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 사회적 책임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보육 비율의 제고가 요구된다.

3 보육비용

현재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수혜자부담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생활보호대상자나 기타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만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전형적인 자유민주주의 형식에 따라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에 의존하는 경우 보육시설이 영리를 위해 높은 가격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시장기능과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하느냐가 보육비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 현재 우리의 상황은 일부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전적으로 보호자가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육시설의 제정은 부모로부터 수납하는 보육비용의 근거가 되는 표준보육단가와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되는 아동별 지원 두가지가 있다. 표준보육단가는 국공립, 민간, 가정 등 보육시설의 유형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구분하여 매년 정부가 고시하는 단가이다. 그러나 표준보육단가의 산출내역이 실제 보육시설에서 필요한 보육비용보다 낮게 책정되어 시설에서는 그 비용만을 부모로부터 수납하여서는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전적인 수혜자부담원칙 속에서 표준보육단가가 실제 수입에서 차지하는 부담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정부고시제인 표준보육단가를 제시하지 않고(정부지원의 시설만 제시) 시, 군, 구에서 자율적으로 보육료를 정하도록 방침을 바꾸었다. 이는 민간시설로 하여금 보육료의 자율화를 유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보육료의 자율화는 시설간 아동유치경쟁이 민간과 국공립 모두에서 치열한 현재 상황에서 가격의 덩핑화를 초래하여 오히려 보육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아 매우 우려되는 지점이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고가의 보육료를 지불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의 아동이 각기 다른 질적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모든 아동이 형평성있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보육료의 자율화보다 오히려 보육시설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재정운동을 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단가를 현실화하고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보육비용의 산정과 수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별 지원은 올해 법정저소득층 21,000명에 대하여 100%보육료지원, 기타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가정의 자녀 107,000명에 보육료의 40%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보육료가 높은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서는 보육료지원단가가 정부지원시설의 보육단가에 의해 지원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 때문에 저소득층의 아동을 기피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의 아동을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서 보육할 경우 실제지원액과 아동당 소요되는 보육비용과의 차액을 시설에서 부담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간 누누히 지적되어온 바와 같이 3인가족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950,000원인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이 기본적으로 맞벌이가정임을 가정할 때 현실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기준선을 현실에 맞게 상황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월수입 950,000원인 가정과 월수입 960,000원인 가정의 경우 실제 생활의 어려움은 차이가 없음에도 지원대상이 되고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즉 기준선의 경계에 있는 저소득 가정의 문제이다. 이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타저소득층의 구분을 좀더 다단계화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보육교사 등 시설종사자 관련현황 및 기타 관련 제도현황

'99년 9월말 현재 보육시설종사자는 69,753명으로 시설장 18,385명, 보육교사 39,815명, 취사원 6,179명, 사무원 912명, 영양사 등이 4,444명으로 분포되어 있다. 보육교사는 1급의 경우 대학(전문대학 포함) 아동복지관련 학과 이수자이어야 하고 2급의 경우는 보육교사양성교육원에서 1,000시간 이상 이수자로 되어 있다.

보육교사 및 시설장은 보육시설의 양적확충정책에 따라 단시간내에 많은 수가 배출되었다. 현재는 수요공급의 측면에서 볼 때 과잉공급이 지적되고 있다. 수요공급의 측면만이 아니라 단시간내에 양산된 종사자들의 질적인 측면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 양적확충정책은 단시간내에 많은 수의 종사자들

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자격기준도 상당히 완화시켜 왔다. 따라서 보육의 질적수준의 향상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들의 자격기준의 강화가 요구된다.

현재 보육교사는 자격증제가 아닌 자격인증제로 취업시마다 성적증명서나 교육원 수료증 등을 제출하여 자격인정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는 보육교사 취업시 자격인정여부 확인에 따른 행정수요의증가와 보육교사의 사회적 위상 약화로 인한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방과후보육은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만 12세까지 보육대상 아동을 확대할 수 있다는 조항에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매해 발표되는 보육사업안내에 방과후아동에 대한 보육료 및 교사대 아동비율이 명시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방과후보육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초등학교저학년 아동에 대한 보육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은 영유아보육 못지 않게 강조되고 있다. 방과후보육은 대상아동의 연령의 차이만이 아니라 보육내용의 차이와 보육교사의 전문성 측면, 시설기준의 차이 등에 있어 영유아보육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방과후보육의 제도화에 대한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빠른 사회의 변화에 따른 수요자의 욕구변화는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영아·장애아통합보육 등 특수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증가함에도 이들 서비스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권장함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특수보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비활성화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되어야 한다.

II.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 수요/공급의 측면에서 지역의 보육수요에 대한 조사 이후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설간 지나친 아동유치 경쟁을 방지
- 민간과 공공보육의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여 지나친 민간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 재정지원에 있어 현행 시설중심 지원체계에서 아동별 지원체제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 → 설립주체가 누구이건간에 운영방침과 차별적이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에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영아·장애아통합·24시간보육 등 다양한 특수보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에서 우선적으로 특수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요에 부응하도록 한다.
- 표준보육단가의 산출시 내역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하여 시설의 재정운동을 개선하고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육비용을 수납토록 하는 차등보육료제도를 확대한다. ○기타저소득층 자녀의 선정 기준선을 현실화하고 적용단계를 다단계화하여 기준선 경계의 저소득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방과후보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 우선적으로 저소득밀집 지역의 민간공부방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제도화하고 이후 일반 방과후보육 대상 아동에 대한 정책으로 확대한다.
- 보육교사 자격증 제도 도입 및 시설장,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보육의 질적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 교사·아동 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안전 등 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수요자 욕구에 부응 하는 보육 환경을 조성한다.

보육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지 10여년이 지난 현재 당시 제정되었던 영유아보육법은 많은 부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위에서 제시된 대부분의 내용들이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없이는 법적 근거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전면적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향후 보육사업의 발전 및 질적수준의 제고를 논할 수 있다.

현재 보육사업에 있어 주된 관심사는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부분은 보육교사에 대한 문제이다. 보육교사의 처우와 근무조건은 유사직종과 비교했을 때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다. 이를 선결하지 않고는 보육의 질 향상이란 기대할 수 없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정책에 대한 '예산에 대한 가치 반영'이 절실히 필요하다.

2000년도 보육사업 요약 안내

황미애 · 보육정책위

이 글은 지난 2월에 있었던 보육정책위 회의에서 정리한 글입니다.

II. 보육시책

3 200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나. 추진사업

- 1) 종사자 자질 향상 ... 보육교사 자격증제도 도입 추진 종사자 자격요건 강화
→ 영보법의 개정 없이는 불가능. 법 개정의 의지 표명.
- 2) 우수 프로그램 개발, 보급
- 3) 보육시설 운영 개선 ... '시설 유형별 표준 운영지침' 개발 및 보급
행정절차 간소화 및 관계 공무원 전문성 강화
평가인증제 도입 검토
- 4)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 특수보육시설 10개소 확충 민간 교재교구비 지원 확대
민간 영아교사 인건비 예산 반영 추진
- 5) 아동별 지원 확대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만5세아 무상보육 확대 추진
- 6) 보육정보센터 활성화
- 7) 아동보육종합정보망(Educare-Net) 강화

4 2000 지침 주요 변경내용

제목	1999년도	2000년도	비 고
가. 일반사항			
1) 체제변경	• 행정행위 중심 편제	• 사업수행자 중심 편제	• 사업영역별 구분
2) 영유아보육법 변천사항	• (신설)	• 유관 법령사항 게재	• 법령개정사항 총정리
나. 보육료 지원			
1) 편제	• '국고보조업무'에 혼합 편제	• 독립 편제	• 내용강화
2) 표준보육단가	• 복지부장관이 정함	• 시·도지사가 정함	• 시·도에 자율성 부여
3) 국고보조단가			
• 2세미만	• 213,000원	• 219,000원	• 3% 인상
• 2세	• 176,000원	• 181,000원	
• 3세이상	• 109,000원	• 112,000원	

제목	1999년도	2000년도	비고
4) 장애아보육료 • 중증장애아 • 경증장애아	• 2세미만 적용 • 2세 적용	• 1~3급, 2세미만 • 4~6급, 2세아	• 중·경증 구분을 장애인 • 복지법에 따라 구분
5) 저소득층보육료 소액기준 • 3인이하 • 4인 • 5인이상	• 920천원 • 1,020천원 • 1,120천원	• 950천원 • 1,050천원 • 1,150천원	• 물가상승률 반영 (약 3% 상향)
6) 정부지원단가 • 수납액이 일정한 경우 • 수납액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 표준보육단가 지원 • 신고보육료 기준으로 지원	• 정부지원 단가 적용 • 정부지원 단가 적용	• 시설운영의 정상화로 • 보육서비스 향상 도모
7)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저소득층보육료 지원	• (신설) - 지원아동과 시설 소재 행정기관이 동일한 경우 만 지원	• 지원아동과 시설 소재 정기관이 다른 경우에도 행정기관간에 협의하여 인근 시·군·구에서 지원 가능	• 저소득층자녀 보육료 6 지원체계 정리
8) 만5세아 무상보육	• (신설)	• 농어촌(읍·면)지역 저소득 층 만5세아 무상보육 실시	• 보육료 3%인상 - '99.9.1부터 실시
9) 보육시설 종사자 호봉 인정제 개선	• 동일 보육시설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인정	• 보육시설에서 근무한 경우 모두 인정 ('99년도분 까지는 기존원칙 적용)	• 적용범위 확대

다. 보육시설 운영

1) 방학제 도입	• (신설)	• 보육아동의 건강과 종사 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여름 휴가와 겨울휴가에 방학할 시 가능(각1주일 이내)	• 계속 보육이 필요한 아동 에 대한 보육조치 별도 강구
2) 주·부식비 구매방법 개선 (신설)	• (신설)	• 사회복지시설 주식구매 는 협동조합판매장이나 도매업소에서 구매 - 10만원 이상인 경우 계 좌입금 또는 신용카드 제도 활용	• 시설운영 투명성 확보
3) 농지의 전용신고 및 농 지조성비 감면	• (신설)	• 보육시설에서 농지전용 신고 및 농지조성비 감면 절차 안내	• 시설에 대한 행정지원 강 화
4) 용자보육시설	• (신설)	• 용자보육시설 사후관리 정책안내	• 용자시설에 대한 정부정 책 홍보

제목	1999년도	2000년도	비고
라. 국고보조금 지원			
1) 국고보조업무 수행안내	• 보육료 및 시설운영비 지 원 등과 혼합 편제	• 순수 국고보조사업 절차 등만 독립 편제	• 내용 재편
2) 교재교구비 지원 • 대상시설 • 지원내용	• 미지원 민간보육시설 (가 정보육시설 제외) • 40만원/개소·년 ※ 5,057개소	• 미지원 민간보육시설 (가 정보육시설 포함) • 어린이집 : 70~120만원/ 개소·년 • 놀이방 : 20만원/개소·년 ※ 14,700개소	• 민간보육시설 지원대상 확대 • 지원단가 현실화
마.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신설)	• 보육프로그램발간·보급 안내 및 2000년 보육프로 그램 개발방향 제시	• 보육의 질적 향상 도모
바. 보육교사교육원 운영			
• 반편성인원 • 수업료 • 보수교육	• 100명 • 연간 100만원 수준 • 20~40시간 • (신설)	• 50~80명 • 연간 130만원 수준 • 40시간 • 가정보육시설장 보수교 육 실시	•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 제고 • 보수교육 강화

5. 2000 보육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99예산(A)	2000예산(B)	증감률(C)	%	주요내역
계	125,297	145,959	20,662	16.5	
•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79,077	88,778	9,701	12.3	• 13,574명→14,726명 - 보수수준 : 3%증
• 저소득층보육료 지원	39,362	44,827	5,465	13.9	• 116,883명→128,140명 (법정 21,357, 기타 106,783) - 지원단가 전년대비 3%인상 • 지원개소 : 5,057개소→7,878개소 - 어린이집 : 700천원~1,200천원 - 가정보육시설 : 200천원
• 민간시설교재 교구비	968	3,363	2,395	247	• 790개소→790개소 - 120→120천원/개소 월
• 농어촌시설 차량운영비	569	569	-	-	• 6개소 - 110→110백만원/개소 년
• 보육정보센터 운영	330	330	-	-	• 산속 10개소, 개보수 35개소, 장비비 75개소
• 보육시설기능보강 - 신축	1,202	1,202	-	-	
- 개·보수	765	765	-	-	
- 장비비	377	377	-	-	
• 5세아무상보육	60	60	-	-	
• 5세아무상보육	2,884	5,941	3,057	106	• 14,700명(농어촌 저소득층 30%)
• 민간보조 - 과천형사 어린이집	713	713	-	-	
- 대전형사 어린이집	286	286	-	-	
- 한국보육시설연합회	260	260	-	-	
• 행정경비	167	167	-	-	
	192	236	44	22.9	• 보육프로그램개발 : 119백만원

III. 보육료 지원

1. 보육료 산정

시·도지사가 시·도 주민의 보육료 부담능력 및 물가 등을 고려하여 보육료 수납한도액 산정.
수납한도액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의 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신고하되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승인(150% 범위 이내)을 얻어야 함.
→ 각 지역별 실정에 따른 단가 책정이 가능. 지자체별 보육료 산정에 따른 교섭의 요지 발생

2. 2000년도 보육단가

가. 정보보조 지원 단가

(단위:백만원)		
구분	국고보조시설	비고
2세미만	219,000	
2세	181,000	
3세 이상	112,000	

- 나.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
- 다. 장애아 보육료
- 라. 야간보육시설
- 마. 기준시간 초과 보육료
- 바. 휴일 보육료
- 사. 반일제 보육료
- 3세 이상 유아보육단가의 50% 적용
- 중증장애아(2세미만 보육단가 적용)
- 경증장애아(2세아 보육단가 적용)
- 상시24:00까지는 기준단가의 120%
- 일시적 야간보육은 초과보육료 적용
- 상시 24시간제는 국고보조지원 기준단가의 150% 적용
- 20% 가산
- 70% 가산
- 국고보조지원기준 단가의 50% 적용

3. 보육료 수납

다. 보육료 구분

2)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46.7%수준 이하 및 가구당 재산이 3,200만원(4,800만원) 이하 가정의 아동 → 월평균 소득의 50%에서 46.7%로 기준을 낮춤(구제금융타인지 대상가구의 수는 증가했음:예산서 참조)
- 정부지원단가는 국고보조단가로 적용, 실질적으로 지원단가 감소

- 라. 수납방법
- 지로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
- 현금 수납시 보육시설은 별도의 서식을 사용하여 수납

4.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다. 기타저소득층 기준

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	950천원까지	1,050천원까지	1,150천원까지
가구당 재산		3,200만원(4,800만원)	

IV. 보육시설의 설치

6. 신고절차 및 유의사항

라. 신고수리시 유의사항

- 4) 보육실은 1층 설치 원칙. 불가피한 경우 2층 이상, 지하실(건축물의 80/100 이상 지상에 노출) 등에도 설치 가능하나 비상계단 및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반드시 설치.

* 2층 이상, 지하실 등에 보육실을 설치할 경우 안전사고 대피시설·장비 등 구비

※ 2층 이상의 경우 비상계단과 비상구가 2곳씩 있어야 한다.

V. 보육시설의 운영

5. 보육운영 및 시간

나. 보육시간

- 3) 방학제
 - 여름과 겨울 각각 7일 이내로 실시 가능하나 보육아동 보호자의 사전 동의 필요.
 - 보육료 및 종사자 급여 정상 수납·지급
 - 실시 1월 전 [방학실시계획서] 수립 후 관할 관청에 보고하고 실시 대상아동의 보호자에게 통보
 - 방학실시계획서 : ○○어린이집 여름방학 실시계획서 등의 제목으로 실시 목적, 기간, 대상아동 등 세부사항 명문화
 - 보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유아에 대하여 원장 책임하에 보육대책 별도 강구

※ 민간에서 실제 행해지는 방학에 대한 공식적 명시로, ① 방학과 교사 연가와의 관계 ② 보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동에 대한 대책 ③ 방학중 요보호아동에 대한 안정된 보육을 실시할 경우의 문제점(아동의 영양상, 교사들의 재충전과 시설 계보수의 기외 소멸 등) ④ 방학이 보육시설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등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며, 민간에서 자의대로 하고 있는 방학에 대한 민원무마용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6. 종사자 관리

나. 종사자 임·면 ... 지자체별 선발고사 실시 등의 가능성 거론

라. 종사자 경력인정

- 3) 경력인정제도 개선
 - 동일하지 않은 보육시설에서의 근무도 호봉으로 인정(불소급).
 - 계속근무와 관계없이 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
- 예) 99년말 현재 10호봉의 종사자(2000년 1월 1일 호봉승급자)가 2000년 2월 개원사정으로 시설을 그만 둔 후 4월에 타시설에 채용된 경우 11호봉으로 확정 가능

※ 내용 자체는 바람직. 그러나 매년 근로조건 계약체결시 보수를 합의하는 중역임금제에서 호봉인정의 실질적 효과와, 민간에서 호봉의 의미가 있는지, 경력 많은 교사 기피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런 내용의 명시 자체에 의의를 두어야.

마. 산재보험 가입 ... 상시 5인이상 시설 의무가입, 5인미만의 국고보조 보육시설은 가급적 가입
연간보험료 : 임금총액의 1,000분의 6

※ 실제 시설의 산재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과 관리, 산재 예방책 실행방안 확인 필요.

7. 보육의 내용

라. 안전관리

- 1) 안전사고 예방 강화
 - 화재 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계획수립 및 정기적인 점검·훈련 실시
 - 보육인원 20인이상 시설은 소방계획 작성 및 매월 소방훈련 실시

※ 시설내용, 씨랜드참사 이후 아동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로 보며 고무적이다. 시설에서는 실질적 프로그램에 대한 마련이 시급.

8. 보육시설 운영 국고보조금 지원

가. 시설운영비

- 민간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 폭 확대
- 가정보육시설 포함, 보육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지원(자부담 포함)
- 40인이상 시설 100만원/년.개소 21-39인 시설 70만원/년.개소
- 영아전담, 장애아전담시설 - 120만원/년.개소
- 놀이방 - 20만원/년.개소

9.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기준

국고보조시설(종사자 인건비지원 대상시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장 또는 보육시설 설치·운영자는 제정형편에 따라 기준 초과하여 보수 지급 가능.

국고보조시설이 아닌 시설은 시설의 제정형편에 따라 시설장과 종사자가 보수기준 협의.

라. 퇴직금

-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에 지급.
-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퇴직적립금 총액 중 퇴직전환금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시 지급.
- 근속기간은 재직기간에서 휴직·정직·직위해제 처분 등의 기간을 제외, 근속기간의 계산은 일할계산하며 퇴직일은 근무일수에서 제외.
- 설치·운영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퇴직적립금을 관리·운영.
- 설치·운영자는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 자가 퇴직시 그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

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

- 설치·운영자는 퇴직금 적립현황을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관할시·군·구의 장에게 제출.

VII.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보육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현장조사후 보육교사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보급 계획
개발 프로그램 보급 확대 -EDUCARE-NET을 통한 무상보급 / 개발 프로그램 원가 보급

VIII. 보육 전문기관

3 보육정보센터

마. 아동보육종합정보망 접속 및 이용 방법

1) 접속 방법

- 가) 피시통신 ①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 넷츠고 접속 후 "GO EDUCARE "
- ② 이용자번호란에 guest를 입력하고 엔터.

나) 근거리통신망(LAN)이나 전용선을 이용(telnet://www.educare.or.kr : 9000)

- ① telnet host 명 : www.educare.or.kr
- ② port 번호 : 9000

다) 인터넷 이용자 ① 웹브라우저 접속(익스플로러 권장) 후 '주소'창에 http://www.educare.or.kr을 입력한 후 ENTER.

- ② 이용자번호란에 guest 입력후 확인을 클릭하면 접속 완료.

2) 가입방법

가) 피시통신, 인터넷 등을 통해 에듀케어-넷(Educare-Net)에 접속(무료, 가입자격 제한 무)

나) 홈으로>회원가입신청 클릭후 내용을 작성하고 "회원등록" 버튼을 누른 후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된다.

다) 가입하신 이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접속하면 된다.

※ 이용자번호(ID)는 영문 및 숫자를 혼합사용 할 수 있으며 3~8자 이내로 작성하고, 비밀번호는 영문과 숫자를 혼합하여 3~8자 이내로 작성한다.

3) 이용방법

가) 피시통신을 통해 호스트 비비에스(천리안,하이텔 등에 접속후 gio educare)에 접속한 후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명령어는 아래와 같다.

명령	설명	명령	설명	명령	설명
P	상위 메뉴	T	초기메뉴로	GO	다른 메뉴로
N	이후 게시판 보기	A	이전 게시판 보기	LS	목록 보기
F	이후 화면 보기	B	이전 화면 보기	X	접속 종료
W	쓰기	DN	자료 받기	DD	자료 삭제
LT	제목으로 검색	LN	이름으로 검색	U	아이디로 검색

나) 인터넷을 통해 웹 비비에스(http://www.educare.or.kr)에 접속 한 후 원하는 곳을 클릭.

전반적으로 보육행정에서 지자체의 재량권을 많이 부여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책임 회피라기보다는 지자체 활성화에 따른 자기 지역에 맞는 보육행정 개발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각 지역별로 해당 지자체와 교섭할 수 있는 내용과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TOP MENU	SUB MENU	TOP MENU	SUB MENU
1. 서비스 /초보안내 (GUIDE)	1. 도움말 2. 공지사항 3. 개인정보관리 7. 자료시간카드 8. 서비스목록	12. 자료/도서관 (IPDS)	1. 보육현황통계(SITU) [신문방송자료] 11. NEWS99-16. NEWS94 21. 논문(THESIS) 22. 단행본(ONCE) 23. 정기간행물(PRINT) 24. 보고서/자료집(REPORT) 25. 학회/세미나(SEMINA) 26. 외국자료(WDPDS) 27. 월간 보육정보(MONTH) 28. 신간 안내(NEWBOOK) 31. 문서양식(DOCUPDS) 32. 보육자료실(ETC)
2. 게시판 (BULLETIN)	[자유홍보마당] 1. 자유게시판(FREE) 2. 우리 어린이집소개(PRIDE) 11. 알뜰시장(MARKET) 21. 행사/세미나(EVENT) [문화광장] 22. 견학/나들이 장소(PICNIC) 23. 문화매거진(CULTUR) 31. 여성/사회복지정보(WELFARE) 41. 세계의 보육현장을 가다(WORLD) 51.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소식(KECA)	13. 교육/놀이동 산 (LAND)	11. 동물의 세계(ANIMAL) 12. 식물의 세계(PLANT) 13. 탐구의 세계(INVEST)
5. 취업정보 (JOB)	1. 구인(JOB1) 2. 구직(JOB2) 3. 취업정보(JOB3)	14. 보육프로그램 (PROGRAM)	1. 보육이론과 아동발달(THEORY) 2. 유형별보육프로그램(DAYCARE) 3. 활동별 보육프로그램(ACTIVE)
6. 상담실 (COUNSEL)	1. 어린이집 운영 상담실(CONSULT) 2. 육아 상담실(COUNSEL) 3. 소아의료 상담실(MEDICAL) 4. 서울시 아동 상담소(SEOUL)	15. 보육시설 운영정보 (MANAGE)	1. 개원안내 11. 재무관리 12. 인사관리 13. 시설/설비관리 14. 사무관리 15. 급간식관리 16. 안전관리 17. 지역사회관리
7. 행복이 가득한 집 (MYHOME)	1. MAMAS&PAPAS 가이드(MAMAS) 2. 워킹마더의 성공비결(WORKING) 3. 육아체험담(EXPERI)	16. 보육정책정보 (POLICY)	1. 보육정책(POLICY1) 2. 보육정책 건의함(OPINION) 3. 복지부행정지시/통보(MOHW) 4. 영유아보육법령(LAW) 5. 보육사업(지침)안내(DEST) 6. 아동보육관련법규(POLICY6)
11. 전국어린이집 안내ALL	[전국어린이집안내] 서울(ALL01)강남구 131지역 3080개 부산(ALL02)강서구 30지역 1000개 대구(ALL03)남구 66지역 713개 인천(ALL04)계양구 195지역 671개 광주(ALL05)광산구 92지역 359개 대전(ALL06)대덕구 67지역 430개 울산(ALL07)남구 108지역 171개 경기도(ALL08)고양시 361지역 3085개 강원도(ALL09)강릉시 83지역 333개 충북(ALL10)제천시 38지역 439개 충남(ALL11)공주시 30지역 421개 전북(ALL12)군산시 81지역 373개 전남(ALL13)광양시 31지역 364개 경북(ALL14)경산시 71지역 482개 경남(ALL15)거제시 26지역 842개 제주(ALL16)서귀포시 33지역 196개 21. 유형별 어린이집 안내(STYLE) 23. 기관/단체 안내(ORGAN)	[지역보육 정보센터]	31. 서울 32. 부산(PSEIC) 33. 대구(TCEIC) 34. 광주(KJEIC) 35. 인천(ICEIC) 36. 대전(TJEIC) 37. 울산(UEIC) 38. 안양(KAYEIC) 39. 안산(KASEIC)
		99. 오늘의 보육뉴스 (TODAY)	



2000년 한국보육교사회 사업방향 및 계획을 소개합니다.

1. 2000년 사업방향

1. 다양한 우리 전통문화의 내용을 보육교사들에 대한 재교육 및 연구직업을 통하여 보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한다.

그 동안 우리 회는 보육현장에서 우리의 현실과 정서에 맞는 보육의 내용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많은 유아교육 이론이 서양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어 이러한 노력들은 대부분 교사 개인의 의지와 의식에 근거하여 개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 와서 중앙과 지부/지회별로 전래동요, 전래놀이, 옛이야기, 세시풍속 등에 대하여 관심있는 보육교사들을 중심으로 소모임이나 연구모임 등의 형식으로 작업해왔다. 개별 소모임들은 충실하게 활동을 했으나 각 단위들이 연속성을 가지거나 횡적인 교류를 하며 연구내용들의 공유 및 상호보완은 미흡하였다. 올해 교육사업의 중점은 이렇게 각기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온 '우리 전통문화 속에서 교육내용 찾기' 작업을 총화하여 보육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통합적인 보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2. 보육교사의 전반적 근무환경과 요구에 대한 조사·연구직업을 통하여 보육교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보육교사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 또한 지 부/지회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육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제안한다.

그간 우리 회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과 회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선전·홍보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진행해왔다. 보육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사의 질적수준 또한 향상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에 이견이 없다면 보육교사의 질적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근무환경과 재교육 등에 더 많은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보육의 전반적 질적향상을 위하여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방향에 근거하여 올해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정책에 대한 개선, 개별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받는 불이익 등에 대한 개선활동에 우리 회 사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또한 작년에 이어 지부/지회별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의 보육관련 정책 및 제도의 점검을 통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이 요구된다.

3. 지부/지회의 일상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지부/지회의 조직체계 및 조 직운영에 대한 점검과 교류, 중간간부의 지도력훈련으로 지부/지회의 활동력을 높인다.

지부/지회의 활동력을 강화하고 중앙사업 중심에서 지부/지회로 사업의 중심을 옮겨야 하는 시점에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조직운영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지부/지회의 활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사업에 대해 중앙으로부터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사회 등의 구조를 통하여 개별 지부/지회의 조직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며 중간간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력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한다.

II. 사업내용

1. 다양한 우리 전통문화의 내용을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 및 연구작업을 통하여 보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한다.
 - ▶ 교육센터 주관하에 전래 놀이감 만들기 강좌 실시
 - ▶ 권역별 여름연수
 - ▶ 전국 교육사업담당자
 - ▶ 연구소모임(아동미술, 발도르프교육)
 - ▶ 교육연구팀(그간 진행되어온 전래놀이, 전래동요, 옛이야기, 세시풍속 등을 한데 모아 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육프로그램 개발)
 - ▶ 현장연구공동모임
 - ▶ 일상적 지부/지회 지원사업
2. 보육교사의 전반적 근무환경요구에 대한 조사·연구작업을 통하여 보육교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보육교사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 또한 지부/지회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육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제안한다.
 - ▶ 보육교사 실태 조사사업
 - ▶ 보육교사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세미나
 - ▶ 보육정책위원회 주관하에 영유아보육법개정에 관한 구체적 내용마련과 이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회원대상 정책교육의 실시(차등보육료제도, 방과후보육관련, 교사자 격제도 등)
 - ▶ 연1회 이상 정책개발기획회의를 통해 지부/지회별로 정책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3. 지부/지회에 대한 일상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지부/지회의 조직체계 및 조직운영에 대한 점검과 교류, 중간간부의 지도력훈련으로 지부/지회의 활동력을 높인다.
 - ▶ 중앙과의 조직적 결합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지부/지회 순회방문을 실시
 - ▶ 확대간부연석회의를 통해 지부/지회의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해 공유
 - ▶ 이사회를 통해 각 지부/지회의 조직체계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
 - ▶ 지부/지회장 지도력강화훈련 실시
 - ▶ 연1회 이상 예비지도자훈련프로그램 실시
 - ▶ 경기지부 건설
4. 특별사업 ①- 상담사업

보육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에 대한 해결에 적극 대응하여 보육교사의 권익보호와 향상을 위

한 토대로서 상담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부모 및 시설이용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자녀양육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 상담의 성격
 - ▶ 보육교사의 권익에 관련된 내용(처우 등 근무환경, 부당해고, 교권확보 문제 등)
 - ▶ 보육교사의 소진, 교육활동의 애로점에 대한 내용
 - ▶ 취업상담
 - ▶ 이용자(학부모)의 양육관련 내용 및 시설이용시의 어려움 등에 대한 내용
- 방법
 - ▶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 활용
 - ▶ 전화상담
 - ▶ 방문상담
- 사업계획
 - ▶ 그간의 전화상담사례 및 홈페이지상 질의내용 분석 및 상담 전문단체의 사례 및 운영체계 검토
 - ▶ 상담자문팀 구성(법령 및 정책관련, 제반 행정사항, 아동교육, 부모상담 등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
 -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활동

5. 특별사업 ②- 보육교사취업 종합지원사업(「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프로젝트사업)

신규실업 또는 적체된 실업보육교사들과 이직을 원하는 보육교사들에게 구인구직연계 망을 통해 취업정보를 제공해주고 취업상담 및 교육, 창업교육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 ▶ 사업 1) 전국보육교사 구인구직 종합취업연계망 구축사업
 - 각종취업정보망과 보육계에 분산되어 있는 취업관련 정보를 취합, 종합적인 취업 망을 구축, 운영
 - 취업망을 구직자, 구인자의 요구에 맞게 분류, 보다 편리한 구인구직정보를 제공
 - 보육교사 구직활동을 원활히 하여 실업기간을 단축
 - 보육교사 구인기간을 단축하여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
- ▶ 사업 2)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및 설명회 개최
 - 취업과 창업에 관한 설명회를 통해 보육교사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취업의 가능성을 높인다.
 - 취업에 유리한 특기/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보육교사의 취업율을 높인다.

6. 기타사업

- ▶ 장애아통합보육에 대한 교육강좌 실시 및 연구소모임 운영
- ▶ 방과후보육 제도화에 대한 연구작업 및 연대회의 참여
- ▶ 「우리네아이들」발간사업 및 각종 자료집 발간
- ▶ 회원확대사업



2000년 임원을 소개합니다.



이기원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환절기에 건강어디세요?"

회원여러분께 지면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입춘을 며칠 앞둔 2월의 끝자락에 잠시 드는 생각이 있다면 그건

10년이 넘는 역사와 공간의 변화속에 가슴깊이 저며드는 <보육교사회>를 만난 첫마음입니다.

이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시절부터 한국보육교사회까지 간직해온 첫마음을 조심스레 2년간 펼쳐보려고 합니다.

4년전 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추천되었을 때 저는 부끄럽게도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거야"라는 이유로 사퇴를 하였고 열심히 일하는 회장단과 사무국, 이사 임원진을 보며 더 잘 해주었으면 하는 기대반, 욕심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후로 4년이 지난 지금 저는 공동대표라는 막중한 자리를 저의 능력과 상관없이 대뜸 맡았습니다. 4년전 제가 잠시 묻어 두고 싶었던 첫마음을 다시 묻기에는 그동안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으로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으로 회원여러분과 어떻게 나눌까요?

회원여러분과 함께 한국보육교사회 주인으로 당당히 요구하고 지혜를 모아 우리 모두가 개혁하고 조직적 확대를 이루어 나간다면 지금 현재 4만의 보육교사에 비해 차지하는 비율이 비록 적다고 하더라도 한해, 한해 축적된 힘이 모여 명실상부한 보육교사의 대표체가 될 것입니다.

한.국.보.육.교.사.회.

이 단어속에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앞으로 우리 스스로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육교사와 관련된 각종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야 합니다. 그간 진행된 정책과 사업의 내용이 다소 광범위한 보육정책의 내용이었다면 우리회의 조건과 역량에 맞게 다양한 보육교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담아내고 문제 진단 및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보육교사회로의 전환후 여전히 남아있는 지역별 과제 (회원관리, 회원확대, 연대사업 등)를 현실 기반을 통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수년간 펼쳐 놓은 주옥같은 현장교육의 내용을 연구하고 함께 정리해 나가는 장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그간 진행되었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우리 전통교육과 건강한 보육관을 제시해

야 했습니다.

네 번째는 교사 스스로 행복해 질 수 있는 실천 활동을 해 봅시다.

과중한 업무와 교사회 활동등으로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는 명제를 잊지말고 행복권 추구를 위해 작은 실천을 시도해 봅시다.

회원여러분, 혹시 우리네 아이들 뒷편에 실리는 교사 선언문을 기억하십니까?

그 선언문에는 보육교사로서 우리가 지키고 나갈 선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보육교사로서의 자주성과 실천성, 사회.경제적 지위와 신분 보호, 육아의 사회화와 인권보육, 우리 전통교육,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선언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교사선언문을 가슴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도 서울에서 제주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가정 보육시설에서 국공립시설까지 수고하고 노력하는 우리 보육교사들 한분 한분을 떠올리며 힘찬 3월을 맞이 할까 합니다.



이윤경 공동대표

어린이집에서의 마지막 근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8년이란 세월을 보육교사로 지냈는데 이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머리고 마음이고 텅 빈 것같은 상실감에 식구들이 내게 하는 말소리는 의미없이 지나가기만 하고 뭐라고 질문들을 하는데 짜증만 났습니다.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조용히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8년 동안 내가 만났던 아이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아주 조금 그렇게 울었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고 실수한 적도 많았고 아쉽고 서운했고 부끄러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내내 그리워 할 것 같습니다. 울다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스스로 가장 천직이라고 믿었던 일을 그만 두면서까지 보육교사회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건 아마도 내가 보육교사라는 일을,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더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고, 아이들과 생활하는 보육교사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모두가 지금보다 더 행복해 졌으면 하는 소망!! 여러분과 내가 함께 갖고 있는 그 소망이 이 자리로 나를 이끌어 온 것 같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아이들과 만나면서 그런 것처럼 이제 보육교사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첫 반을 맡았을 때의 설렘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000년 임원을 소개합니다.

서은의
부회장

2년 전 이맘 때 처음 보육교사회 부회장이 되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10년간 조직으로 부터 반기만 하던 입장에서 조직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있게 되었다는 설렘. 그 때 정말 열심히 한 번 해보자는 열정이 마구마구 솟아올랐지요.

그 때로부터 2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한 번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움이 많았던 지난 시간이었기에 앞으로의 2년은 또다시 비슷한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 힘 닿는 데까지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가까이에서 지켜봐 주세요.

김정자
대구지부장

마음 박시게 먹고 2000년에는 대구보육교사회 만들립니다!

"될 알아야 잘 하지!"

그래서 매월 대구보육교사회(준) 회원들은 열심히 교육하고 토론합니다.

"배운만큼 좋은 교육 해야지!"

매주 그리고 매월 6명의 회원들이 장애·비장애 아동들과 함께하는 통합교육을 준비, 진행합니다.

"배우고 교육해서 대구보육교사회는 교사가 만듭니다!"

6월의 임시총회를 매월 조금씩 준비하며, 대구보육교사회의 올바른 상을 만들어 갑니다.

한 명의 남성으로 인해, 총회에 참석한 모든 교사로부터 기대와 관심을 엄청나게 받았던 대구보육교사회(준) 회원들은 2000년 상반기 대구보육교사회의 변화 발전한 활동과 모습으로 회원들과 다시 만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대구에서 마음 박시게 먹고 활동은 더 박시게 하였습니다.

박찬주
부산지부장

99년 부산지부장을 맡은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 한해 딱 한번 더 부산지부장을 맡게된 박찬주 인사드립니다.

작년 한해 열심히 회원님들과 뛰었지만 목표한 일들은 다 이루지 못하는 한 해를 맞이하면서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보육일에 누구보다 활발하게 활동력을 보여왔던 회원님들과 그 소중한 성과를 함께 나누고 앞으로의 전망을 지혜와 힘을 모아서 하나씩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2년차 지부장으로서 올 한 해 욕심을 내자면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일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큰 바람은 보육교사들이 한국보육교사회로 속속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늘 가까이에서 제가 지부장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와주고 계신 회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한국보육교사회 회원님들 건강하세요.

늘 웃는 날이었으면 합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부산지부 더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정미
광주전남지부장

손을 귀에 살짝 대고 숨소리를 낮춰보세

요. 어디선가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요. 평가도하고, 총회도하고, 사업전망도 내왔지만, 뭉가가 서운하다싶었는데 그게 아마도 겨울 찬바람 때문이었나봐요. 두밤만 자고 나면 3월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제 그 서운함이 슬그머니 설렘으로 다가오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전남지부장 이정미입니다. 작년에 이어 2년째 지부장을 하게되구요, 외조 잘 하는 남편과 여우짓을 잘 하는 귀염둥이 딸을 둔 서른한살 아줌마랍니다. 지난 해 어려운 점들도 있었지만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었던 지부회원들께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띄웁니다.

새천년입니다. 그리고 새봄입니다.

3월 18일 회원강좌에서부터 12월 회원가족 송년회까지 봄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준비하고, 지부 전체회원과 함께 진행할수 있는 꼭 찬 한해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자료회원도 팍팍 늘고, 신입회원도 팍팍 늘고, 목표지회도 건설 될 수 있도록 동분서주 해보겠습니다.

최은경
전북지부장

안녕하십니까? 전북지부 인사드립니다.

전북보육교사회 실체에 대해 알고 있는 분들은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견제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뚜렷하게 드러낼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한국보육교사회의 이름아래 있습니다. 전북보육교사회는 다시 정상궤도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소속여러분들! 전북보육교사회를 위해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주세요.

모든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보다 나은 결과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회 여러분! 올 한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 속에서 맡은 역할과 수행해야될 직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전북도 노력하겠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마술을 걸어보세요.

2001년도에는 좀 더 나은 멋진 모습이 보일 겁니다.

"전북보육교사회 어절씨구!"



최화영
인천지부장

지난해 저에게는 두가지 벽찬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국보육교사회 인천지부장이 된 것이고 또 하나는 딸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내가 감동 받으며 활동했던 그 시절처럼 지금의 후배 교사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딸 선홍(善洪)이는 예쁜 구석은 없지만 저 가슴 밑바닥부터 잔잔하게 차오르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2000년 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람이 되어 봅시다.

I. 서론

1. 들어가서는말
2. 연구문제
3. 용어설명
 - (1) 통합아동/일반아동
 - (2) 완전통합/부분통합
 - (3) 통합교사/일반유아교사

II. 본론

1. 통합교육의 교육과정
 - (1) 완전 통합반과 소그룹반의 구성
 - (2) 아동의 배치와 그룹 특성
 - (3) 교사의 배치
 - (4) 일과와 요일별 주요 활동
 - 1) 하루일과
 - 2) 요일별 활동내용
 - (5) 교육계획과 평가
 - 1) 개별교육계획서
 - 2) 어린이집 일과 적응평가
 - 3) 월별 평가 및 교육계획서
 - 4) 주간 활동 계획안
 - 5) 일일보육일지
2. 통합교육의 목표와 교육 내용
 - (1) 교육중점사항
 - (2) 교육활동실제
 - 1) 아동개별지도
 - 2) 기본생활습관 지도
 - 3) 일반아동과의 상호작용 촉진
 - 4) 대집단활동에서 자기통제하기와 발표하기
 - (3) 생활연계 교육프로그램
 - ① 작업
 - ② 요리
 - ③ 생활적용 프로그램
 - (4) 가정과의 연계
3. 통합교육의 성과와 한계
 - (1) 성과
 - 1) 통합아동의 변화
 - 2) 일반아동의 변화
 - 3) 부모의 변화
 - 4) 교사의 변화
 - (2) 현재의 어려움들
 - 1) 공간상의 문제점
 - 2) 교사대 아동비율
 - 3) 재정적인 어려움
 - 4) 교사문제
 - 5) 다른 교육기관과의 연계부족

III. 결론 및 제언

'99 현장연구공모전 당선작

이웃사랑어린이집의 통합보육프로그램

조선헌, 정미란, 이은희, 김주연, 노승경
인천, 이웃사랑어린이집

I. 서론

1. 들어가서는말

통합보육이란 일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내에 장애유아들을 함께 배치하여 보육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장애유아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규학급에 장애유아를 환경적·교육적·사회적으로 일반유아와 함께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아동만을 따로 교육하는 분리교육에 반하여 장애아를 통합교육하여야 하는 데에는 윤리적·사회적·발달적·경제적으로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다.

먼저 윤리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그 사회의 구성원이며 사회인으로 살아갈 권리를 가지는데, 능력이나 외모가 다르다고 해서 일반 사회에서 분리시켜 생활·교육하게 하는 것은 사회인으로 살아갈 권리를 박탈하는 비윤리적인 것이다. 둘째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동은 또래집단과의 접촉을 통해 사회적인 발달을 가장 잘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장애아동에게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통합교육은 일반아동에게도 어려서부터 장애아동을 접해봄으로써 장애아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이들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기회가 된다. 셋째로 발달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아기는 놀이와 모방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장애아동은 일반아동과 같이 있는 환경에서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하려는 동기유발이 되기 쉽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일반 유아교육기관에 장애아동을 통합시키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이다.

이처럼 통합보육이 장애아동이나 일반아동을 위하여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인 장애아통합보육을 하는 시설은 아주 적은 실정이다. 조기교육원이나 복지관은 거의 분리교육을 하고 있으며, 요근래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통합활동을 시도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근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연계하여 전학을 함께 가거나 일주일에 며칠 오후시간에 잠깐 이러한 기관에서 생활하게 하는 정도이다. 개별적으로 일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특수아동을 따로 담당하는 교사나 프로그램 없이 일반 교실에 한 두명의 특수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형태로 통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애아동에게 실제로 필요한 적절한 교육을 받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이웃사랑 어린이집은 97년 12월에 개원한 구립 어린이집으로서, 개원당시부터 장애아동 통합보육을 어린이집 운영의 중점사항으로 삼고 있다. 99년 말 현재 전체 정원 141명 중 약 10%정도인 16명의 특수아동을 교육하고 있는데, 1명의 특수교사와 1명의 사회복지사, 2명의 보육교사가 특수아동의 교육을 담당한다.

이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이집 내부적으로는 본 어린이집에서 실행하고 있는 통합보육 프로그램을 정리해보는 것이며, 외부적으로는 이 자료를 토대로 통합을 시도하고자 하는 일반 유아교육기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웃사랑 어린이집 통합교육의 교육과정은 무엇인가?

둘째, 이웃사랑 어린이집 통합교육의 교육목표와 교육활동 내용은 무엇인가?

셋째, 이웃사랑 어린이집 통합교육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3 용어설명

(1) 통합아동/일반아동

통합 아동이란 특수아동을 말한다. 특수아동은 일반아동과 달리 발달상의 지체나 장애로 인해 특별한 교육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서, 보통 장애아동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다. 본 어린이집에서는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이란 의미에서 통합 아동으로 부른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아동·장애아동·특수아동을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2) 완전통합/부분통합

완전통합은 통합 아동이 일반아동과 함께 동일한 교실에서 생활하면서 거의 모든 일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통합방식을 말한다. 완전 통합의 경우에도 통합아동의 교육적 필요에 따라 통합교실 외의 환경에서 통합아동들만의 활동을 진행하기도 한다. 본 어린이집에서는 6·7세 반의 통합방식을 완전통합으로 운영하며, 그 반을 '완전통합반'이라고 부른다.

부분 통합은 통합아동만의 반을 구성하여 나뉘

대로의 반 운영을 통해 활동이 이루어지며, 활동의 계획에 따라 일반아동의 반에 일정시간동안 통합하는 형태를 말한다. 본 어린이집에서는 통합아동 8명으로 구성된 반의 통합방식을 부분통합으로 하고 있으며, 그 반을 '소그룹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소그룹반 아동이 통합되는 4·5세 일반아동반을 '통합반'이라 한다.

(3) 통합교사/일반유아교사

교사가 어떤 아동을 맡고 있는가에 따라서 통합교사와 일반유아교사로 구분한다. 통합교사는 특수교사이던 보육교사이던 관계없이 통합아동의 담임교사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일반유아교사는 일반아동의 담임교사를 의미한다.

II. 본론

1. 통합교육의 교육과정

(1) 원전통합반과 소그룹반의 구성

97년 말 개원당시에는 완전통합방식으로 통합이 진행되었다. 통합아동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없었던 데다 통합의 당위 자체를 중시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98년 총 11명의 통합아동을 교육하면서 완전통합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연령이 어리거나 자폐적인 성향이 강한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시간 내 내 일반아동과 한 공간에서 지내는 일이 무리라는 것이었다. 집단 크기가 큰 점, 개별적인 언어·인지 지도를 충분히 하기 힘든 점 등 때문에 1년 활동을 정리하면서 소그룹반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대두되었다.

99년 1·2월에 반 개방형의 2층 놀이공간을 칸

막이로 막아서 소그룹반 교실을 만들었고, 3월부터는 8명의 아동은 소그룹 교실에서 부분통합하고 다른 8명의 아동은 6·7세반 교실에서 완전통합하는 방식으로 교육하게 되었다.

(2) 아동의 배치와 그룹 특성

전체 통합아동은 네 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그룹 배치를 할 때 주요하게 고려한 점은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이었다.

먼저 ①번의 4세반 통합그룹의 아동은 소그룹반인 무지개반에서 생활하면서 4세반인 달님반에 부분통합하게 되는데, 달님반에는 일반 아동 20명과 일반유아교사 2명이 있다. 달님반 통합시에는 통합아동 4명과 통합교사 1명이 추가되는 것이다. 달님반 통합아동의 경우 조기교육실이나 치료실의 경험이 없는 아동이 대부분이라 개별교육의 비중이 높고, 신체적으로 약하여 오래 걷기를 힘들어하는 아동도 많다.

다음으로 ②번의 5세반 통합그룹은 ①그룹과 마찬가지로 무지개반에서 주로 생활하고 개별교육을 받으면서 계획된 일정에 따라 5세반인 바다반에 통합하는 그룹이다. 바다반은 32명 정도의 일반아동과 2명의 일반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②그룹아동은 ①그룹에 비하여 신체발달이나 사회·언어적 발달이 앞서 있는 편이다.

③④번 그룹은 완전통합반으로서 ③번그룹은 6세반인 하늘반에, ④번그룹은 7세반인 나무반에서 일반아동과 동일 생활하는 그룹이다. 하늘반과 나무반 모두 20명 정도의 일반아동과 일반교사 1명이 함께 생활한다.

표1 통합아동의 반 배치

	소그룹반(무지개반)		완전통합반	
	① 4세반(달님반) 통합그룹	② 5세반(바다반) 통합그룹	③ 6세반(하늘반) 통합그룹	④ 7세반(나무반) 통합그룹
통합아동 구성 (각반에 4명씩)	5세여, 다운증후군 5세여, 발달장애 (언어, 사회성), 정서불안 6세남, 발달장애, 자폐적 성향 (강) 6세여, 다운증후군	6세여, 발달장애 (언어, 인지) 6세여, 발달장애 자폐적 성향(강) 6세남, 다운증후군 7세남, 다운증후군	7세여, 자폐(강) 7세남, 발달장애 (언어, 적응력) 7세남, 발달장애 (언어, 적응력) 7세남, 다운증후군	8세남, 자폐(강) 7세남, 언어지체 8세남, 발달장애 (언어) 자폐(약) 8세남, 자폐(강)
교실	2층 무지개반과 달님반	2층 무지개반과 바다반	3층 하늘반	3층 나무반
통합교사	특수교사	보육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이들 그룹의 경우 종일을 통합아동과 일반아동·통합교사와 일반교사가 함께 생활하므로, 아동들 간에 상호작용의 기회가 많고 교사들 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역할분담이 이루어진다. 이 그룹의 아동은 장애의 정도가 약하거나 교육받은 경험이 많은 아동, 취학을 1·2년 앞둔 아동이 주를 이룬다.

(3) 교사의 배치

교사배치를 볼 때 특수교사 1명, 보육교사 2명, 사회복지사 1명 총 4명이 통합교사이다. 일반보육시설에서 특수교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다면, 경력있는 보육교사가 꾸준히 연구하고 배워가면서 특수아동을 담당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또한 보육시설은 특수아동의 보육시간이 조기교육실에 비해 길고 프로그램 진행이나 기본생활습관 지도·환경구성·교구제작 등의 면에서 보육교사로서의 역할이 많이 필요하므로, 보육교사가 가진 장점을 잘 이용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아동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시각을 지닐 수 있다는 점과 가정과의 연계를 중시하는 태도, 자원봉사자와 같은 지역 사회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교사 대 아동비율은 현재 1 : 4 인데, 이는 법적 지원기준인 1 : 5 보다 아동수가 한 명 적은 것이다. 그러나 분리된 환경과는 달리 통합환경에서는 한 명의 교사가 교육할 수 있는 아동의 수가 제한적이며, 경험상 4명도 무리라는 것이 교사들의 의견이다. 어린이집의 재정 상황과 통합보육을 희망하는 아동의 수가 많은데 비해 통합기관이 적은 이유로 현재는 한 명의 교사가 4명의 아동을 담당하지만,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사대 아동 비율이 이보다 줄어야 할 것이다.

(4) 일과와 요일별 주요 활동

1) 하루 일과

통합아동의 하루일과는 오전에는 등원지도와 자유놀이, 간식, 그날의 주요활동으로 구성된다. 주요활동은 요일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는데, 완전통합반의 경우에는 특별활동·바깥놀이·노래·음률·이야기나누기의 대집단활동과, 작업·개별수업이 포함된다. 그리고 무지개반의 경우에는 1주일 중 3일은 무지개반에서 작업·요리·개별수업 등의 활동을 하며, 2일은 통합활동으로 바깥놀이·특별활동·대집단활동을 한다.

오후에는 소그룹반 아동들은 나이가 어려서 대부분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한 후에 부족한 수업을 보충하고, 완전통합반 아동은 요일에 따라 개별지도·생활적응 프로그램이나 수영·미술 등의 특강을 한다.

2) 요일별 활동내용

다음의 표는 소그룹반의 요일별 활동내용이다.

표에서 통합활동은 각 그룹의 통합교실이나 놀이터에서 일반아동과 함께 하는 활동을 말하고, 그 외의 활동은 모두

표2 하루일과표

시 간	소그룹반 일과	시 간	완전통합반 일과
8:30-10:00	등원, 자유선택활동	8:30-11:00	등원, 자유선택활동
10:00-10:30	오전간식	11:00-11:30	대집단활동
10:30-11:40	개별수업/주요활동/특별활동	11:30-12:20	자유선택활동/소그룹지도/특별활동
11:40-12:00	정리, 손씻기	12:20-12:30	정리, 손씻기
12:00-12:40	식사, 양치질	12:30- 1:30	점심식사, 양치, 세면
12:40- 1:30	신체활동, 자유놀이	1:30- 2:30	개별지도, 특강
1:30- 2:30	낮잠, 휴식	2:30- 3:00	귀가
2:30- 3:00	귀가		

표3 무지개반 요일별 활동내용

요일	①그룹(5세반형 일)	②그룹(5세반형 일)
월	전체조회/ 대집단활동(출석확인, 새노래, 이야기나누기, 동화듣기)/신체활동	
화	개별수업	통합·국악
수	통합·바깥놀이	통합·간식, 달님반 대집단활동 개별수업
목	개별수업	통합·바깥놀이
금	종일통합(간식, 사회체육, 대집단활동, 작업 등)	

무지개반 교실에서 이루어진다. 표를 보면 4세반 통합그룹은 개별수업의 비중이 높은 대신 5세반 통합그룹은 통합 시간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완전통합반의 요일별 특별활동은 화요일-영어, 국악/ 수요일-바깥놀이/ 금요일-사회체육, (적주 요리)이고, 통합반 단위로 진행된다.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 희망하는 아동에 한해 주 2회 1시간씩 수영과 미술 특강을 오후에 진행하였다. 특강은 참여하는 통합아동의 부모나 아동의 만족도가 높고 다양한 교육경험을 하게 한다는 효과에 반해, 특강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의 관리가 소홀해지고 전체 개별교육시간이 줄어든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월요일 오후에는 통합아동 16명이 실내 놀이터에 모여 신체활동을 한다. 통합아동들에게 신체활동의 필요성은 크지만, 스스로는 신체활동을 즐기지 않아 의식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일반아동과 함께 신체활동을 할 때는 집단 크기가 커져 통합아동들이 밀려나는 상황이 종종 생긴다. 그래서 통합아동만의 신체활동시간을 마련하여 통합아동이 놀이기구를 충분히 사용 하고, 여유있는 공간에서 다양한 놀이나 게임·달리기를 하게 하였다. 또한 사회체육 시간에 배운 동작을 다시 연습하거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기구를 이용한 대근육활동도 할 수 있게 하였다.

(5) 교육 계획과 평가

교육계획과 평가는 매일·주별·월별·학기별로 이루어지며, 모든 계획과 평가는 아동개인별로 작성된다.

1) 개별교육계획서

모든 통합아동에 대하여 학기별로 개별교육계획서를 작성한다.

계획서를 작성한다. 개별교육계획서는 신변처리/ 언어/ 인지/ 정서 및 사회성/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영역으로 나누어, 현재 성취 정도·한 학기 동안의 목표·평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기초에 현 성취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한 학기 동안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여 한 학기 동안 실행한 후에 수행여부를 평가하게 된다(참고 1).

2) 어린이집 일과 적응평가

학기별로 어린이집 일과 적응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목록으로 정리한 것으로, 각 항목을 학기별로 평가하여 아동의 어린이집 적응도와 생활과정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게 한다(참고 2).

3) 월별 평가 및 교육계획서

완전통합반의 통합아동은 한 달을 단위로 가정 연계 개별교육계획안을 작성하여 교육하고 평가한다. 한 한기의 개별계획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한 달을 단위로 집중적으로 지도할 내용을 정하고 실시하고, 평가한다. 또한 이를 가정과 공유하여 가정에서도 일관성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한다(참고 3).

4) 주간활동계획안

소그룹반의 통합아동은 주간활동계획안을 작성하여 교육한다. 계획안에는 공통의 활동과 각 아동의 상태에 맞게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개별지도의 내용을 포함시킨다. 개별지도는 아동에 따라 다른데 주로 언어/ 인지/ 소근육/ 신변처리/ 사회성 영역이 포함된다(참고 4).

완전통합반의 경우 주간활동이 통합반 일정에 맞추어지므로 통합반의 주간교육계획안을 그대로

로 활용한다.

5) 일일보육일지

일일 보육일지는 매일의 교육활동을 전일 미리 계획하고 교수내용이나 아동의 반응 등을 당일에 평가하는 일지이다. 주간활동계획안을 토대로 매일의 활동을 계획한다. 보육일지 외에 아동관찰일지가 있는데 통합교사가 담당 아동 전원에 대해 하루일과중 주요활동에 대한 아동의 반응, 성취정도, 특기사항 등을 기록한다. 소그룹반은 자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교육활동계획을 하지만, 완전통합반은 별도의 활동계획을 하지 않고 아동관찰일지만을 기록한다(참고 5).

2 통합교육의 목표와 교육내용

(1) 교육중점사항

이웃사랑 어린이집 통합교육의 중점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아동의 발달정도에 맞게 언어, 감각, 신체, 사회성, 인지(문자, 수 학습) 영역 등에서 개별적인 지도를 한다.
- 2) 일상생활에서 신변처리 기술을 포함하여 기본생활습관을 익히게 한다.
- 3) 일반아동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놀 수 있게 한다.
- 4) 대집단생활에서 필요한 자기통제를 훈련하고 발표력을 길러준다.
- 5) 생활과 밀접한 교육경험을 하게 한다.
- 6) 가정과의 연계를 통하여 일관성 있는 교육을 한다.

(2) 교육활동 실제

위의 교육중점사항에 따른 교육활동의 실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 개별지도

개별수업은 언어와 인지학습, 소근육 활동이 주요한 내용이 된다. 언어영역은 '표현언어 이전에 요구되는 언어능력과 전반적인 의사소통의 능력을 길러주는 활동'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호홉훈련, 발성연습, 사물 이름 익히기, 동사·형용사·부사 등의 내용 익히기, 자기이름 찾기 덧쓰기, 친구이름 말하기, 누구·무엇·어디서·언제 등의 의문사에 답하기, 자모음·단어·문장 읽고 쓰기, 발음교정, 동화 듣고 간단한 질문에 답하기, 받아쓰기 등을 아동의 발달수준에 맞게 시행한다.

인지영역에서는 '수에 대한 이해, 색과 도형이해, 방향 공간지각, 시간, 사건의 인과관계 이해 등'을 학습한다. 기본도형 익히기, 같은 모양 찾기, 색깔 이름 알기, 1부터 10까지 합리적인 수세기, 수 읽기, 쓰기, 단위(명, 개, 척 등) 알기, 공간개념(위/아래, 앞/뒤, 안/밖) 익히기,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그림보고 설명하기, 순서 찾기, 비교개념 이해하기 등이다.

소근육 활동은 '표현활동에서 요구되는 소근육 능력과 도구의 조작능력을 길러주는 활동'으로서 가위질, 풀질하기, 선따라 그리기, 기본선 안에 색칠하기, 색종이 접기, 연필 쥐기 등이다.

개별수업이 진행되는 방식은 각 반에 따라 다르다. 무지개반의 경우에는 일주일 중 하루를 언어·인지 중심의 개별지도를 집중적으로 하며, 다른 요일 중에도 오전 자유놀이 시간을 활용한다. 무지개반의 수업은 아동 수가 적은 상황이며

서 조용하고 차분히 진행된다. 완전통합반은 오전 자유영역활동 시간에 아동별로 요일을 정해서 진행하는 방식이므로 아동에 따라 집중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통합교실이 아닌 분리된 공간(3층 양호실을 개별수업교실로 사용)에서 교사가 아동 1명의 개별수업을 진행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통합반에서 일반교사가 일반유아 뿐 아니라 남아있는 통합아동을 동시에 지도해야 하므로 통합아동의 관리나 지도가 소홀해지는 측면도 있다.

2) 기본생활습관 지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원, 간식, 화장실 사용하기, 식사 등의 활동을 통해 하루 일과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변처리 기술을 배우고 기본생활습관을 익히게 한다.

등원지도는 자신의 옷을 벗어서 옷걸이에 걸거나 사물함에 넣고, 출석카드를 꺼내어 도장을 찍고 가방을 정해진 자리에 정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간식지도는 초기에는 교사의 지시에 따라 주어진 간식을 자리에 운반하여 먹고 그릇을 정리하는 정도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친구에게 간식을 나누어 주고 간식을 함께 먹으며 자신이 먹을 만큼의 양을 덜어 먹고 그릇을 주방까지 운반하는 활동으로 발전되었다.

식사지도의 내용은 식당에서는 줄을 서서 배식차례를 기다리기, 숟가락과 포크를 준비하기, 각자 자신의 식판을 받아 자리에 옮겨가기, 음식 남기지 않기, 식사 중 이동하지 않기, 더 달라는 표현을 언어로 하기, 식사 후 식판과 숟가락·포크 남은 음식물을 정리하기 등이다. 또한 식사 후에는 세수하기와 끝고루 이 닦기, 치약 먹지 않기, 칫솔 씻기, 칫솔과 컵 정리하기 등을 지도한다.

식사 지도에 있어서는 일반유아교사와 통합교사가 서로 역할을 나누어 배식과 자리정돈을 나누어 하고, 식사가 진행되면서 늦게 먹는 아동의 식사 지도와 교실에서의 양치와 세면지도를 분담하여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3) 또래와의 상호작용 촉진

① 통합아동끼리의 관계형성

아동 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른 아동과의 관계를 맺는 양상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아동보다는 통합아동끼리 더 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즉 통합아동끼리 더 잘 어울려 놀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기도 한다.

무지개반(소그룹반)의 경우에는 별도의 교실을 사용하므로 그런 경향이 더 강해서 통합반에 들어갔을 때 통합아동끼리 노는 모습에 많이 나타나며, 교사가 일반아동과 함께 놀도록 유도해도 서로 놀려하지 않거나 놀아도 금방 놀이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통합반에서 일반아동에 밀려 하고 싶은 것을 못하거나 빼앗길 때 무지개반 교실로 돌아와 버리기도 한다.

이와 같은 통합아동끼리의 친밀한 관계는 일반아동과의 상호작용기회를 줄이는 단점과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서로 모방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또 중요한 장점이 되기도 한다. 이전까지 친구관계를 경험하지 못했던 통합아동들이 서로 친구가 되면 친구의 의미를 알게되고, 이 관계가 다른 일반아동과의 관계형성을 위한 단초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②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교수활동내용

통합아동의 특성상 일반아동과의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는 어렵다. 상호작용 기술이 부족하거나 아예 타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경

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자폐성향이 없는 아동의 경우에는 아이들과 어울리려는 욕구는 강하나,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술이 부족하다. 이들은 상황판단이 미숙하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이 많이 나타나고(갖고 싶은 놀잇감은 무조건 뺏음), 호의를 나타내는 행동이 적절하지 못하기(때리거나 건드림)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미움을 받거나 배척되기도 한다. 친구와 갈등상황이 일어났을 때 교사는 먼저 아동의 속상한 마음을 받아 주고, 다른 친구의 기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다른 친구들과의 생활이나 전체 활동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눈다. 호의를 바람직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다.

언어적 표현이 부족한 아동들에게는 적절한 의사표현을 훈련하게 하거나("싫어, 아니야", "나 이거 하고 싶어", "00야 도와줘" 등을 말로 표현하기), 짜증스런 억양을 고치게 하여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돕기도 한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공유의식이 거의 없는 자폐적 성향의 아동의 경우에는 물건 나눠주고 받기를 통해서 상호작용의 기초를 다지고, 반 친구 이름을 익히서 부르게 하는 활동도 한다. 일반 아동 중에 특정 통합아동에게 호의와 관심을 보이는 아동이 간혹 있는데, 통합아동도 이 아동을 좋아할 경우, 상호작용이나 교육의 효과가 증진되기도 한다.

③ 일반아동과의 관계형성

일반아동과 어울리도록 돕는데는 자유놀이 시간의 교사 중재가 효과적이다. 특히 역할놀이를 할 때 통합아동에게 어떤 역할(예, 아기, 언니)을 주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일반아동의 경우에 통합아동에 대한 의도적인 배타적 행동은 보이지 않으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눈에 띄는 아동에게는 배타적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전체 원의 분위기나 성인교사(일반교사와 통합교사 모두)의 태도에 따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익숙해짐에 따라 이러한 거부감은 감소된다.

한 달에 한번 일대일로 짝지어주기, 통합아동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반아동에게 돕는 역할주기, 소그룹(예: 일반아동 3명과 통합아동 1명)으로 게임하기 등을 통해 상호작용을 적극 유도하기도 한다.

일반아동에게는 통합아동을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라고 인식시키는 일이 많은데, 이는 도와주고 배려하는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반면, 특수아동을 도움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일반아동의 경우 통합교사가 통합아동을 위한 교사라는 인식이 더 분명하다. 이런 경우에 통합교사의 반응이나 태도를 의식해서 통합아동과의 부딪힘에서 쉽게 양보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통합아동과 일반아동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 경우(예: 통합아동에게는 허용하는 행동을 일반아동에게는 허용하지 않음), 교사나 아동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일도 있다.

4) 대집단활동에서 자기표현하기와 발표력 기르기

대집단활동에서 필요한 기술은 일정시간동안 주의를 기울이고 자리에 앉아서 교사의 활동진행을 따라가는 것이다. 적극적으로는 활동에 필요한 발표를 해야하기도 한다. 대집단활동은 노래/손유희/이야기 나누기/동화듣기 등이며, 진행은 일반교사가 하고 통합교사는 통합아동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

소그룹반의 경우 대집단 활동에 익숙해지기 위해 학기초에 무지개반에서 주 3회(1회에 10분 정도)의 전체(8명) 모임시간을 가졌다. 산만하여 집중하지 않고 돌아다니려는 아동은 개인 의자를 사용함으로써 이탈이 줄었으며, 앉아있기 힘들어하는 아동은 안아주어서라도 참여하게 하였다. 이야기 나누기는 가능한 실물 자료를 이용하여 관심을 유도하고, 직접 실물을 이용하여 활동해 보게 하였다. 이후 통합활동이 진행되면서 무지개반에서의 대집단활동은 횟수를 줄이되 시간을 늘여서 진행하였다. 하반기에는 주로 통합교실에서 대집단활동을 하고 무지개반에서의 대집단활동은 2주에 1회정도로 대폭 줄이게 되었다.

완전통합반의 경우 대집단활동 시간이 4·5세 반에 비해 길기 때문에 보다 장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있기, 활동에 방해되는 행동(돌아다니거나 소리치기) 줄이기,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하기, 발표할 때 목소리 크게 내기, 끝까지 바르게 서서 조리 있게 이야기하기 등을 중점지도한다. 이야기 나누기의 주제에 대해 일반교사와 협의하고 통합아동이 발표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을 시키거나, 동극에서 적절한 배역을 주어 참여하게 하기도 한다. 하반기 들어 그림일기를 가정에서 써온 후 발표하는 활동이 생기자 통합아동들의 발표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통합아동을 반의 도우미로 선정하여 간식을 나눠주는 일이나 교사·다른 아동을 돕는 역할을 주는 것 또한 자신감을 길러주고 일반아동에게 인정받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5) 생활연계 교육 프로그램

① 작업

소그룹반에서는 작업과 요리를 통해 실제 생활

과 관련된 활동을 시도하였다.

작업의 내용을 보면 학기 초에는 가위통이나 개인 사물함 이름표, 출석카드 같이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게 하였다. 가능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아동의 관심을 끌고, 너무 복잡하지 않은 작업으로 하여 재미있고 쉽게 지루해하지 않을 만 한 활동을 하였다. 또한 공동 작품도 제작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게 하였다.

사탕집 만들기, 동물모양 콜라주, 지점토로 케익만들기, 지점토와 구슬로 목걸이 만들기, 색모래로 바다 풍경 꾸미기, 한지 구겨 가솔나무 꾸미기, 선물 포장하여 교환하기 등의 활동을 무척 흥미로워 하였다.

② 요리

요리활동은 간단한 과학원리의 실제경험, 소근육 발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서개념 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교육기회이고, 식재료와 과정이 아동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결과물을 먹을 수 있다는 데서 큰 기쁨을 주는 활동이다.

소그룹반은 매주 화요일에 요리실습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딸기 주스·과자 샌드위치·영양 꼬치·오이/바나나 찢기 등 불을 사용하지 않는 요리를 하였으며, 요리 활동이 아이들에게 익숙해지면서 빵 굽기·달걀 삶기·라면 끓이기 등의 불을 사용하는 요리를 하였다. 요리 시간에 불에 대한 주의를 계속 경험하게 되면서 지금은 스스로 불을 조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2학기 때는 요리시간을 점심시간 바로 전으로 잡아 콩나물·두부 부침·햄 야채 볶음·김치찌개 등의 반찬을 만들어 보기도 하였다. 평소 잘 먹지 않는 반찬이라도 직접 만들어 보는 경험을 통해 조금씩 먹게되어 편식지도에 도움이 되었다.

었다.

요리가 익숙해지면서 요리를 다 한 후에 다른 반에 갖다주게 하여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과 심부름을 하는 활동으로 발전시켰다.

완전통합반은 1학기에는 요리활동을 많이 하지 못하였으나 2학기부터 통합아동끼리의 요리활동을 격주(금요일)로 시행하게 되었다. 통합반에서도 월 1회 요리활동이 있지만 아동 수가 많아서 조리 과정을 구경하고 잠깐 참여하는 정도였다. 무지개반에서의 요리는 조리의 전 과정에 소그룹으로 활동하게 되므로 더 집중된 분위기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③ 생활적용 프로그램

모든 아동에게는 친숙한 생활공간인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을 떠나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고 다양한 문화나 역사·상황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어린이집에서는 월 1회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행사로 진행하고 있는데, 박물관·유리공장 견학이나 인형극 관람, 강화도 갯벌체험 등이다. 현장학습은 원 전체나 유아반 혹은 반별로 진행되는데, 통합아동은 통합반에서 나가는 현장학습에 모두 참여한다.

그 외에 통합아동만의 생활 적용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시행하기도 한다.

99년 한 해 동안 시도한 생활적용 프로그램은 가게에서 물건 사기, 편지 써서 우체국에서 부치기, 은행에서 저금하기, 저금한 돈 찾아서 음식점에서 음식 사먹기, 지하철타기, 신호등 건너기, 마을버스 타기, 길 찾기, 다른 어린이집 방문하기 등이었다.

그 외에도 하반기에는 가까운 산을 등반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힘든 일을 시도하고 스스로 성취하는데서 맛보는 기쁨을 함께 느끼기도 하였다.

사회적응의 연계

통합아동은 입학 후 한 달 이내에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아동의 가정 환경·생육사 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며 부모·아동과 교사간에 서로 친밀감을 형성한다. 또 학기별로 1-2회 정도 개별 상담을 하여 부모와 만나며, 일상적으로는 필요한 사항에 따라 전화상담을 자주 하게 된다. 이 외에도 연락장을 통하여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이나 가정에서의 생활, 협조 사항 등을 서로 교환한다. 그리고 주간·월별 활동계획서, 주말과제물, 그림일기 등은 가정과 어린이집의 교육이 일관성을 갖도록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통합아동의 부모님들은 취학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므로 본 어린이집을 졸업하여 초등학교에 취학한 아동의 부모님을 초청하여 취학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고,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3. 통합보육의 성과와 한계

통합 보육을 통해 얻은 성과와 현재의 어려움들은 다음과 같다.

(1) 성과

1) 통합 아동의 변화

무엇보다 큰 성과는 통합아동에게서 찾을 수 있다. 통합아동은 일반아동과 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친구를 보면서,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많은 것들을 배운다. 가정이나 분리교육 환경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어린이집 통합환경에서 경험하기 때문이다.

통합아동의 개별적 특성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공통된 평가는 "전

반적으로 나아졌다."는 것이다. 통합아동의 변화는 크게 세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부적응 행동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호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행동을 보이던 아동이 친구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리고 교사의 거듭된 지도로 인해 좋아하는 아동의 얼굴을 쓰다듬는 행동으로 변화된 일, 교사나 친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던 아이가 나중에는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게 된 경우도 있다. 집에서는 먹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편식을 하는 아동이 몇 명 있는데, 이들도 원에서는 대체로 밥은 잘 먹고 먹는 반찬의 종류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자폐아동의 경우 끊임없이 돌아다니기, 소리치기, 자기 자극하기, 특정 물건에 집착하기, 교구장이나 창틀 위로 올라가기 등의 행동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으나, 그 빈도가 크게 줄어들었다.

둘째는 신체, 인지 등의 영역별로 발달을 보이는데 특히 언어와 사회성의 능력 발달이 두드러지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과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심한 자폐아동도 좋아하는 친구가 생기고 그 친구에게 접근하는 행동을 보이며, 통합교실의 일과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자기 활동을 한다. 초기에는 교사가 몸으로 직접 움직이게 해야만 하던 행동들(수저들기, 줄서기 등)을 이제는 언어적 지시만 해도 듣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집단에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혼자만 놀던 아동이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하는 아이들의 그룹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그 활동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친구들에게 관심을 보이지만 잘 어울리지 못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놀이에 참여할 수 없었던 통합아동들도 점차 상호작용과 놀이의 기술을 익혀 놀이에 참여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언어표현에서도 큰 변화를 찾을 수 있는데, 초기 자발적인 언어표현을 거의 하지 못하던 아동은 '싫어, 아니야, 네, 주세요' 등을 연습하여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발성자체가 안 되던 아동은 몇 마디의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말을 하기는 하나 한 두 단어를 조합한 정도로 어색하게 하던 아동은 정확한 발음으로 보다 길고 정교한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언어는 개별교육시간에 혹은 통합상황에서 교사가 매일 지도하기도 하지만, 놀이상황에서 다른 친구들의 언어표현을 모방하여 자기도 해보는 것을 통하여 실제 상황에 필요한 언어를 배워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셋째, 다양한 경험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서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자기조절력을 획득하며, 낯선 환경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소심하고 불안해하던 아동들이 집단활동이나 놀이상황에서 자신감을 표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2) 일반 아동의 변화

통합보육은 일반아동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개원초기만 해도 "○○는 왜 잘못했죠?" "○○이는 생각을 못했죠?"라고 교사에게 질문해오던 아이들이 이제는 아무 스킴 없이 통합아동을 받아들이고 함께 어울린다. 99년에 새로 어린이집에 근무하게 된 교사는 언제쯤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해올까 궁금했으나, 그런 질문을 하는 아이는 새로 입소한 아동들뿐이었다고 한다.

통합아동이 새로 왔을 때 아이들은 "새로운 친구예요?"하고 관심을 보인다. 같은반에 있는 통합아동에 대해서도 이질감이나 거부감보다 같은 반 친구라는 일지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도 발견되었다. 말을 잘 하지 못하던 통합아동이 한마디의 말을 했을 때 "선생님, ○○이가 말했어요."라고 반가와 하였고, 대집단 활동에 참여하지

않던 아동이 율동이나 손유희를 따라하는 모습을 보고는 일반 아동들이 더 기뻐하면서 박수를 쳐 주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합아동을 도와주는 일, 통합아동의 짝이 되는 일을 자원하는 아동이 늘어났고, 실제로 통합아동과 단짝 친구가 되는 아동도 생겨났다. 이런 아동의 경우 소심하거나 기존의 또래집단에 잘 어울리지 못하고 친구가 없던 아동이 많은데, 통합아동과 어떤 성향에서 일치를 보이면서 급속하게 친해져서 원 생활에 적응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통합을 경험하면서 원 전체적으로는 통합 아동이 아니라도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도와주는 행동이 증가하였다.

한편 일반아동으로 입소한 아동을 관찰하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하고 진단을 의뢰하여 특수아동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가 2번 있었고, 이들은 통합아동으로 배치되어 교육을 받았다. 이는 다른 기관과 달리 특수교사가 상주하고 있는 점, 특수한 요구를 가진 아이들에 대하여 교사들이 보다 민감하다는 점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3) 부모의 변화

통합 아동의 부모들은 초기에는 통합 아동이 일반아동과 어울려 잘 놀 수 있을지, 혹시 무시당하거나 활동에서 소외당하지는 않을지, 또 일반 아동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받게되지는 않을지에 대해 많은 걱정과 염려를 나타냈다. 한편으로는 특수교사가 아닌 일반 교사가 특수아동을 담당하는 것에 대하여 내키지 않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동의 변화를 지켜보고, 또한 교사와 만남으로써 부모들은 교사와 어린이집에 신뢰와 만족을 표현하였고, 보육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

기도 하였다.

또 일반아동의 부모들도 통합아동의 부적절한 행동을 모방하는 등 나쁜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점은 실제로 크게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부모들은 통합아동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을 배워 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자랑스러워 하였다.

4) 교사의 변화

통합아동을 직접 담당한 교사이건 일반유아교사이건 교사 모두는 통합아동과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 "전체 아동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고 깊어졌다."고 표현하는데, 특수아동과 생활하기 전에 아동에 대해 가졌던 나름대로의 기준선을 대체로 낮추게 되었다고 한다. 아이의 특성에 따라 바람직한 면과 부족한 면을 여유로운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합아동이 아니라도 어떤 측면에서 부족하고 뒤쳐지는 아동을 소홀히 하지 않고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게 되었다. 실제 일반아동 중에서 언어발달이 많이 늦은 아동을 돕기 위해 통합교사와 협의하고 자료를 찾는 등 적절한 교육방식을 고민하기도 하였다.

또한 통합보육은 교사간의 협력을 많이 필요로 한다. 아동에 대한 의견 교환, 교실에서 필요한 업무의 역할분담 등 교사들끼리 의견을 조정하고 협력할 일들이 많다. 한편 통합보육은 예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문제상황을 발생시켰다. 교사들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방법들을 연구해야만 하였다. 그러한 과정은 교사들의 교육적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이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2) 현재의 어려움들

그간의 통합보육이 많은 성과를 가져다주었지만, 한계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간, 재정상의 문제나 교사대 아동비율, 교사 문제, 다른 교육기관과의 연계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1) 공간상의 문제점

본 어린이집은 건물을 지을 당시에 통합보육을 고려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므로 건물 내의 각 층을 계단으로 이동해야만 한다. 따라서 지체장애가 심해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는 아동의 경우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한 취약점 때문에 본 어린이집에서 교육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교실 공간의 부족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소그룹반은 2층 놀이공간을 막아서 교실로 전환하였지만, 완전통합반 아동이 개별수업을 하는 공간은 3층의 작은 양호실 하나여서 하늘반 통합아동과 나무반 통합아동이 번갈아가면서 수업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완전통합반의 통합아동들끼리 활동하거나 일시적으로 통합반에서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공간도 없는 실정이다.

2) 교사대 아동비율

두 번째는 교사 : 아동 비율이 높은 데서 오는 어려움이 크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통합교사 : 통합아동의 수를 1 : 5의 비율을 기준으로 재정적 지원(아동 5명 당 교사 한 명의 인건비 90%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통합 환경에서 교사가 통합아동 5명을 담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초기교육실과는 달리 보육공간이 넓고 이동의 범

위가 큰데다 활동도 다양하다. 일반아동과 함께 현장학습이나 바깥놀이 등 거의 모든 활동을 함께 하다보니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하루 보육시간이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1 : 4정도의 비율이 최대한도로 여겨지고 이 기준은 1 : 3이나 1 : 2정도로 낮아져야 한다고 본다.

3) 재정적인 어려움

이는 2)번의 교사 : 아동 비율과 맞물려 있는데, 정부의 재정지원 기준보다 낮은 1 : 4의 비율로 교육을 하다보니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교사보다 많은 수의 교사가 통합교사로 근무하게 된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으로서는 재정적인 부담을 안아야만 하는데, 통합교사 한 명분의 인건비 부담은 교재비나 급식비 등 다른 지출을 줄이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일반아동이 통합보육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셈이 되고 이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통합교사 인건비 지원에 관한 제안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고 시 담당자를 찾아가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 마땅한 답변을 받지는 못한 상태이다.

4) 교사문제

통합아동의 부모들은 통합환경에서도 특수교사가 아동을 교육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기본적인 근무조건으로는 특수교사를 확보하기가 아주 어렵다. 그래서 경력이 있는 보육교사 중에서 자원하는 교사에게 통합교사의 역할을 주었고, 앞서 교사배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육교사가 통합교사를 맡는 장점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일반교사가 특별한 교육이나 준비과정 없이 통합아동을 보육하는 일에는 어려움이 따른

다. 특수교육에 대한 경험이 없고 사전지식도 없는 상태에서는 교사 스스로 자신감이 부족하여 현재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불안하고,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위축되기 쉽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많이 해소되었다고 보는데, 활동의 성과로 인해 교사들이 자신감을 얻고 부모님들과도 신뢰의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앞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교사교육의 효과가 컸다고 본다. 외부에서 주관하는 학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교육을 받게 하였고, 관심과 열의가 있는 교사들은 개인적으로 학교에 등록하여 일주일에 1회 심리치료, 놀이치료 과목의 강의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매주 통합교사의 시간에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내부교육을 실시하였다. 내부교육은 주임교사인 특수교사의 주도로 진행되었고, 이 시간은 통합교육의 기초적 이론을 학습하고 실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협의하는 장이 되었다.

또 다른 어려움은 통합교사가 당직이나 차량지도와 같은 전체 원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통합반의 업무도 일반교사와 나누어 맡는데서 오는 어려움이다. 통합교사가 다른업무로 교실을 비울 때 일반교사는 일반아동과 통합아동 모두를 혼자 감당해야하는 난점이 있다.

5. 다른 교육기관과의 연계부족

대부분의 통합아동들은 언어치료, 심리치료, 음악치료, 개별교육 등을 위해 본 어린이집 외의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 기관을 이용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큰 부담이 되는 한편, 아동의 입장에서 기관에 따라 혹은 담당교사에 따라 다른 교육방식이 혼란을 줄 수도 있다. 다른 교육기관에서 정확히 어떤 교육을 받

고 있는지, 교사의 철학과 태도는 어떠한지, 교사가 이 아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교사간의 연계가 꼭 필요하고, 이에 대한 부모의 요구도 있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다른 기관의 교사와 전화통화나 간단한 메모를 주고받는 정도였고, 그것도 몇 회 지속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다른 기관에서 그 아동을 담당하는 교사와의 연계도 앞으로 남은 과제이다.

또 통합아동의 대다수가 언어·심리치료를 위해 다른 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공간이동과 시간상의 부담·경제적인 문제들을 고려할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본 원에 치료사를 두어 한 공간에서 통합교육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III.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유아기 통합교육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이웃사랑 어린이집의 통합교육내용과 성과 등을 정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기술하였다. 먼저 교육과정구성에서는 소그룹반과 완전통합반으로 통합방식을 나누게 된 배경, 아동과 교사의 배치, 일과운영과 요일별 주요활동 내용을 정리하였고, 다음으로는 통합교육의 목표라 할 수 있는 교육중점사항과 이에 따르는 구체적인 지도내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2년간의 통합교육경험을 통해 얻게된 성과들을 통합아동·일반아동·교사·부모의 측면에서 고찰하였고, 그간 통합교육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 등을 짚어보았다.

통합교육의 경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실이지만, 통합아동과 함께 하며

고민했던 시간들은 우리들(이웃사랑 어린이집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인간적으로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장애가 있느냐 어디가 모자라느냐 아니라, 나와는 조금 다른 개성을 지닌 친구로, 또한 한 인간으로 장애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며, 장애아동 스스로도 통합환경을 통해 놀라운 변화와 발전을 보여 주었다.

본 원과 같이 통합교육을 시도하는 유아교육기관이 곳곳에 더 많이 생겨서, 안타까워하며 대기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줄어들고, 통합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아동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정책적인 지원확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통합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또 힘들겠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시도하는 시설이 늘어났으면 한다.

한 사회에서 장애아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알만큼 이들을 위한 배려를 하는가가 그 사회의 성숙정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믿는다.

참 고 문 헌

1. 김영환·김용한(역), *이제다유에게* (저), (1994).
"다문화후군 아동의 조기교육 프로그램", 도서출판 특수교육.
2. 박경숙·김숙지(역), *기타하라기요* (저), (1992).
"생활요법(유치원권)", 도서출판 특수교육.
3. 조선덕(1994).
"정서장애의 이해", 도서출판 특수교육.
4. 조운경·강옥려 공저(1989).
"조기교육실 운영과정",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5. 최진희 외 4인(역), *콘스탄틴·아테마이아·해커* (공저), (1996).
"장애유아를 위한 캐롤 라이나 교육과정",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개발원.
6. 최진희·유은연(공저)(1998).
"장애유아의 통합교육 II-함께 배워요-", 도서출판 상지문 화사.
7. 최진희·류기연 공저(1997).
"장애유아의 통합교육 I-함께 배워요-", 도서출판 상지문 화사.
8. 한국언어병리학회(1994).
"아동의 조음장애 치료", 군자출판사.
9. 한기정(1990).
"특수유아교육", 도서출판 특수교육.
10. S. Bluma·M. Shearen·A. Frohman·J. Hilliard 공저(1990).
"포테이지 아동발달 지침서", 도서출판 특수교육.

맛참, 요리참 (영아요리활동)

윤금주 · 수원 평동어린이집

아래의 글은 99년 한국보육교사외한장연구 공모전에 공모한 내용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영아들과 함께 활용에 보세요.

● 활동목표

- 1) 오감으로 직접 부딪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2) 흥미로운 먹거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편식에 대한 거부감을 줄인다.

● 대상연령 : 3~4세 (25~36개월)

● 적용방법

- 1) 주 1회 요리의 날 지정 → 목요일(11월부터 금요일로 바뀜)
- 2) 사전활동
 - ① 다양한 재료 탐색(주머니 속에 넣어 두고 수수께끼 놀이, 야채인형 만들기, 씨앗-B찰)
 - ② 동화(빨간집, 해님달님, 당근과우영과 무)
 - ③ 그림책 보기 (고사리손 요리책, 심심해서 그랬어, 떡잔치, 구리와구라의 빵만들기,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숨쉬는 향아리..)
 - ④ 시장보기(슈퍼와 빵집에 가서 재료를 구입한다.)
 - ⑤ 그림그리기, 야채(재료)에게 편지쓰기
- 3) 요리 선택 시 고려 할 점
 - ① 복잡한 과정보다는 연령에 맞아야 한다.
 - ②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연령이 낮을수록 불과 칼의 사용이 적어야 한다.)
 - ③ 시간이 길지 않아야 한다.
 - ④ 아동의 참여 기회가 많을수록 좋다

● 활동내용

'99 진행된 요리활동

횟수	년 월 일	요리명
1	99년 4월 17일	팝콘 튀기기
2	99년 5월 13일	야채샐러드
3	20일	과일사라다
4	27일	과자샌드위치
5	99년 6월 10일	토마토 쥬스
6	17일	떡꼬치
7	24일	감자수제비
8	30일	떡꼬치
9	7월 8일	수박우유화재
10	8월 5일	생생 냉면 샌드위치
11	12일	보물보물 노릇노릇 가지전
12	19일	감자경단
13	26일	사과당근쥬스
14	9월 10일	내방식대로의 만두
15	16일	고구마맛탕
16	22일	송편 빚기
17	30일	물물 말이 치즈 김
18	10월 21일	과자샌드위치
19	29일	경단
20	11월 5일	팝콘 튀기기
21	12일	떡꼬치

1) 요리과정

- 1) 생생 냉면 샌드위치 : 재료 탐색 후 빵 위에 준비된 재료를 올리고 마는 모습을 보여줬다.

열구리가조금씩 터지긴 했지만 각보다는 잘했다.

- 2) 보물보물 노릇노릇 가지전 : 등글게 썬 가지를 미리 소금에 살짝 절여 줬다가 다섯개씩 함께 세어서 주고 밀가루를 묻힐 수 있도록 한다. 계란 옷까지 입힐 수 있다.
- 3) 내 방식대로의 만두 : 칼집 낸 곳에 재료를 넣고 만두를 누르듯이 끝을 눌러준다.
- 4) 야채샐러드 : 당근과 오이탐색 후 자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각자 그릇에 담아준다. 케첩과 마요네즈를 떨어뜨려 각자 해볼 수 있도록 한다. 시식 후 빈 접시를 그냥 씻는게 아니라 마요네즈가 묻었을 경우 휴지로 닦아낼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누가 깨끗이 닦았는지 칭찬해 준다.
- 5) 과자 샌드위치 : 과자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를 한다. (과자 포장지 오려 붙이기)
- 6) 떡꼬치 : 고추장, 케첩을 넣고 물 반 컵을 부어 조리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시 쪄다, 쪄다 반복, 이쭈시게를 제공하고 먼저 정식으로 끼우는 방법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이들은 제 나름대로 먹을 곳을 찾았다. 이쭈시게와 떡을 제공해 미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마르면 떡이 부스러진다.(찰흙과 이쭈시게를 이용)
- 7) 토마토 쥬스(당근 사과) : 주머니에 넣어 두고 수수께끼 내기 후 토마토 꼭지 따보기, 쥬서기에 넣고 돌리자 환호성을 질렀다. 시식할 때는 투명한 유리컵에 담아준다. 먹고 난 컵은 스스로 씻도록 한다.
- 8) 수박우유화재 : 우유에 탄산음료가 엉겨붙었다. (우유와 탄산음료는 함께 쓰지 않도록 한다.)
- 9) 감자경단 : 감자를 미리 삶아 놓는다. 재료 탐색 후 감자와 수저를 한 개씩 주고 으개보도록 한다. 으갠 감자를 손으로 눌러 조그맣게 뭉쳐 채에

내린 카스테라 빵가루에 굴린다.

2) 요리활동시 유의할 점

- 1) 영아들의 특성-어떠한 행동을 할 지 모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불과 칼 사용 시에는 활동이 마무리되기 까지 교사는 긴장을 놓지 않아야 한다.
- 2) 사전 재료 검토와 준비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다양한 재료준비)
- 3) 영아들의 다양성과 개성을 인정해야 한다.
- 4) 호기심을 유발하고 충족할 수 있도록 끌어 주어야 한다.

● 시후활동

- 1) 그림 그리기 : 요리활동이 끝나고 나면 그 과정에 대한 그림 그리기
- 2) 다양한 놀이활동 전개 :
 - 1) 고구마 찌기와 떡꼬치를 하고 난 후 남은 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기
(활동의 예) 까치와 호랑이, 우산, 사자, 공룡...)
 - 2) 신체활동 및 신체표현- 만든 요리되어 보기
(활동의 예) 팝콘 되어보기, 빵 말아, 끓는 모습 표현, 쥬서기속에 들어간 토마토, 경단처럼 몸 굴리기)
 - 3) 그림책보기 : 고사리손 요리책, 심심해서 그랬어, 떡잔치, 구리와구라의 빵 만들기,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숨쉬는 향아리

● 요리 활동으로 얻어진 효과

- 1)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
- 2) 표현의 자유성(창의성)
- 3) 야채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편식이 줄었다.

현장교육1

- 4) 우리동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 5) 함께 나누어 먹는 즐거움 알기
- 6) 차례를 지키고 정리정돈 하기
- 7) 감자와 고구마 햇갈리지 않기(야채의 명칭 알기)

★ 마무리하며

요리활동을 진행해 오면서 영아들에게도 연령에 맞는 요리활동을 제시해 준다면 모든 영역을 총괄함과 더불어 아이들에게도 흥미로움을 제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요리활동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만 교사가 받아들이면 쉽게 적용할 수도 있다.

24개월 미만의 영아들도 식빵을 가지고 잘라보기, 구멍내보기, 햄바르기, 양파까보기, 밀치통베기, 편감자 껍질 벗기기등 다양한 1단계 활동을 제시해 주고 25개월 ~36개월은 2단계(바르고 말거나, 만들어서 묻히기등), 3단계의 정도를 제시해 준다면 그 속에서 호기심을 끄집어내거나 충족시켜줄 수 있다.

요리활동일지

일시	1999년 9월 10일 금요일	일시	24~39개월
요리명	내 방식대로의 만두		
도구	후라이팬, 칼, 도마, 접시 휴대용 버너, 마늘다지기,		
재료	우유식빵 10장, 계란 2개, 감자, 햄, 옥수수		
참석아동	김수산, 김상진, 박소연, 윤은혜, 박정우, 안민아, 이강철, 송재경, 이준명, 조용문		
사전활동	〈빵사러 가는길〉 2명씩 손을 잡고 큰길로 나섰다. 차도로는 내려서지 않는게 익숙해졌는지 물이 지나가면 좁은 길을 손을 물쥘잡고 앉서거나 뛰서거나 가며 어렵게 전진주를 지나면서 도원칙은 지켜왔다. 사진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대며 뛰나고도 묻고 조잘거리다 다시 출발하려고 보니 앞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어 갈 수가 없다 그냥 서있다. 차가 지나지 않는걸 확인하고 손을 한쪽씩 들고 차도를 지나왔다. 드디어 도착한 빵집... 현대 우유 식빵이 없어 하는 수 없이 옥수수 식빵을 사와야 했다.		
요리순서	① 식빵을 세모 모양으로 자른 다음 가운데 칼집을 낸다. ② 삶은 감자를 으개고 햄을 잘게 썰어 삶은 감자와 함께 설탕과 마요네즈에 섞는다. ③ 칼집 낸 식빵속에 ②를 넣은 다음 끝을 만두를 눌러 주듯 눌러준다. ④ 붙여놓은 달걀에 넣었다 꺼내어 후라이팬에 지져낸다.		
조리과정	세모 모양으로 자른 식빵에 칼집을 내어서 접시에 담아 주었다. 식빵속에 넣을 속을 섞어 주고 넣으라고 했더니 아주 조금씩 넣고 끝을 꼭꼭 누르는데 잘 붙지 않고 빵이 부스러져 속이 다 터져 나왔다. 다들 상황이 똑같아 요리순서의 4번을 생각하고 3번에서 마치고 시식시간으로 들어갔다.		
주의점	- 내 방식대로의 만두를 만들때는 꼭 우유 식빵을 사용해야 빵의 부스러짐을 막을 수 있다.		
평가	빵을 잘못 산 탓에 요리과정을 끝까지 마치지 못했다. 성인이 만든다면 그런 대로 괜찮겠지 만 손으로 계속 주무르는 아이들이 하기엔 빵이 너무 쉬 부스러졌다.		

요리활동일지

일시	1999년 6월 24일 목요일	일시	24~36개월
요리명	수제비		
도구	밀가루, 감자, 밀치, 양파, 소금(비교 설탕)		
재료	그릇, 냄비, 버너, 국자, 칼		
참석아동	박정우, 이강철, 김수산, 박소연, 이준명, 김상진, 조용문, 안민아, 송재경		
사전활동	손유희 -> 밀가루 그림책 -> 구리와 구리의 행만들기		
요리순서	1) 밀치 통을 배넌 다음 6컵의 물을 붓고 불 위에 먼저 올려놓는다 --> 감자 양파를 적당한 게 썰어 감자를 1)에 넣는다. --> 밀가루 반죽을 조그맣게 떼어서 접시에 담아놓는다. --> 물이 끓으면 떼어놓은 수제비를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 마늘과 양파 달걀을 푼고 끓으면 파를 넣으면 끝		
조리과정	준비재료를 소개하면서 〈밀가루〉이야기를 하기가 무섭게 "밀가루" "밀가루" "덩어리" "덩어리" 하며 밀가루 손유희를 시작했다. 양파를 보여주며 "애들아, 이걸 뭘까?" 상진이는 "매워요" "매워요" 하며 먹질 않는데 강철이랑 다른 친구들은 먹어보더니 맵다며 난리가 났다. 민아는 먹어보겠다고 가져간걸 도로 뺐다. 〈양파〉라고 알려주고 좀 있다 다시 물었더니 윤문이가 "양파" 하니까 모두들 "양파" 이라고 소리를 쳤다. 밀치통을 빼라고 두 마리씩 세어서 뺐더니 진지하게 까서는 먹시에 바꿨다. 소연이는 그릇을 들고와 "다 먹었어요 더주세요?" 반죽을 떼어서 주고 각자 자기 접시에 떼어 담으라고 하니까 민아 영미가 수산이는 여자 아니랄까 봐 조그맣게 떼어서 노는데 상진이랑 정우는 그냥 물통이 상태로 고래랑 사자를 만들었고 준명이는 책상에 마구 분질러 댔다. 아이들이 떼어놓은 수제비를 끓는 밀치국물 속에 넣는데 멀리서 덩어리를 집어 던지고 달아나는 상진이는 혼이났다. 끓는 물이 뛰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드디어 기다리던 시식시간 금방 끓어 뜨거울걸 그냥 퍼 줬는데도 후-후 불어가며 잘먹었다.		
주의점	불을 사용하고 뜨거운 물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끓는 물에 수제비를 떼어 넣을 때는 뜨거운 물이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죽을 주어 먼저 자기 접시에 떼어내게 한 다음 물에는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 교사가 넣어준다. 불과 물의 위험성을 제일 먼저 알려준다		
평가	밀치 통 빼는걸 재미있어했다. 통까지 먹어가면서.. 요리 활동 시작하기 전에 불과 물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 했더니 "선생님 조심해요? 알았지요?" 하고 내게 이야기를 했다. 떼어낸 수제비를 끓는 물에 혼지만 넣었더니 상진이가 재미있어 보였는지 "나두한번 해보게요" 하면서 휘 던지는 바람에 물이 튀었다.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불을 다루는 요리활동 시간에는..		

함께 만들어봐요

1. 내방식 대로의 만두(재료: 식빵, 감자 햄, 옥수수, 달걀)

- (1) 식빵을 세모모양으로 자른 다음 가운데 칼집을 낸다
- (2) 삶은 감자를 으개고 햄을 잘게 썰어 삶은 감자와 함께 설탕과 마요네즈에 섞는다.
- (3) 칼집 낸 식빵 속을 다 넣은 다음 끝을 만두를 눌러 주듯 누려준다.
- (4) 풀어놓은 달걀에 넣었다 꺼내어 프라이팬에 지져낸다.

2. 롤롤 말이지즈감(재료: 식빵, 치즈, 햄, 김, 달걀, 식물성기름)

- (1) 식빵을 밑대로 납작하게 민 다음 4등분으로 자른다.
- (2) 김, 치즈, 햄은 10cm 폭으로 자르고, 길이는 50cm 정도로 썰어 놓는다
- (3) 4등분한 식빵에 풀어놓은 햄 치즈를 넣고 김으로 감아 달걀을 묻혀 마무리한다
- (4) 풀어놓은 계란에 묻혀 프라이팬에 식물성 기름으로 지져내면 끝.

3. 감자 경단(재료: 감자, 소금, 카스테라빵, 미숫가루)

- (1) 감자는 미리 삶아 놓고, 카스테라빵은 채에 내려 곱게 가루 내어 놓는다.
- (2) 미리 삶아 놓은 감자를 한 개씩 스스로 집어가 껍질을 벗기도록 한다.
- (3) 껍질을 벗긴 감자는 수저로 눌러서 으낸다.
- (4) 으낸 감자를 손으로 뭉쳐 동그랗게 만든 다음 준비해둔 미숫가루와 빵가루에 굴려 겹시에 예쁘게 담아낸다.

마주 이야기

은행나무 밑에 있는데 상진(32개월)이가 왔다. 화단에 피어있는 복숭아꽃을 가리키며

상진 : 이거 뭐예요?

교사 : 복숭아야.

상진 : 복숭아 우리 먹어 봤지요?

교사 : !!

(그 후에 요리활동이 복숭아가 들어간 생생냉면 샌드위치였다.)

요리 활동 계획안 유아반



일	요리명	일	요리명
3	① 과자샌드위치 ② 묵무침 ③ 팔콘튀기기 ④ 김밥	4	① 두부과자 ② 동그랑땡완자전 ③ 감자전 ④ 계란 샌드위치 ⑤ 김밥
5	① 경단 ② 매작과 ③ 잡채 ④ 김밥	6	① 꼬치불고기 ② 호박전 ③ 야채튀김 ④ 김밥
7	① 스카치에그 ② 프렌치토스트 ③ 묵무침 ④ 수정과 ⑤ 김밥	8	① 핫케이크 ② 게맛살 스크램블에그 ③ 수박화채 ④ 김밥
9	① 야채·과일샐러드 ② 호박죽 ③ 송편 ④ 김밥	10	① 백설기 ② 잡채 ③ 햄·오이·맛살 꼬치 ④ 김밥
11	① 주먹밥 고로케 ② 햄버거 스테이크 ③ 잼·버터 샌드위치 ④ 김밥	12	① 도너츠 ② 만두 ③ 표박무침 ④ 팔죽 ⑤ 김밥
1	① 김치전 ② 완자전 ③ 만두 ④ 김밥	2	① 동태살 카레전 ② 떡꼬치 ③ 게맛살 스크램블에그 ④ 핫케이크 ⑤ 김밥

아주 특별한 회원의 날 이색 경험기

- '서울지부 회원의 날'을 다녀와서 -

장영신 · 서울 북부지회, 우리아이들의 나라 우리어린이집

이 글은 서울지부 소식지인 '아! 찾았다'에 실린 글입니다.

록 뮤지컬을 본다고?
졸업여행 답사가 잡혀 있는 나에게 무지무지 갈등하게 하는 말이었다. 뮤지컬이나~ 졸업여행 답사나~. 결국 졸업 여행지를 대충(?) 잡아 놓고 록 뮤지컬을 택했다. '뮤지컬을 보다가 흥에 겨워 소리를 질러도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 그래! 스트레스나 풀자.' 이런 별별 생각을 하다가 난 약속시간보다 훨씬 늦게 도착했고, 그 때 박힌 눈송을 빼느라 지금도 밤잠을 설치고 있다.

관객석은 만원을 이뤘다. 공연을 시작한다는 안내에 이어 적막을 깨는 소리 ♪지~잉~잉~♪ 그 기타 소리는 나의 심장 박동수를 배로 뛰게 했다. <지하철 1호선> 말 그대로 지하철 1호선을 타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 그 삶들 속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을 보여준다.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지하철 1호선. 그 속엔 서민들의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고, 따뜻하면서도 가슴아픈 그네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 또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다니는 평범한 사람이기에 2시간 30분의 긴 공연이었지만 그 속에 꼭 빠져들 수 밖에 없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록 뮤지컬이라고 해서 콘서트처럼 방방 뛰고 환호성을 지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점잖게 봤다는 것이다. 그래서 발동하는 나의 그것(?)을 소극적인 박수와 한 쪽 다리를 남 모르게 흔드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그분(?)의 노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나는 아마도 지하철을 탈 때마다 노래를 흥얼거리며 혼자 히죽히죽 웃을 것 같다. 푸~하하!

그리고 베트남 음식점에서. 오후 6시. 저녁을 먹기에 가

장 좋은 시간이지 음. 배고파 걸을 기운도 없지만 색다른 음식을 먹는다는데... '영차 영차' 힘을 내야지. 그리고 열심히 걸어서 간 곳은... '라우제' 중국집인가? 메뉴엔 자장면도 없네 그려~.

그 곳은 베트남 음식점. 라우제라는 그 곳 간판 이름이기도 한 이 음식은 얼핏 들기로 우리나라의 신선로 같은 음식이란 다. 한국의 신선로 VS 베트남의 라우제 (비교체험 극과 극을 찍어봐? 음. 나중에 신선로를 먹으면 그 때 찍도록 하자.)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먹는 방법을 소개하지요. 하나. 자스민차로 입안을 청소하고.

두울. 커다란 접시에 채소들이 듬뿍. 그리고 전골(?)이 나온다. 아주머니를 따라 채소를 넣고 (한꺼번에 다 넣으면 그 향을 느낄 수 없다.)

세엣. 방짜를 개인 접시에 넣고 육수로 적시면 호물호물해 지는데, 거기에 전골에 있는 살

짝 데친 채소를 싸 먹는다.
** 방짜란 만두피처럼 생긴 것으로 아주 얇고 쌀로 만들었다. 우리말로 쌀피.
네엣. 채소를 다 먹었으면 다음은 쌀국수를 넣어 끓여 먹는다.

앗! 가끔 아주 맛있는 짬두기도 꼬~옥 먹어주어야 한다. 거기에 디저트로 짜조라는 만두까지... (표정이 모든 걸 말 해주지요.)
기차 여행의 꿈은 무산되었

지만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다. 아니 기차 여행보다 더 좋은 볼거리와 먹을거리 기행을 한 것 같다. 뿌듯한 하루였다.
그 날 멋진 기회를 놓치신 선생님들을 사비를 털어서라도 꼭 한번 경험하시길...

확대 간부 연석 회의에 참석한 후...

이창욱 · 서울 서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2000년-

무슨 여자가 회의를 하는데 밤까지 새나며 못내 의심을 품던 우리 아들을 비롯하여 나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한마디씩 궁시령 궁시령하는 것을 무시하고 나는 의기도 당당하게 외박을 하였다. 처음부터 길을 잘 들여 여자도 일 때문에 외박한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

첫날. 두려움 그 자체다. 왜냐하면 난생 처음 참석하는데다가 얼굴을 잘 모르는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 지 정

말 걱정이었다. 일단 안면몰수하고 내가 해야 할 임무만 잘 수행해야지 마음을 먹었다. (난, 배워야 하는 입장이었음.)
1월24일 서부지회원들과의 만남에서 우리 서부 지회의 1년 사업에 대해 이야기가 나누어졌던 터라 이야기 꺼리는 준비가 되어있었는데, 북부지회, 남부지회의 사업계획서는 우리와 비교도 안되게 잘 해 온 것이었다. 게다가 전국 각 지역에서 오시는 선생님들을 보니, 기가 술술 죽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내가 아는척을 할 수 있는 운

경 선생님은 너무나 바빠서 시간도 없는 것 같고 팬서리 이곳, 저곳, 기웃거리니 눈 조차 두기가 민망할 정도였다. (아! 집에 가고 싶어!)
그럭저럭 저녁밥을 먹고, 간략하게 자기 소개를 하고 정회원 전회장님의 2000년 중앙사업계획에 대한 각 분야별 설명이 있었다. 전회장님과 가까이 있어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너무나 소탈하고, 화장도 안한 주근깨 얼굴과 얇은 주름이 소박하고 편안한 기분을 가지게 하였다.

확대 간부 연석 회의에 다녀와서...

유익원 · 광주전남, 해뜨는 동산볼이방

새즈른 천년!!

한달을 쉼을 쉬어버린 지금, 온갖 매체에서 떠들어대던 밀레니엄도 결국 '상업성'의 한 부분에 희생되지 않았나 싶다. 이래저래 개인적으로 교사로서, 교사회의 회원으로서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은 심난함과 총회 준비로 마음만 바쁜 나날로 힘이 빠져 있을 무렵 서울에서 확대간부연석회의가 있다는 소리에 내심 잘 되었다 싶었다.

각 지부, 지회들은 올 한해 어떤 목표를 잡았을까? 우리지부가 계획한 사업 내용이 중앙의 사업방향과 흐름을 함께 할 수 있을까? 등등 이런저런 생각으로 몸은 기쁘게 서울로 향할 수 있었다.

아니나다를까 회의 장소인 씨익이어린이집 문을 여는 순

간부터 광주에서의 약간의 막연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좋음이 느껴졌다.

중앙과 각 지부, 지회의 사업방향과 계획을 듣고 보면서 그동안 따로 돌던 생각들이 가다가 맥락이 잡혀지는 듯 해 우리 지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받으면 되겠구나 하는 조금의 의욕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작년 한 해, 소모임의 비활성화와 개개인 회원들의 힘듦, 교육적 연구모임의 부재로 인해 침체기를 겪었던 우리로서는 각 지부, 지회가 특색있는 주제를 잡아 연구모임을 결성해 지부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중앙에서 하는 미술소모임, 발도르프 교육 등의 현장연구

소모임을 보면서 그 내용의 유익성과 교사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연구모임을 뒤로 미루었다.

이제는 확대간부연석회의를 계기로 우리 회의 활성화와 교사 개인의 교육적 고민을 풀어내기 위해 작으나마 연구모임 형태를 꾸릴 수 있을 것 같다. 비록, 짧은 일정이라서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지만 각 지부에서, 각각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마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을 수가 있었다.

여기에서 얻은 힘을 광주보육교사회 회원들에게 나눠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광주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진다.

정도 잡히고, 술도 먹었겠다. 정말 세상이 즐거워졌다. 모인 사람들 모두가 경거워 보이고 말도 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아른아른하게 토요일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술병이 사라지더니, 상위의 안주가 떨어지고, 그나마 있던 안주마저 보이지 않을 때쯤, 옆 사람들은 하나 둘 잠을 자러 방으로 방으로 가버린다. 끝까지 앉아서 자리를 지키는데 술을으슬하니 한기가 들어 방으로 들어가니, 그 때 시간이 새벽 6시. 이제 자면 언제 일어나나? 잠은 오지 않고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꼬박 날을 새워 8시에 일어났다. 빈 속에 따끈한 커피를 한잔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니, 싸리눈이 내리고 있다. 기분이 좋아진다. 하나 둘 사람들이 일어나서 부지런히 아침 준비를 하는데, 어라? 부스스한 머리에 눈도 반은 감긴 채 최 순옥 선생님이 연한 핑크색 내복까지 차림으로 실내를 활보하고 있다. 난 이런 경험이 정말 처음이라, 너무나 재미가 있는 풍경이어서 그야말로 마음은 완전히 오픈 상태가 되어 첫 날의 두려움은 말끔히 사라져 버렸다!

정회연 전회장님이 차려준 밥상으로 아침을 맛있게 먹는데, 그 분위기가 여느집 가정의 아침 풍경처럼 정갈스럽고, 편안하였다. 식사 후 각 방에서

팀별로 중앙에 요구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가 참여한 방은 조직에 대한 분야였는데 여러 선생님들의 직접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이때서야 비로서 나는 한국보육교사회의 구조와 하는 일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어쨌든 경험과 막연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회의였으며,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중에는 안타까움과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이 될 수 있을까 고민도 되고, 이 일을 맡으면서도 자꾸만 뒤로 숨으려 했던 소극적인 태도를 바꾸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회원들의 얼굴이 구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지난날!! 이번엔 회의에 참석했다는 결과 좋은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대할 수 있어서, 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정말 기뻐다. 지금 이 글을 쓰니 그 날의 일들이 새록 새록 생각이 난다. 서울의 박인혜 선생님과 안경자 선생님과 함께 일 할 수 있게 되어 고맙고, 이렇게 맺은 인연들이 좋은 만남의 연장선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 날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 오래 오래 건강하세요!!

설명을 하는 목소리는 상당히 단호하고 진지하여 정말 대단한 여자들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난, 여태까지 여자는 약하고 아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랑 받는 여자가 되나? 이런 궁리만 하는 사람만 보았기 때문) 진지하기가 나라사랑의 모임처럼 한마디로 멋있었다. 우리 여자라는 존재가 위대하고 훌륭해 보였다.

그 다음 늦은 시간임에도 열기는 식지 않고 각 지부별 2000년 사업 설명회가 시작되었는데, 부산과 대구 지역의 선생님들은 치밀하게 준비를 해 온데다가 내실도 있어 보이고, 의욕도 역시 높았다. 광주, 수원, 경기, 인천, 서울을 끝으로 지부별 사업계획 발표는 실내를 후끈 달아오르게 하면서 11시30분 경에 끝이 났다. 지부장의 마무리 정리를 하고 드디어 날밤새는 시간이 시작되었다. 아예 낯설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밖에서 밤새는 일은 정말 오랜만의 일이라서 온근한 기대까지..... 술이라도 한 잔 하면 어색함이 조금은 사라질 것을 기대 하면서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주는 대로, 안 주면 내가라도 따라서 마시니 오늘따라 술 맛도 기가 차게 맛이 있어, 잘 넘어간다. 확대 간부 연석회의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의 윤곽도 어느

모범지부상을 받고

최정임 · 부산, 아기자랑터

나른한 오후 낮잠을 즐기려 하는데 댜 전화!

모범지부상을 받은 소감을 적으란다.

난 회장도 아닌데, TV에서나 어디에서나 보면 시상식엔 대표나 회장이 인사와 소감을 발표하거늘... 우째 이런 일아...

먼저 모범지부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부상으로 양말까지 주셨으니 더더욱 기쁘다. 막강한 광주와 인천 등 다른 사무를 제쳐두고 두번씩이나 모범지부가 되어 다른 지부 회원들에게 죄송한(?) 생각마저 든다.

99년 1년동안 열심히 뛰어나는 사연을 말로 하자면 4박5일로도 부족하겠지만 글로 적자나...

어려운 지부 살림을 돕기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교사의 눈치를 받으며 강습을 뛰어 재정에 보태고, 부산대 수익사업으로 주점을 할 땐 우리 주머니

털어 며칠씩 찾아가 술마시고, 8살되는 아들과 비슷한 조그

만 채구에도 불구하고 조직사업에 위해 2살되는 은미를 업고 아들 손잡고 가슴에 가방걸고 뛰어 다니신 조직부장님, 교사 재교육 준비하느라 경민이 업고 이곳 저곳 뛰어 다니시는 교육부장님, 1년동안 같이 일하면서 늘 안스러웠다.

어린이날 "가슴펴고 어깨걸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따가운 햇볕아래 장시간 서 있어 쓰러질 뻔한 일도 있었고 선배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신입 회원에게 혼이 난 일도 있었다. 부산시 여성정책제안을 위한 토론회 준비를 위해 일주일 일을 꼬박 밤을 지새우신 회장님.

교사재교육 하는 날이면 교사보다 아이드림이 수가 더 많았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도 마다하고 교사재교육을 받으러 온 회원님들.



2000년 정기 총회 준비하면서 운영위원들이 너무 힘들어 사퇴의사를 밝혔다가 신진교사에게 거센 항의(엄정났음)를 받아 사퇴의사를 철회했던 일 등등...

어떻게 우리 지부가 모범지부상을 받게 되었는지를 이 좁은 종이에 다 풀어놓을 수 있겠는가?(자랑이 너무 심했나?)

모든 회원들이 회장님과 더불어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모범지부상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모범지부상을 받게 된 소감을 적은것은 힘들었지만 이 세기가 다하도록 계속해서 모범지부상을 받고 싶다.

부상으로 준 양말 닳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부산보육교사회 화이팅!!!



어린이와 건강

4, 5세 아동의 발달 검사

고시환 · 흥은 소아과 원장

흥은 소아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발달검사를 받아 보았습니다. 딱딱이어린이집에서 도움을 주었으며 몇가지 아동의 발달을 평가하는 내용들을 소개하니 참고해서 살펴보세요.

윤조룡 (1995년 6월 22일 생, 여)

초롱이는 만 4세가 지난 아이로서는 또래의 아이들 보다 상당히 빠른 발달상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검사자와 친해지거나 낯선 환경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검사에 들어갔음에도 검사 내내 매우 협조적이었고, 검사 항목마다 흥미를 보였으며, 검사자의 말뜻을 잘 이해하며 검사를 했습니다.

보통 이 또래의 아이들은 가위질을 할 줄 알게 되며, 한쪽 발로 뛰는 것을 시키면 할 수 있습니다. 또, 한쪽 다리만으로 4~5초 정도는 서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각형을 보며 따라 그릴 수 있으며, 사람을 그릴때는 신체의 세부분 이상을 그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여 이야기 할 수 있고, 전치사와 반대말을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양치질과 세수를 혼자 할 수 있으며,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협조적으로 잘 놀 수 있게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아이들은 유치원에 다니며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법과, 여러 가지 규칙을 지키고, 말을 배우게 되

어 학습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초롱이의 검사결과

개인 사회성 영역은

- ① 혼자 양치질과 세수를 할 수 있었으며
- ② 아이의 친구이름을 이야기하는 항목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잘 따르는 언니의 이름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 ③ 어린이집에서 게임을 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물을 이해하며 게임을 하고 있었으며(어린이집 선생님이 관찰 한 결과입니다.)
- ④ 식사 시간에 식사 준비를 할 때도 매우 협조적으로 잘 하고 있었습니다.

미세근육 운동 영역은

- ① 다른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고 엄지 손가락만을 움직이는 항목에서 초롱이는 매우 잘 하였으며
- ② 원을 보고 그리는 항목 역시 잘 하였습니다.
- ③ 사람을 그려 보라고 했을 때 사람의 신체 부분을 3부분 이상 그려야 하는 항목에서는 눈, 코, 입, 눈썹을 그려 통과하였습니다.(신체 부분을 그렸을 때 대칭되는 부분은 한가지로 취급 하였습니다.)
- ④ 십자(+)를 보고 그리는 항목 역시 아주 잘 그렸습니다.

- ⑤ 두 선을 보고 더 긴선을 가려내는 항목에서는 선 두 개를 놓고 처음 거꾸로 놓았을 때 긴선을 가려내지는 못했지만 세 번 정도 검사를 제 시행해 본 결과 초롱이는 긴선을 정확히 구분해 낼 수 있었습니다.
- ⑥ 만 5세가 지나면 할 수 있는 항목인 사각형 그리기는 4살의 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잘 그렸습니다.

언어 능력

- ① 숫자를 세는 항목에서 초롱이는 여덟개 까지 정확히 셀 수 있었으며(이는 만 5세가 지나면 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 ② 세가지 정도 물건의 용도를 알 수 있는지를 보는 항목에서는 컵이나, 종이, 연필, 공 등의 용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 ③ 색깔을 알아보는 항목 역시, 빨강, 주황, 노랑, 파랑, 초록 색등의 색깔을 정확히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 ④ 단어의 의미를 알고 정의하는 항목 역시 아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 ⑤ 검사자가 요구하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고, 또 이해하는 것만큼 모든 항목을 잘 하였습니다.

대근육 운동 영역

- ① 한쪽 다리만으로 6초 정도 중심을 잡고 서 있을 수 있어야 통과하는 항목에서 초롱이는 양쪽다리 모두 중심을 잘 잡았습니다. (이 항목은 보통 만 5세가 지나야 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 ② 한쪽 다리만으로 넘어지지 않고 뛰어야 하는 항목은 양쪽다리 모두 한번씩 번갈아 가며 시행해 본 결과 중심을잡고 잘 서 있었던 것 만큼 잘 뛸 수 있었습니다.

- ③ 일 직선에서 발꿈치와 발가락으로 걷는 항목에서 역시 잘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5세가 지나야 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총평가

개인-사회성 영역에서는 검사를 시행한 9개의 항목 모두를 통과하여 또래와 비슷한 발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3개의 항목은 만 4세 아이들 중 75% 이상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항목을 아주 쉽게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의 룰을 이해하며 게임을 한다든지, 누구의 도움 없이 옷을 입고 벗고할 수 있다든지 하는 항목은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는 항목이어서 초롱이에게는 아주 쉽게 느껴지는 항목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를 자유롭게 움직여 쉽게 연필을 잡아 안정감 있게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아 미세 근육 운동 역시 매우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어 영역에서 역시 단어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었으며, 상대방과의 대화 역시 매우 자연스럽게 잘 하고 있어 아주 정상적으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평가할 수 있는 언어 항목 이외 검사자와 대화를 나누어 본 결과 초롱이는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며 자신의 의사 표현 역시 또래의 아이들보다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5세 정도의 발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쪽 다리를 들고 중심을 잡고 서서 약 6초간 서 있다든지, 한쪽 다리로 뛴다든지 하는 것을 매우 안정감 있게 잘 하고 있어서 이 부분 또한 5세 이상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항목도 무난히 할 수 있었습니다.

노솔찬 (1996년 10월 4일생, 남)

솔찬이는 만 3세가 조금 지난 아기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쏘이면 양팔과 신발은 신고 벗을 수가 있고, 손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의 이름과 자신의 성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으며, 셋 정도 까지는 셀 수가 있습니다. 블록을 안정감있게 쌓을 수가 있습니다. 한쪽 발로 잠깐은 서 있을 수가 있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새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어 이전 보다 더 부산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놀면서 솔찬이는 빠르게 환경에 적응했지만, 주의가 산만한 탓에 여러 가지 검사 항목을 거부해 몇가지 항목은 검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찬이의 검사결과

개인-사회성 영역

- ① 손을 혼자 씻고 말리기는 어린이집에서 거의 매일 한다고 하였으므로 통과
- ② 친구의 이름을 말하는 항목에서는 어린이집에 같이 다니는 친구의 이름을 말하였으므로 통과
- ③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는 아기였으며, 검사가 끝난 뒤 돌아갈 때도 혼자 입었으므로 통과
- ④ 어린이집에서 게임의 룰을 이해하며 게임을 한다고 하였으므로 통과

미세운동 - 적응 영역

- ① 블록은 안정감 있게 6개는 쌓았지만 8개를 쌓는 항목에서는 겨우 세울 수 있는 정도로 쌓고

있었습니다.

- ② 엄지손가락을 다른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고 움직여야 하는 항목은 통과
- ③ 동그라미 그리는 항목은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 항목은 4세쯤 되어야 할 수 있는 항목이므로 이는 그리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언어 영역

- ① 4가지 그림의 이름을 알고 말하기는 보통 24개월이 지난 아기의 75% 이상이 할 수 있는 항목인데 이 항목은 무난히 통과
- ② 형용사를 보고 그림을 맞추는 항목도 무난히 통과
- ③ 1가지 색깔 맞추기 항목은 이 월령의 아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항목이며 이 항목 역시 통과
- ④ 1개의 숫자세기 항목은 한 개는 셀 수 있었으나, 그 이상은 아기가 세지 못하며 무조건 다섯 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1개를 셀 수 있었으므로 통과
- ⑤ 상대방의 의사 이해하는 항목에서는 검사자의 의사를 모두 이해하였으므로 통과

대근육 운동 영역

- ① 높이 뛰어 오르기는 아주 신나 하며 잘 하였습니다.
- 나머지 한발로 서 있거나, 한발로 뛰기 등은 아기가 하기 싫다고 거부했던 이유로 검사를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습잔이의 검사결과

개인-사회성 영역은 대부분 또래가 할 수 있는 항목은 잘 통과하였으며, 옷을 입는다든지, 물을 이해하며 게임을 한다든지와 같은 항목은 4세가 지나야 할 수 있는 항목임에도 아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세 근육 운동 영역에서는 블록 쌓기라든지, 엄지손가락 움직이기등은 매우 잘 하고 있었으며, 검사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검사한 모든 항목은 정상적으로 통과하였고, 다른 또래들과 같은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어영역은 아직 발음이 부정확하였고, 여러 가지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나 원하고 싶은 것은 정확히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용사라든지,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다른 또래들 보다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4개월이 지나면 표현 할 수 있는 형용사들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대근육 운동 영역은 아이의 거부로 검사를 할 수 있는 항목이 2가지 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녀의 삶이 궁금하다.

이민란 · 인천 햇살 어린이집



- ☆ 임미란슈타이너내선생님은
- ☆ 8년간의 어린이집 교사생활을
- ☆ 잠시 중단하고
- ☆ 지금은 강화의 포구가 바리보이는 언덕 위의 아름다운 집에서
- ☆ 사랑하는 딸아이와 남편과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리면서
- ☆ 그동안 못보지 못했던 건강도 추스르고
- ☆ 순영애들도 바리보며 아름다움을 충전하고 계십니다.

만나고 싶은 교사에 점을 당하다니 너무나 영광스럽고 당황스럽다. 나도 누군가를 점 해야 하는 순간 오래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가까이 다가갈 기회만을 노리며 그동안 흥분해오던 임미란선생님이 생각났다. 이러저러한 일로 바쁘다는 핑계는 역시 게으름이었다는 고백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나만큼이나 임미란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줄세우다가 결국 막바지에 사무국 최순옥 선생님만을 모시고 (두 집의 초동학생은 현장교육 - 학교결석) 금요일 밤 강화행 버스를 탔다. 설렘을 안고 도착한 강화의 언덕 위의 아름다운 집에는 맛있는 임미란 선생님이 따뜻하고 맛있는 저녁식사와 함께 그림책의 주인공처럼 이름부터가 정다운 순영이가 그 수하들을 거느리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우리를 기다리느라 오랫동안 차려져 있었던 저녁식사는 충분히 우리를 행복하게 했다. 저녁 먹고 순영이 아빠만 남겨두고 집 앞에 하얗게 펼쳐진 논으로 내려가니 뽕뽕 얼어있는 얼음판이 우리를 반긴다. 아주 익숙한 순영이와 그 수하들은 선수가 되어 얼음판에서 달리기 하고 우린 초보인지라 넘어질세라 조심조심 살짝살짝 미끄러움을 타는데 최순옥 선생님은 딸아이와 함께 빙판 위의 요정이 되어 춤을 춘다. 나도 부러워 무뚝뚝한 아들녀석 손을 잡아보지만 그냥 달아나 버린다. 얼음판 위의 우리는 자연 속에 묻힌 한

쪽의 그림이었고 그때가 바로 정월 보름을 하루 남겨둔 날이어서 달무리까지 달밤의 세조(?)를 하는데 더 없이 좋았다.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간 듯 신나게 얼음지치기를 하고 포구 쪽으로 내려가는데 바닷가 갈대밭 사이로 폐가가 귀신얘기를 하기에 딱 알맞다. 임미란 선생님의 실감나는 귀신얘기에 우리 아이들이 긴장을 했는지 일행의 가운데 끼서 걷는 품에 우리는 한바탕 웃음을 포구 쪽에 남겨두고 시원한 밤바람을 몸 속 깊이 받아들이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 아름다운 자연을 어찌 이 짧은 실력으로 다 표현할까. 정말 좋은 풍경이었다.

아이들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왔다갔다 하더니 우리들의 회포에는 못 미치는지 하나 둘 잠자리에 들고 이런저런 얘기에 밤은 깊어갔다. 늦은 아침을 먹고 선생님들이 궁금해 할 것 같은 얘기를 하나하나 꺼내놓는데 좀처럼 얼굴이 빨개지지 않는다는 임미란 선생님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내내 얼굴이 붉어지면서 '내가 뭘 했다고' 하시면서 씩스러운 웃음을 웃으신다.

언제나 당당해 보이는 그래서 자신 있어 보이는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선생님을 만나보니 왜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는지 알 것 같았다. 묻는 질문에 하나하나 정성으로 답하시는 모습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도 뭘 것 같은 푸근함에 내 얘기를 더 많이 들어주는 선생님한테 좀 민망하기도 하고 고맙다. 강화를 구경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이 이곳저곳을 권하지만 문 앞에만 나서도 더 이상 바랄게 없는 자연이 우리를 움직이지 말라한다.

아침나절동안 아이들은 마당에 돌을 놓아 아궁이를 만들고 불놀이를 하며 밤을 구워 먹어서 새까맣진 입 주변과 빨개진 코끝으로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진지하게 불을 피워 놓았고 우리는 남

은 군밤을 까먹으면서 야외 식당을 차려놓았다. 그 맛이라는 강화도 삼겹살은 바람과 함께 실려오는 연기에 눈을 감으면서도 우리를 충분히 행복하게 했다. 맛있게 먹으라는 말이 필요 없는 그 분위기는 며칠 동안 아들녀석의 기분을 좋게 했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거리로 내놓게 했다.

우리를 즐겁게 해준 또 하나의 선물은 순영이. 경중경중 걷는 순영이는 어른들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즐겁게 해주었고 오기 직전에 환상적인 춤 솜씨를 발휘한다. 맘 같아서는 하루 더 있다 오고 싶지만 밀쳐둔 일들이 나를 부르기에 아쉬움을 털고 일어선다. 이 아름다운 경치와 더 아름다운 선생님을 어떻게 미려한 글솜씨로 잘 표현할까 하는 부담과 언제든지 오라는 임미란선생님의 마음을 새기면서...

Q 어린이집교사생활을 하게된 동기는?

노조활동을하며 지쳐있을 무렵 더 이상갈 곳이 없었다. 혜영, 용철 남매의 사망소식을 신문에서 보고 쟁하며 눈물이 났고 내가 갈 곳임을 알게 됐다. 처음 튼튼이어린이집에 갔을 때 열의는 있었지만 돌아보니 부끄럽다.(최순옥선생님 : 탁월한 교사였다) 신진교사들에게 훌륭한 교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소중한 아이들과 생활하며 자꾸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거울을 보듯이 자신을 돌아보며 성숙되어가길 바란다.

Q 아이들이 사랑스럽지 않았을 때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요?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주말이 건디기 힘들 정도로 아이들이 정말 좋았다. 문제행동을 하는 아이들은 그 마음 속에 들어가 친구가 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교사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미운 아이들은 없다. 아이들과 눈 높이를 맞추어서 그 아이의 친구가 되고 나를 먼저 알리고 그 아이

의 맘을 알아주면 아이들은 다가온다.

Q 동그라미나 한우리에 계실 때 운영을 잘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비결은?

한우리는 열악한 환경이었고 성공이 보였다. 상담 온 아이들은 한 명도 놓치지 않았다. 시설장은 목적과 교육관이 분명해서 그에 대한 확신이 서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모와 같이 호흡을 해야 한다. 주적이나 상담등 부모와의 관계를 중요시 했다. 교사들과의 관계에서는 스스로 거울을 보듯이 자신을 수없이 돌아보고 늘 나를 낮추고 기다렸다. 그리고 이 든든한 체구도 한 몫 했다.(최순옥선생님 : 뛰어난 화술도 믿음이 가게 했죠.)

Q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몸이 안 좋아져서 쉬고 있는 관계로 일단을 잘 놀고 있으며 동화공부를 하고 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 아니지만 린드 할머니처럼 나이가 많이 들어도 아름다운 감성을 가진 동화작가가 되겠다. 그리고 생태교육을 구체화하는 일을 해볼까 한다. 자연은 나와 은혜로운 관계이다. 깊이 있는 탐색으로 활동 속에서 서로 공생관계, 가능성과 바람의 관계를 끌어내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자연에서 나온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소중함을 느낀다. 유아기 때부터 자연을 알게 해줘야 한다.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자연이 주는 선물이다.

베이비 시터 방문교사를 교육하는 일도 하고 있다. 요즘은 자연과 생태교육에 중심을 두고 있다.

Q 컴퓨터와 아주 친한 걸로 알고 있다. 컴퓨터와 친해지는 방법은?

인터넷에는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사진 자료, 현장지원 활동자료 등 수 없이 많은 놀랄만한 자료가 있다. 모든 교사들이 욕심을 가지고 이 많은 자료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컴퓨터

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들 하는데 글자만 알면 할 수 있는 게 컴퓨터와 친해지는 일이다. 무조건 덤벼라. 겁내지 말고 안내하는 데로 다니다 보면 재미가 있어진다. 문서보다는 통신으로 시작하고 통신사 전용프로그램을 쓰면 어렵지 않다.

Q 임미란 선생님이 올린 글 속에서 순영이를 자주 만나게 되는데 순영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동그라미에 있을 때 순영이는 엄마 때문에 피해의식이 있을 정도로 친구도 못 사귀고 힘들어했다. 강화에 온 이후로 많이 좋아진 게 보인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고 자연을 제공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일단은 조용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다. 지금의 고요한 시간이 소중하게 남을 것이다. 하루에 한 두시간 출추기, 책보기, 산책 외에는 스스로 놀이를 만드느라 순영이는 바쁘다. 투정을 부리기는 하는데 자기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순영이를 보면서 일선에 있는 보육교사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든다. 앞으로 개성은 있을 것 같은 순영이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 차라면서도 이 마음이 계속 되길 바란다.(순영이 수하에는 식량(?)으로 키우는 강아지 두 마리와 순영이 뒤를 그림자 같이 따라다니는 고양이 한 마리, 암탉 여섯 마리, 수탉 한 마리가 있었고 자연 속에서 그림처럼 동화처럼 아이답게 자라고 있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잘 쉬고 전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고 싶다. 의무감처럼 내재해 있는 박애정신을 실천하는 일과 아이들과 관계된 일을 계속 할 것이고 아이들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

임미란선생님은 그녀를 만나고 싶어합니다. 임미란선생님 만큼이나 당당하고 멋있지만 다른 모습의 그녀는 앞으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활동서 같은 분이죠. 우리 곁에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를 대변할 분이죠. 깊이 갑시다!!!

어린이집에서의 하루

아! 벅찬 3월이네요.

주혜민 · 서울 남부, 씹씹어린이집

3월입니다.
겨울내내 버티고 있
던 가로수들의 가지들
이 잘리워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봄단장을 하는 것들전대 동강난 모습이 몽땅한
게 왜그리 둔하게 보이던지 안스럽기까지 했습니
다. 그래도 그곳에서 여러디 여러 새순이 돌아나
겠지요. 이런 희망을 생각해 하는 건 무늬해도 3
월이기에 가능한 게 아닌가 합니다. 몇일 전만해
도 매섭기만 한 바람이 3월 햇살 앞에선 순하게
우리의 살갓을 감싸주듯 말입니다.

아렇게 3월은 선듯 다가왔습니다.

두텁디 두꺼운 겨울 각질을 뚫고 치열한 몸부
림 속에서 새순이 돌아나듯 3월은 가슴 벅찬 떨림
을 줍니다. 씹씹이에도 영락없이 3월은 벅찬 떨림
으로 시작됩니다.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이라 알콩달콩 아기자기
한 재미가 있습니다. 몇명 안되는 녀석들을 졸업
시키고, 몇명 안되는 아이들이 입소하는데도 씹
씹이의 3월은 떨림으로 들끓습니다.

새하기를 맞기 며칠 전 씹씹이에선 교사 M.T
가 있었습니다. 일년에 꼭 두번있는 것으로 그 중
에서도 새해 2월에 갖는 교사 M.T는 총평가와 앞
으로의 계획, 역할 분담, 새로운 반배정이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날 교사들에 있어 치열했
던 사안은 뭐니뭐니해도 새로운 반배정이었습니
다. 교사의 선택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었기 때
문에 더욱더 고민이었습니다.

지금 말고 있는 반을 그대로 말고 갈 지, 아니
면 새로운 반을 맡을 지... 이 날 회의까지도 마음
의 결정을 못한 상태였지요. 특히 영아반일수록
아이들의 정서를 생각해서 한 교사가 지속적으로
보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은 있었지만,

왠지 저에게 있어선 정
반대의 생각이 더 지배
적이었습니다. '아이들
에겐 신선함을, 교사에
겐 정신건강을 위해서

바뀌야 돼!' 이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지난 1
년을 돌이켜보니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들었
고 이는 다시 잘 해보겠다는 마음보다 해방(?)시
켜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렇
수 있는 것도 다 씹씹이 공간이 갖는 환경이 여유
있게 마음정리를 하게 했을 것입니다. 꼭 다시 그
반을 맡지 않아도 언제고 미안한 마음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이 있기에 나의 정신건강
과 아이들의 신선함을 생각할 수 있었지요. - 씹
이는 하루에 약 3~4시간 정도만 분반 활동을 하
고 나머지는 혼합보육을 합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다 재고(?) 아이들을 보냈습
니다. 미나 이모가 맡게 되었는데 그런데 참 이상
하죠? 우리반이었던 아이들이 특히 달순이가 미
나이모 앞에 앉아 편안해 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심통이 나니 말입니다.

아직도 나의 눈길이 새로 맡은 아이들보다 이
전의 녀석들에게 가는 걸 보니, 3월은 그렇게 서
로 적응해 가며 기대며 살 것 같습니다. 혹자는
그렇지도 모르겠습니다. 씹씹이는 왜 그렇게 느
슨하게 굴러가냐고... 육해도 할 수 없는 노릇이
랍니다.

모든 아이들이 모든 교사의 눈에 보이는 걸 어
찌겠습니까. 둔해 보여도 새순이 돌아나오는 걸
어찌겠습니까.

예슬어린이집에서 생긴 일

위준임 · 인천, 예슬어린이집



01

무슨 차이

낮잠 후 머리 빗는 시간, 순서를 기다리며...

금빛나라(6세) : 야, 오늘이 목요일이냐?

해린(6세) : 응~ 내일은 금요일이야.

어~ 두 밤만 자면 나 비디오 보는 날이네~

금빛나라 : 나는 비디오 안봐. 땀날땀날 비디오 안보고 하루에 한번
씩만 봐.

교사 : 무슨 차이????



02

포크의 용도는?

스머프(교사)가 목이 아파 모과차를 먹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스머프 옆에 있던 진명(5세)이에게 모과 알갱이를 주었어요. 그러자
몇명의 아이들이 달려와서 달라고 아우성이네요. 그런데 손가락으로
주기가 영~

스머프 : 수민(7세)아! 포크 좀 가지고 올래?

수민 : 어디 있는데요?

스머프 : 문 여는데... (식기 소독기가 생각나지 않아서)

잠시후

수민이가 갖고 온 것은 고기를 삶을 때 찔러보는 포크.

스머프 : ???



03

성격이 급해서 좋은 점?

무지하게 성격이 급한 우리의 향가희(5세, 여아)

오늘도 그 급한 성질을 어찌지 못하고...

자유놀이 시간 교사는 한 쪽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사건이 터
졌다.

이 때, 대번에 향가희가 이르러 온다.

가희 : 선생님! 네, 네, 네 (친구 이름을 말해야 하는데 생각이 안나
는 중) 재가요~, 네에

이름이 뭐드라?



04

귀 속의 밥?

교사 : 누가?

가희 : 네에~ 재가요~(도저히 생각이 안나는 듯)

가만 있어봐요.(교사에게 얼굴을 맞대고 눈을 맞추더니 그래도 생각이 안나는 듯 그 아이한테 가서 얼굴을 들이대며) 야, 너 이름이 뭐냐?

아이들 : 김다우~운!

이 때 어느새 상황을 잊은 채 열심히 노는 항가희.

교사 : ?!?!?!?

자유놀이 시간

교사 : 수정아, 수정이 귀에 귤밥 있다.

수정(31개월) : (다른 한 귀를 가리키며) 요기는 김치볶음밥 있어요.

교사 : ?

수정 : 선생님 수은이(수정이 동생)는 김치 볶음밥 못먹어요. 매워요.

선생님 : 그래? 수정이는 귀속에 뭐 있는데?

수정 : 김밥이랑 김치 볶음밥.

교사 : ?????



육아일기

나현이의 육아일기 -출생에서 1개월

김연숙 · 회원



99년 9월 19일 일요일 - 생후 6일

생후 6일째 되는 날 퇴원.

젖을 처음 빨렸는데 젖꼭지가 잘 물리지 않아 아기가 고생이다. 애쓰다 지치니까 우유 쪽지도 물지 않으려고 한다. 젖 약 20ml에 분유 약 150ml를 먹었다. 노란색 묽은 똥을 두 번 싸고는 항문이 약간 찢어져 피가 났다. 울음 소리가 너무 약하다. 병원에서처럼 킁킁 싸두었다. 피부가 울긋불긋 추운 것 같은 색깔이다. 뱃속에 있을 때 얼음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보다. 낮에는 주로 눈을 팔똥똥 뜨고 있다. 잘 울지도 않는다.

99년 9월 20일 월요일 - 생후 7일

생후 일주일째, 새벽에 자는 동안에는 잘 먹지 않는다. 밤 12시에는 30ml, 새벽 4시에는 깨워서 먹였으나 겨우 30ml, 6시에는 20ml, 9시에는 젖만 약 30ml를 먹었다. 이제 젖꼭지를 뺀다. 아직 젖의 양은 턱없이 부족, 괜히 기운만 빼는 게 아닌가 싶다. 오전에만 황금색 똥을 두 번 싸고, 운동하라고 팔을 풀어주었다. 우는 소리는 여전히 약하다.

99년 9월 25일 토요일 - 생후 12일

감자기 설사를 한다. 탈이 나서 하는 설사 같지는 않다. 모유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 봤더니 괜찮다고 그냥 계속 먹이라고 한다. 잘 먹으면서 하루 서너 번 정도 하니 별 문제는 없을 거다. 신생아 때부터 그러더니 종일 눈을 팔똥똥 뜨고 있다. 울지도 않으면서.....



99년 9월 27일 월요일-생후 14일

생후 2주일 제. 며칠 설사를 하고는 약 40시간 이상 똥을 안 싸더니 약간 되직한 변을 보고는 이제 하루 한 번 규칙적으로 변을 본다. 4시간마다 100ml 이상씩 먹는다. 젖과 분유를 다 잘 먹지만 젖을 빠는 것을 더 좋아한다. 분유는 먹는 도중에 꼭지를 빼도 가만히 있는데, 젖은 빨다가 빼면 난리를 친다. 얼굴도 제법 통통, 네모가 되었다.

99년 9월 28일 화요일-생후 15일

어제부터 먹는 양이 급증했다. 얼굴이 통통해지고 울음소리도 제법 힘이 있다. 하루에 여섯 번 정도, 한 번에 100ml씩 먹는다. 젖은 하루에 200ml 정도밖에 못 먹인다. 변도 하루 한 번, 소변은 무척 많이 본다. 오늘 예방접종하고 왔다.

99년 10월 8일 금요일-생후 25일

생후 25일째. 어제는 하루 종일 잤는데 오늘은 30분만에 깨곤 한다. 특별히 울지도 않으면서 깊은 잠을 못 잔다. 우유도 조금씩 자주 먹는다.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이유를 모르니 답답하다. 꼬물락 거리면서 칭얼거리다가 웅쓰고 뒤틀면서 또다시 조용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이다. 손은 주로 쥐지 않고 펴고 있다. 손가락을 계속 꼬물락 꼬물락 움직이면서. 그것도 은근히 걱정된다. 어제는 아빠 거드랑이 털을 움켜쥐었다.

99년 10월 11일 월요일-생후 28일

낮에 깨어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밤에도 늦게 잔다. 몸살이 나서 몸이 너무 힘든데 자꾸 안아야 하니 더더욱 힘들다. 한쪽 젖만 빨아서 젖이 찌꺼기가 되었다. 아기에겐 미안하지만 엄마의 미용을 위해서 젖을 그만 먹여야 할까보다. 자꾸만 짜서 먹이니 까 손가락도 아프고 너무 힘이 든다. 벌써 다섯 시간째 안 자고 있다. 도대체 정상인가? (잠시 후-배가 고픈걸 몰랐다. 120ml를 먹더니 곧히 잔다.)

99년 10월 12일 화요일-생후 29일

오늘 출생신고를 했다. 아름다운 나에 귀할 현 金銀顯. 우여곡절 끝에 인터넷 작명사이트에서 40,000+20,000을 주고 민솔에서 경은으로, 다시 나현으로 이름이 결정되었다. 아름답고 귀한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건강하고 아무 탈 없이만 자라다오. 오늘 부스러기 편집해야 하는데 너무 피곤하다. 지해도 와서 자고 간다고 했는데.....

99년 10월 13일 수요일-생후 30일

이제 태어난 지 꼭 한 달이다. 키도 5cm이상 자란 것 같고 몸무게도 1kg 이상 는 것 같다. 변이 좀 되직하긴 하지만 다 건강한 것 같다. 아기의 빨고 싶은 욕구는 대단한 것 같다. 자꾸만 배가 고픈 건 줄 알고 우유를 주니 울고 난리다. 일단 빨기는 빠는데 우유가 나오면 삼키질 못하고 격격 거리면서 괴로워 한다. 젖을 물면 더 심하다. 허겁지겁 젖을 물었다가 젖이 나오면 난리를 친다. 빨고는 싶으나 먹고 싶진 않은 거다. 빈 젖을 물고 자려고 하니 매번 젖을 깨끗이 비우고 빈 젖만 물려려니 고역이다. 게다가 젖꼭지는 자꾸만 빠진다. 그럴때만 빼고는 아주 순한데..... 착하고 예쁜 우리 딸. 엄마는 믿는다.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 줄 것을.....

99년 10월 14일 목요일-생후 31일

어제 새벽까지 보채다 늦게 잠들더니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분유 140ml를 먹고 또 자서 11시에 미리 짜놓은 젖 130ml를 먹고는 혼자 1시간 놀고 혼자 잠들어 1시간을 더 잤다. 먹을 때가 되었거나 잘 때가 되었을 때 칭얼거리는 것 말고는 우는 일이 없다. 은근히 걱정되기는 하지만 남들 딸이 알아서 기는 거란다. 나현아! 순해서 그런 거라 믿겠다.

능 텅 감 투

옛날

이번호 좋은 그림책 소개는 뽀진이의 사정으로 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구수한 옛이야기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아래의 옛이야기 "능텅감투"는 서울지부 소식지 "야! 찾았다" 1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옛날 옛적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었는데 인가를 못찾아 산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어. 어디서 자나 하고 사방을 둘러보니까 마침 산중에 무덤이 몇 개 있더라. 무덤 옆 잔디가 아늑하고 쪽싹해서 거기서 자기로 했지. 누워서 잠이 막 들려고 하는데 멀리서 "어이! 김생원."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나지 뭐야. 한밤중에 산 속에서 뭐가 이러나 하고 놀라 일어났지. 일어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로 제가 자던 무덤 속에서 "왜 그러나?" 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지 뭐야. 그러고 보니 밤 중에 무덤 속 귀신들이 주고받는 소리야. 그게. 무섭기도 하지만 재미있기도 해서 귀를 기울여 들어 봤지. "오늘밤 제 너머 김가네 집에 제사가 든다네. 제사 음식 얻어먹으러 가세." 이젠 저쪽 무덤 귀신소리지. "가고는 싶네마는 여기는 손님이 들어서 못 가겠네." 이젠 이쪽 무덤 귀신 소리고. "손님하고 같이 가면 안되겠나?" 저쪽 무덤에서 이러니까. "아, 그럼 그렇게 할까나." 이쪽 무덤에서는 이러지. 그러더니 이쪽 무덤에서 흰 옷 입은 귀신이 스르르 나와. 나와서는 이 사람이 있는 곳으로 슬슬 다가오더니 이 사람 머리에다 능텅감투를 하나 달랑 씌워 주고는 따라오라고 손짓을 해. 능텅감투를 쓰면 사람의 눈에는 안보여. 그런 말이 있어. 저쪽 무덤에서도 귀신이 스르르 나오고 또 그 뒤쪽 무덤에서도 귀신이 스르르 나오고. 이렇게 줄줄이 나와서 귀신들이 제사 음식 얻어먹으러 간단 말이야. 이 사람이 귀신들을 따라갔지.

귀신들은 재를 훌훌 넘어서 마을로 내려가더니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으로 썩 들어가. 들어가보니 제관들이 방안에 가득 모여있는데 아무도 저를 못 봐. 능텅감투를 써서 그렇지. 이 사람은 귀신들과 함께 앉아서 제사 음식을 이것저것 집어 먹었어. 그런데 귀신들이 집어먹은 음식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는데 이 사람이 집어 먹은 음식은 표가 나게 줄어들지 뭐야. 제상에 차려 놓은 음식이 쑥쑥 줄어들니까 제관들은 재를 지내다 말고 모두 기절초풍을 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상에 놓인 음식을 실컷 집어먹었어. 그렇게 음식을 먹으며 놀다가, 닭이 '꼬꼬' 하고 우니까 귀신들이 그만 가자고 하면서 주섬 주섬 일어나. 이 사람도 따라 일어섰지. 귀신들이 집을 나와 산으로

가니까 이 사람도 따라 갔어. 그런데 귀신들을 따라 산으로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제 곧 날도 섰는데 산으로 다시 들어갈 일이 없겠거든. 그래서 그냥 돌아서서 냇다 뛰었어. 귀신들이 뒤에서 능텅감투 내 놓고 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못들은 채하고 뛰었지. 모두 늙은 귀신이 돼서 그런지 소리만 질렀지 따라오지는 못하더라.

이 사람은 능텅감투를 쓰고 집에 돌아왔어. 집에 돌아오니 식구들이 아무도 몰라. 능텅감투를 써서 안 보이니까 그렇지. 이 사람이 능텅감투를 벗으면, "예구머니, 당신 언제 왔어요?" "어, 아버지 이제 오셨어요?" 하고 식구들이 인사를 하다가도 능텅감투를 쓰면, "아니, 이 양반이 금세 어디를 갔담." "어, 아버지 어디 가셨지?" 하고 두리번거리기만 하지. 이 사람이 좋은 보물을 얻었다고 기뻐하면서 그날부터 어디든지 제사지내는 집만 찾아다니. 능텅감투를 쓰고 제상 앞에 앉아서 음식을 집어 먹으면 음식이 줄어들지 않고 제관들은 놀라서 엎드려 벌벌 떨지. 그게 재미나기도 하고 음식이 탐나기도 해서 날마다 제사 드는 집을 찾아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하루는 이 사람이 낮에 능텅감투를 벗어 놓고 불일을 보러 간 사이에 아내가 그걸 봤어. 아내가 보니까 다 해서서 너털너털한 감투 같은 것이 있거든. 뭐 이런 지저분한 것이 다 있나 하고서 능텅감투를 그만 불에 홀랑 태워 버렸어. 불에 태워 버렸으니 제만 남지. 이 사람이 저녁에 집에 돌아와 보니 능텅감투가 그 꼴이 돼 있거든.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제사 음식을 훔쳐먹는 일을 그만두었으면 좀 좋아. 그런데 이 사람이 미련을 못 버리고 그 놈의 능텅감투 태운 재를 살살이 바르고는 그날 밤에 또 제사 음식을 훔쳐먹으러 나섰단 말이야. 마침 그 날 이웃 마을에 소대상이 들어서 제사를 꾸밈하게 차려 놔는데 거기에 썩 들어갔어. 능텅감투는 태웠어도 능텅감투인지 이 사람이 알

몸에 재를 바르고 들어섰는데도 아무도 몰라. 구래서 마 음놓고 제상에 놓인 음식을 집어먹었지. 한창 집어 먹다보니 손에 발라 놓은 재가 그만 벗겨져 나 갈 것 아니야? 그러니 다른 것은 안 봐는데 손바닥만 하얗게 보인단 말이야. 제관들이 보니까 하얀 손바닥이 제상 위에서 오르 락내리락하며 음식을 집어 가거든. "이게 댜네 남의 집 제사 음식을 훔쳐 가느냐?" 하면서 그 손을 낚아챘어. 그 바람에 팔뚝이 하얗게 드러나지. 제관들이 달려들어 붙잡고 재를 죄다 닦아 내니까 알 몸뚱이 사내가 쑥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 일났지. 제사 음식 훔쳐먹은 도둑놈이라고 실컷 얻어 먹고 온 동네 우세 다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야.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흔히 불가능한 일을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을 빗대어 이르는 속담이다.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존재나 가치관에 대한 작은 도전들에 대한 일들을 일컫기도 한다. 하지만 이 말은 옳지 않다. 계란과 바위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계란은 바위에 비하여 작고 하잘 것 없지만 그것에는 커다란 비밀의 힘이 있다. 바로 '생명'이다. 계란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잉태를 통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내는 근원이 되며, 비록 생명을 스스로가 만들어 내지 못하는 비운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다른 생명

|세|상|원|기|

계란으로 바위치기 운동을 시작하자!

박상희 · 회원

에게 또다른 생명을 부여하고 복돋우는 힘의 기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기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은 지금 비록 커다란 이변을 만들어 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계란의 생명력으로 인한 새로운 존재가치를 만들어 낸다.

우리는 지난 시기 계란으로 바위들을 무수히 쳐냈다.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지 아무도 하려하지 않았고, 설사 그일을 하여도 아무도 그 이면의 신비하고 거대한 생명력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천, 수만의 계란들의 힘으로 우리들은 많은 것을 해냈다. 우리민족의 현대사에서 누구도 언급할 수 없었던 통일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켜 빨갱이 이데올로기를 넘어 민족적 가치의 소중함을 각인할 수 있었고, 이승만정권으로 시작되었던 부정부패의 정치적 근을 단절시키기도 하였다. 자본보다는 노동의 소중함과 가치에 눈을 돌릴 수 있었고, 억압받고 착취받는 모든 계급과 계층에 마음을 열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고 있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계란들의 힘이었다. 그 계란들은 사회를 바꾸고,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역사적인 과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 중에서 가장 절박하지만 서둘러서 풀 수 없는 일이 자주적 통일이며, 가장 시급하고 당장 우리들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정치개혁이

다. 정치의 늪에서는 썩은 냄새와 악취가 진동하여 그 늪을 계속 그대로 둔다면 그 늪의 근방에는 아무 생물도 살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썩은 늪을 파버리고 그 늪에 새로운 물을 길어 부어넣고 늪의 본래의 자정능력을 갖추어 생명의 근원지이자 자연의 힘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총선시민연대"가 발족되어 부정부패의 정치의 근을 끊고 21세기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정치판에 더 이상을 회망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난 역사속에서 항상 주인이었던 시민들의 힘으로 또 한번 새 역사를 쓰려고 하는 것이다. 아직도 민중들의 변혁의 힘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판의 철새들과 집오리들은 자기집만 잘 지키고 주인말만 잘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자기 이해가 맞는 곳으로 떠나버리면 된다고들 생각하고 있다. 이승만정권에서 시작되는 부정부패의 사슬과 그 하수인들,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반역사적이고 패륜적인 사슬과 그 하수인들, 12.12군사쿠데타로 역사는 다시 이어지고 그 정권의 정당성의 시나리오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아야 했는가. 부정부패의 극치로 인한 노태우정권의 등장, 야합과 밀실정치의 김영삼정권 등에 이르는 역사의 얼룩과 상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정치가 아닌가.

치욕적이고 피토할 일이다. 법을 만드는 이가 법을 모르고, 살림을 하는 이가 가게부를 쓸 줄 모르고, 운영자가 회의를 주재할 줄 모르고, 장사꾼이 셈을 할 줄 모른다. 내가 살기위해서 반드시 다른 이를 죽여야 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은 적이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정치판의 생리", "정치적 술수" 등으로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세계 어느 역사속에서 자국민을 죽이고, 자국가의 존재를 위협하는 사리사욕에만 가득찬 정치가 있었는가. 설혹 때때로 그러한 정치들이 있었다 해도 그 반대에는 "양심"이 다른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정치에는 그 "양심"이 이미 부재되어 있다.

"시민들의 작은 주권찾기 운동"인 총선시민연대의 작은 변혁이 시작되었다. 비록 작은 씨앗이지만 경야를 태울 수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역사의 주인공으로 다시금 한발씩 내딛을 준비를 각자 하여야 한다. 지난한 불운의 역사속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았던 수 많은 민초들의 힘을 다시금 그들에게 보여줄때가 된 것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운동을 다시금 시작하자.

우리는 지난 시기 계란으로 바위들을 무수히 쳐냈다.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지 아무도 하려하지 않았고, 설사 그일을 하여도 아무도 그 이면의 신비하고 거대한 생명력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천, 수만의 계란들의 힘으로 우리들은 많은 것을 해냈다.

형년으로

박재동

내가 만약 형년으로 다시 살다면
이렇게 하고 싶어서.
무엇 책을 많이 읽어
지식의 허술한 곳은 남기지 않고
문화를 하되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여
튼튼하고 멋진 몸을 가꾸리라.
그리고 나의 한가지 특기를 살려 연마하되
기조를 튼튼히 하고 결코 고맙하지 않으리라.
사람 관계를 소중히 여기
나의 마음을 숨기지 않게 하고
늘 친밀한 정분을 나누되
소탈하게 지내고 싶어서.
연애를 하게 되면 그의 성장을 돕되
나를 만났으므로 세상이
괜찮았다는 말은 나오게 해야지.
(아니, 아니, 아주 진하게 해볼까?)

사랑의 아픔을 알아 나와
세상이 나아짐을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 계획을 세워 봐야지.
꽃 향송이 둘 하나에도 배우고 감사하며
많이 들어 평범에 빠지지 말고
늘 자신을 살펴봐야겠네.
술은 즐기지 않되
친구와 밤 늦도록 토론할 정도는 되어야겠고.

간단한 악기 하나쯤은 다룰 줄 아는 게 좋겠지.
그리고 부모님 생각은 중해야지.
그래서 나날이 조금씩 조금씩
충만해 가는 나를 느끼며,
넘어가는 노를들
뿌듯함 가슴으로 맞으며 살아봐야지.

나의 형년기는 정말이지
고만과 방황으로 얼룩져 있었다.
이런 평이한 바람을 갖게 되기까지,
내겐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겸손과 꾸준한 노력을 몰랐고,
사람들과 고락을 같이 할 줄 몰랐고,
세상을 제대로 볼 줄 몰랐고,
역사의 큰 뜻도 몰랐다.

사람이 된다는 것이
내게 있어선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아직도 모자라고, 모자라지만
지금이라도 결심을 가눌 수 있기에
다행으로 여기며
방일하지 않는 길을 걷고자 한다.

아동 문제행동 상담실

임미란 · 회원

우리는 현장에서 아동들의 문제행동과 직면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딱히 불책도 없고 상담할 곳도 마땅찮은 분 여기에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어린이들이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건강하고 착하고 슬기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는 인간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한결 같은 꿈입니다."

중앙대학교 한국행동수정연구소의 홍준표 교수님이 꾸리고 있는 사이트로 영, 유아와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이상발달과 부적응행동을 연구하기 위하여 행동적 인본주의라고 요약할 수 있는 행동적 진단-처방모형에 입각한 조기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적용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주로 인터넷상에 보면 일반아동의 행동수정에 대한 상담코너가 빈약하고 반대로 특수아에 대한 상담과 기관안내로 가득찬 환경에서 이 사이트는 일반아동과 특수아에 대한 상담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직 교사들이 상담을 해오는 경우들이 많고 직접 교수님이 성의껏 답변을 하나하나 해주고 있어 믿음이 갑니다.

단 여러분이 이 사이트에 가셔서 질문을 하실 때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너무 단순하거나 이해할 수 없어 답을 해주시기 곤란한 경우들이 많은 거 같거든요.

그리고 대화의 광장에서는 부모님과 선생님과 나뉘어져서 어려운 점들을 서로 나누는 방도 있구요.

발달진단이라는 방에서는 아이의 발달을 진단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를 고민하는 곳인데 진단할 때의 주의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것은 아동마다 각각 다른 속도로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아동의 성장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십시오. 새로운 변화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이라는 잣대로 아동을 저울질할 때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자료실은 단행본과 치료기법, 연구사례와 기타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방을 만든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자료는 좀 빈약한 듯 합니다.

이 분야에서 더 궁금한것은 관련사이트를 통해 더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도를 생각하는 지금, 난, 행복하다

김진숙 · 서울 남부, 새터어린이집

'인도'는 여행을 시작하면서 계속되는 나의 화두였다.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엔 '인도'라고 한마디 내뱉고는 한참을 가만히 있곤 했다. '나는 왜 인도에 왔지? 인도에서 무엇을 얻어가려고 하는 거지? 난 무엇을 느끼고 있지?' 그동안 받은 느낌, 경험들을 정리해야지... 이런 생각은 욕심이 지나쳐서 나온 것 같다. 한번의 여행으로 다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 게다가 초반에 여행답지 않은 여행으로 인한 불만이 겹쳐져서 나를 다그치게 만들었다. 그러나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며 '지금, 여기에' 충실히 하자는 결심을 냈고, 그러자 '인도...' 하고 한참을 보내던 시간을 없앴을 수 있었고 너무나 편안히 여행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돌아와서 다시 나에게 처음의 화두를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다. '너 왜 인도갔어? 인도에 간 목적이 뭐야? 뭘 얻어왔니?' 이런 질문을 던지며 왠지 머리속에 뭔가 가득 들어있어야 할 것만 같게 만드는 사람들. 잠시 혼란을 느끼던 나는 다시 '지금, 여기에 충실했던 인도여행'을 떠올리며 혼란을 잠재운다.

인도에 도착한 첫날, 거리에 가득한 사람들이 기억난다. 차도에 까지 사람들이 넘쳐나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을 못느끼게 하던 많은 사람들. 사람들 물결에 앞으로 지나가기도 힘들던 거리. 그리고 뻔히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길에 고개를 바로 들기 힘들던 거리.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인도인마냥 거리를 활보하게 되고, 새 도시로 이동해도 서울의 거리를 건듯이 익숙해 버리고... 실제로, 일행들에게 가이

드를 해도 되겠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길 찾는데 선수가 되어버렸다. 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익숙해져서 구걸하는 아이들에게는 'I want IRé' 하면 같이 손을 내밀며 'Me too. Give me IRé'라며 장난도 치게 되었다. 아이들에게는 미안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대하는데 여행자티를 조금 벗게 되었다고 해야할까? 사실 나중에는 미안한 마음은 하나도 안들고 '주면 끝이 없다니까'라는 생각만 들었다.

인도인은 정말 재미있다. 순수해서 그런걸까? 외국인을 보면 호기심을 감추지 못한다. 뻔히 쳐다보며 자기들끼리 킁킁 웃기도 하고 카메라를 들이밀며 사진을 찍기도 한다. 이름이 뭔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는 어른이건 아이건 꼭 물어본다. 이런 관심이 귀찮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 똑같은 대답을 10분~20분 간격으로 계속 하게 되면 귀찮고, 혼자 있는데 말을 걸어 한참을 이야기하다 가면 고맙고, 영어를 못하는 내 수준에 맞추어 말을 해서 전혀 불편함을 못느끼게 하는 뛰어난 언어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인도인에게 여행 막바지에 아주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고아의 해변에서 5일동안 혼자 머무를 때이다. 바다를 즐기는 사람은 거의 서양인이었다. 누가 옆에 있건 신경도 안써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고 있던 중, 주말이 되어 인도인들이 오자 난 경계심을 서서히 갖기 시작했다. '바닷가에 놔둔 짐이 없어지지 않을까? 말 좀 그만 시키지' 등등 서양인에게서 느끼지 못하던 두려움이 생기

는 거였다. 오히려 인간적인 그들에게서. 난 서양인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의식했고, 인도인들에게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내 속에 인종차별 의식이 뿌리깊이 박혀있음을 절실히 깨닫는 순간 미안한 마음과 더불어 무서움이 생겼다. 내 속엔 얼마나 더 잘못된 의식이 숨겨져 있을까? 그 때 이후로 난 이들이 더 사랑스럽다. 느끼한 목소리로 말걸던 상점소년도, 바닷가에서 말걸며 슬며시 손을 잡아보던 아저씨도, 세상물정을 모두 알고 있는 듯한 웃음을 지으며 물건을 팔던 여자아이도.

지금, 여기에 충실하자는 의미로 인도의 문화를 따른 것이 있다. 양손을 그곳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본 것이다.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 거야 기술의 문제만 있을 뿐 그리 어려운건 아니다. 왼손이 문제인데 휴지도 있고 좌변기도 있는 곳이 많아 굳이 안해봐도 될 일이지만 인도가 아니면 해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용기를 냈다. 일부러 휴지를 챙기지 않고 들어갔지만 한참을 망설였다. 손이 선뜻 안 움직이는 거였다. 그래서 다짐? 위로?를 했다. 아이들 똥도 닦아주잖아. 남의 똥도 닦는데 뭐 내꺼 썩어야. 애들도 닦아주잖아. 애들도 닦아주잖아. 한참을 주문을 외우다 드디어 손으로 닦았다. 그런데 해보니 정말 별개 아니었다. 인도인은 치질이 없다는데 그말이 맞는것 같고 내가 모르던 내 몸을 느끼게 되고... 참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런데 문화가 습관을 만든다고 지속되지는 않았다. 인도식 변기에서는 가능한데 좌변기는 불편하기도 하고 휴지가 있으니 휴지를 쓰게 된다.

여행하면서 열한군데 지역을 돌아다녔다. 모두 맛이 다르다. 다양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로 모아지는 오로빌 공동체, 바라나시의 강가 가트에서 맞이한 새천년 첫 날, 아름답고 경이로운 황비의 무덤인 타지마할, 거리를 자기가 주인인 마냥 돌아다니는 개와 소들, 동물, 곤충, 식물, 광물 등 없

는 것 없이 전시된 박물관, 쓰레기로 뒤덮인 공원과 기차길, 끝이 안보일 정도로 긴 해변, 너무나 자유로와 오히려 무슨 광신교 집단처럼 느껴지던 오쇼 아쉬람, 서른세시간에 걸쳐 탔던 기차, 캠퍼타의 마다 테레사의 집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한국인들의 파티, 학교도 안다니고 염서를 팔며 다니지만 아무 문제가 없기에 삶이 즐겁다는 소년, 먼지와 쓰레기, 매연으로 뒤덮인 도시, 교과서에서만 보던 아잔타 석굴사원과 데칸고원, 모헨조다로 시대의 유물과 화석, 그리고 예쁜 여인들.

인도에 다녀온 후 나에게 가장 크게 남은 것은 행복함이다. 저 밑에서부터 물결치듯 밀려와 가슴 가득히 차오르는 행복함. 아니, 어떤 수식어도 필요없이 정말 행복하다는 느낌만 있는 상태를 인도를 여행하며 경험했다. 좋다는 느낌은 많이 있었어도 여행하면서, 아니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강하게 행복함을 느낀 적은 없던 것 같다. 그리고, 보고 듣고 받은 느낌을 아주 깊이 새기고 싶다는 욕망도 처음으로 들었다.

인도에 다녀온 나에게 어땠냐고 물어오면 아주 좋았어라고 말한다. 사실 좋기만 했겠냐마는 행복하다. 좋다고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는건 한달여 동안 한국을 떠나있어도 걸릴 게 없는 자유로움과 가보고 싶던 나라라는 것.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세박자가 잘 맞아서일 거다.

아, 나에게 또 행복함을 맛볼 수 있는 순간이 오기를 기다린다.

*나로 인해 보육교사회에 인도계가 만들어졌다는 좋은 소식. 나도 같이 가고 싶어. 하지만 시간내기가 어렵겠지. 이번엔 어떻게 갔냐고? 그건 안식년이었기 때문이지. 마음 편히 여행하려면 6년을 기다려야하는군. 6년이 가기는 가는걸까?



이탈리아 견학기2

고은숙

1999년 10월 6일 수요일 좀 쌀쌀한 날씨였다. 아침 8시경 host family를 나와 기차를 타고 Mestrino에서 Padova까지 무사히? 왔다. 다시 이 Padova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를 타고 이 곳을 찾는데 또 한 번 애를 먹었다. 30여분 헤맨 끝에 Via Savoarola 203호에 위치한 이곳을 찾았다. 이 곳을 찾는데 도움을 주었던, Padova거리에서 만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싶다. 그 때의 그 친절함으로 사시면서 복 많이 받으시기를.....

"Regina Elena" 라는 Nursery School(보육학교)에서 아침 9시 30분 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 곳 사람들과 하루 일과를 함께 했다. Padova에는 이런 Nursery School이 4곳 있다고 한다. 이 중 3 곳을 모두 견학 실습하였는데 이 곳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 곳은 우리나라 식으로 비유해 보자면 공립과 사립의 혼합 형태인 위탁운영 체제와 유사했다. 일년간의 Practice를 통해 평가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이나 보상이 달라지므로 잘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했다.

한 예로 공립적 성격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립에서만 가능한 몬테소리 교육은 실시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재정 지원면에서 급여 제공처를 살펴보면 교사월급은 Comune와 Region (지방, 지역 자치단체)에서, Director(원장)월급은 Municipality(시장당국)에서 조달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호에서는 Regina Elena에서의 하루를 통해 본 일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나뉘어 공통된 시간이 있고, 각 연령 별로 진행되는 시간이 있었다. 우선 이 Nursery School이 문여는 시간은 07:15, 문닫는 시간은 16:00였다.

07:30~9:00

- 도착하는 아동들을 받고 서로 인사를 나눈다.(부모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다른 가족 구성원이 직접 데려오고 데려간다.)
- 이 시간까지는 아동들을 자유로이 놀게 한다.

09:00~9:30

- 출석 check를 하고 각 반(연령에 따른 반 편성) 별로 출석 인원을 요리사에게 보고했다. (간식 및 식사 준비를 위한 기준, 참고사항이 되므로)
- 각 반별로 출석을 확인하는데 이때 새로 방문한 "나"를 위하여 각자 자기소개를 해주었다. 출석이 끝나자 모두 함께 노래를 불렀고 각자가 속한 교실에서 프로 그림이 진행되었다. 참고로 이 시간 동안에는 5세 반에 있었는데 이 반에서는 출석 check, 노래 부르기, 그리고 당번 한 두 명이 (교사가 모든 아동들에게 순서에 따라 이 역할을 맡김) 간식그릇(보통 과일을 먹기 편한 크기로 나눔)을 들고 노래부르며 친구들과 앞을 3~4회 천천히 돌 듯이 돌아다녔다.

09:30~11:30

- 이 시간에 역시 5세 반에 있었는데 당일 날짜 쓰기 연습, 숫자 공부, 색칠 공부를 했다. 5세 반은 사용공간이 3곳이었는데 그 중 한 공간은 09:00~09:30동안 출석 체크하고, 이름 소개하고, 간식을 돌려가며 먹는 곳, 다른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기하는 곳의 성격, 출입구적 성격을 갖춘 곳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 공간은 지금 09:30~11:30의 프로그램을 위한 학습공간, 그리고 나머지 한 공간은 이 프로 그림 학습을 일찍 마친 아동들이 들어가 자유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11:30~12:00

- 교사가 모두들 학습했던 교실로 불러 모은다. 모두들 줄 지어 손을 씻으면서 점심 준비가 시작되는데, 이 때 역시 각 table당 (한 table에 4~5명 정도)한 명씩 그 날의 당번이 있고 이 당번은 수저, 포크, 컵, 접시 등을 차례 놓는다.

12:00~13:00

- 점심
그러나 영아(0~3세)들은 점심을 11:00~12:00에 먹고 이 시간에는 그냥 논다. 점심 식사 그림은 table 별로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이 곳에는 1세와 2세 영아들이 있었는데 이 영아들도 다시 처음 등록한 영아들과 1년이 지난 영아들로 나뉜다. 따라서 처음 온 1세반(10명, 담당교사 1명)과 1년이 지난 1세반(10명, 담당교사 1명), 처음 온 2세반(10명, 담당교사 1명)과 1년이 지난 2세반(11명, 담당교사 1명)으로 나뉜다. 이는 그룹형성 기준단위가 아동 10명이고 담당교사 1명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사립인 경우에는, 14개월이 된 영아 기준으로 8명까지만 받을 수 있으며 3,4,5세는 25명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영아를 그룹별로 구분하는 기준은 보통
1)14개월까지 2)14개월~18개월 3)18개월~24개월 4)2세 이후

13:00~14:00

- 아동들은 밖에 있는 놀이 공간에서 놀며 여러 교사들이 번갈아 이들을 지켜보고 이때 교사들은 간단한 커피와 담소를 나눌 수 있고, 교제 준비와 관련한 의논들을 한다.

14:00~15:30

- 5세 반은 영어 수업(요일 별로 프로그램은 각각 다르다.) 준비를 한다. 출석 번 호 순서를 기준으로 하여 두 그룹으로 나뉘는데 한 그룹에 13명씩이고 교사는 2명이다. (1명은 오직 영어만 사용, 다른 1명은 영어와 이태리어를 섞어가며 보충 설명을 해 준다. 둘 모두 자격증이 있고 영어수업 있는 날만 출근한다.)

한 그룹이 영어 수업을 하는 시간은 35분씩이다. 보통 14:15~14:50, 14:55~15:30 정도로 나누어 수업이 진행되는데 수업 내용이나 수준은 거의 동일하다. 다만 4세 반의 영어 수업은 단어 위주인 반면, 5세 반의 영어 수업은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간단한 문장 및 응용, 실습 중심으로 진행된다.

15:30~16:00

- 휴식시간이다. 아침 당번이 또 돌아가며 간식을 나눈다. 담당교사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놀이를 진행한다. 헤어져 집으로 갈 때는 교사와 아동이 껴안고 서로 인사를 나눈다.

이 보육학교의 학습실 혹은 연령별 사용 공간의 종류를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1) 홀

점심 및 간식용 (0~2세와 3~4세가 시간을 구분하여 사용) 식당(테이블)이 갖추어져 있다. 현관과 연결되어 아동들의 사물들을 보관, 정리해놓고 있었다.

2) 모든 아동들이 이용 가능한 공간

① 그림 그리는 방

② 체육관(jump놀이, 블록놀이, 장난감 등)

③ 놀이방(책읽기, 이야기책 듣기, TV 혹은 Video시청)

3) 화장실

3~6세용. 각자 개인 가방(주머니 가방)이 있으며 주 1회 교환하는데 이 가방 속에는 부모들이 여분의 옷 등을 준비해 챙겨 넣는다.

4) 3세용 방

분홍색을 상징적으로 사용(이 학교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라고 했다.)하고 있었는데 A반(21명 아동, 1명 교사)과 B반(20명 아동, 1명 교사)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학습 및 프로그램은 거의 동일하며 보통 색칠, 그리기, 자르기, 읽기, 클라주 놀이 등을 한다고 했다.

5) 4세용 방

초록색을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아동 28명, 교사 1명이었고 영어공부, 색칠, 그리기 공부, 음악 공부, 거울 앞에서 옷갈아 입는 연습, Lego 놀이 등을 한다고 했다.

6) 5세용 방

노랑색을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아동 35명, 교사 2명이었고 이 5세용 방이 앞서 얘기한 3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3개의 공간은 각각

① Star - 자율적으로 놀이하는 방, 집에서 원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놀 수 있다.

② Moon - 출석 체크 및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동 시 중간 점검, 간식을 돌려서 먹었던 곳

③ Sun - 교사와 함께 학습하는 곳

7) 6세가 되면 초등학교(Elementary School)를 준비해야 하므로 담당 교사는 매사에 조용히, 정숙 하게 생활하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식사할 때나 글을 쓸 때 등) 그리고 참고로 3개의 공간 구성은 그림처럼 되어있다.

① Star - 자율적으로 놀이하는 방,

③ Sun - 집에서 원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놀 수 있다.

교사와 함께 학습하는 곳

② Moon - 출석 체크 및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동 시 중간 점검, 간식을 돌려서 먹었던 곳

그리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① 일반적 프로그램은 하나의 주제 하에 요일별, 월별 계획에 따라 정해지고 통틀어 섞여서 진행된다.

② 특수 프로그램은 연령별, 그리고 같은 연령 내에서 A, B반으로 나눌 필요가 있을 때 각각 다른 A, B반 담당 교사가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여 운영된다.

③ 음악 수업 해당 연령은 3~5세, 영어 수업 해당 연령은 4~5세, Lego 놀이 가능 연령은 4~5세로 그 기준이나 원칙이 정해져 있었다.

8) 부엌

2명의 자격을 갖춘 요리사가 있고, 이 곳 출입은 오직 이 두 요리사만이 가능하면 내가 사 진을 찍고자 했을 때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모른다. 내부는 청결함, 그 자체였다.

9) 현관

모든 아동들의 사물함이 반(연령)별로 구분되

어 배치, 현관문은 반드시 안과 밖으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으며 역시 안과 밖에 각각 열쇠가 배치되어 있었다.

10) 2층

행정업무를 관할하는 사무실이 있었고 여러 기록 서류 보관 및 복사기 등의 사물들이 있었다.

이상으로 한 보육학교를 통해 본 기록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부족하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소리 1

경력교사의 어려움...

우리네 아이들을 구둑하는 보육교사

저는 1992년부터 월 500,000원을 받으면서 보육교사로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 구립 어린이집에서 7호봉 연봉으

로 월 약 102만원정도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보육교사회 소속 어린이집 교사나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은 업무(?)도 못 낼 액수의 봉급을 받는다는 것은 교사모임이나 일반 직장을 다니는 주변인들과의 대화에서 확인받곤 합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구립 어린이집으로서 구에서 교사 인건비(전체 교사수의 45%)를 지원 받고 있으며 본 어린이집 이사장님이나 원장님의 생각이 어린이집 운영도 교육서비스 차원으로 보시고 아이들 환경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처우를 최대한(월급/ 근무 시간/ 교육기회 제공/ 휴가) 배려하는 어린이집 운영 철학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알고 있는 곳으로는 교사 처우에서는 좋은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환경에서도 경력교사로서 높은 호봉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 나의 능력이나 경력(4년제 대졸/ 시설장 경력 4년 포함 보육경력 10년)과는 상관없이 부담스럽게 느껴야 하는 분위기는 "왜?" 일까 하는 회의와 자기 합리화에 힘들곤 합니다.

운영자의 재정적 고민에 따른 태도와 다른 교사들의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인주의적 태도에서 상처를 받게 되는데 예로 운영자들이 가끔씩 교사 모임에서 "우리처럼 경력교사를 많이 채용하고 있다고 하면 ○○○라고 한다." 라든가 경력교사가 퇴직·출산 휴가를 들어간 후 1호봉 신입교사를 임시 채용한 후 "역시 호봉이 낮으니 재정적으로 50%정도 인건비 지출이 줄었다." 라든가 높은 호봉의 출산 휴가 들어간 교사가 복귀할 때

"경력교사는 신입교사든 별다른 차이가 없다. 재정적으로 어려우니 2호봉 깎고 복귀하라." 라는 직접적인 표현 뿐

만 아니라 그러한 표현을 직접적·공식적으로 교사들이 듣게 되니 호봉 낮은 교사들의 시선이 의식된다면 경력교사의 자격지심일까요? 매월 월급을 받을 때마다 1호봉-3호봉 교사들이 "아, 좋겠다. 똑같이 일하고 왜 이렇게 많아?" 웃으면서 말을 하지만 한 두번의 표현도 아니고 매번 그러한 반응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저는 비영리 어린이집에서 교사 대표로 제정도 고민했었고, 개인적으로 2년정도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해 본 적도 있어서 어린이집 운영에서 교사 인건비 지출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민간 어린이집도 아니고 구에서 교사 인건비 지원을 받는 구립어린이집에서조차 경력교사의 호봉으로 경력교사들이 설 자리를 외면당하면 어느 보육교사가 철학과 인생을 걸고 보육의 의미를 주장할 수 있으며, 같은 교사들조차 경력교사들의 그 시간을 인정해 주지 못하는 근시안적 시야가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꺾어버린다는 것을 왜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힘들 때마다 "내가 경력교사로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지? 경력교사로서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걸까?" 하고 반성도 많이 합니다.

"아나, 경력교사는 필요해. 난 아이들의 진정한 웃음소리를 이제서야 가슴으로 들을 수 있는데, 신진교사들의 활동성이 필요하다면 경력교사들의 안정적인 시선도 아이들에게 중요한거야. 아이들에게 당황스런 일처리나 어린이집에서의 어려운 상황에서 경력교사의 처리(대응)능력은 중

요한 거야."라고 자신을 합리화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도 저희 어린이집의 좋은 환경과 운영자들의 열려진 의식이 다른어린이집에도 전달되어 교사들이 좋은 조건을 마련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일반인들에게는 보육교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교사 모임이나 일반 직장을 가진 주변인들에게 저희 어린이집 운영이나 교사 근무 조건의 장점에 대해서 여러번 강조하곤 합니다.

좋은 환경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보육교사들의 사회적 위상도 좋아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으며 그 조건으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무시간, 근무 환경도 중요하지만 "월급이 얼마야?"라고 평가하는 사회 속에서는 월급 액수도 무시할 수 없는 교사 자존심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한국보육교사회의 경력회원으로서는 제가 타락한 걸까요?

끝으로 한국보육교사회에서 아동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보육에 있어 중요한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를 같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소리 2

한솔이의 투철한 애국정신

권은의 · 인천, 예술어린이집

요근래 아이들의 문화는 좀 다른 것 같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손에 스티커를 들고와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한무리 모여 거기에 집중해서 꿈벅도 하지 않고 다른 일은 못할 지경이다.

그때 한솔이가 등원을 하면서 그 광경을 보았다.

"얘들아, 얘들아! 그거(포켓몬스터) 우리꺼 아니야. 그거 너희들이 많이 가지면 큰일 나! 그리고 그거 많이 보면 죽는대."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는 모양이다. 견학가는 날, 아이들은 신나서 들떠 있다. 평소와는 다른 하루인 것이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간식시간. 아이들이 아까부터 꺼내 자랑하고 싶었던 간식. 썩~안! 하나같이 모두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모두 그 문제의 포켓몬스터.

포켓몬스터라는 글씨가 씌어 있지 않은 것이

었다. 그 내용물을 보니 이진더 가관이다. 새로운 건 하나도 없고 기존에 있던 내용물에도 포장만 새로운 것이다.

이건 아이들의 심리를 이용한 상술이다. 마음 씀씀해 하고 있는데 한솔이가 나의 마음을 대변하듯, 또 한마디 한다.

"얘들아! 포켓몬스터 그렇게 많이 사면 우리 돈을 일본으로 많이 줘야 돼. 그러면 우리 돈을 뺏기는 거야. 그리고 미키마우스도 헬로키티도 그런 것도 다 그런거야." 하며 울먹인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멍하니 한솔이를 바라본다.

또 한번 대중매체의 힘이 대단함을 느낀다. 우리 모두는 점점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것을 많이 먹고, 우리 문화를 즐기고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나의 바람이다.

한국보육교사회 제4차 정기 총회 및 수련회 스케치

사진으로 보는 제4차 정기 총회 및 겨울 수련회



자본 지분. 조용조용이 진행된
백창우 선생님과 어린이
노래 배우기
소박한 선생님의 모습처럼
노래들도 무궁했습니다
근데- 백창우 선생님-
노래지도 안하고
카메라는 왜 의식하세요?

그 무수하게(?) 출몰한 공모작들
제치고 심사위원 숙고하고
당선된 이웃사랑이랍니다.
오늘은 백창우 마모가
가장 뛰어난 이웃의 선생님이
수상을 하시는군요.



제4차 정기총회 및 겨울연수



작년 한 해 동안 땅속에 묻어
겨울잠을 자던 진백지부기
어제 눈뜨고 다시
저의 앞에 있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 박수

오랜만에 만나는
지부-지회 소개 시간
미리 약속이나 한듯이
손에 손에 꽃을 만들어 온
광주지부와 부산지부.
역시 보육교사회의
지역감정은 0
3번-감습니다-5



정말인 회장님의 회임식
회원들이 준비한 선물과
목소리(?)에 눈물을 글방글방.
분위기도 좋았는데...
난데없는
"정말인! 너를 사랑한다."
[개그콘서트 분위기]
이 소리에 모두들 폭소
이 사진은 절대
올고 있는게 아니니까요.



(공동재놀이)
창조는 높고 사람은 많지만
그래도 연방로 돌아보자
창-창-수-올-래



모범지부상을 두번이나 받은 부산지부
그 결속력과 단결심은 엄청나네요
어느새 박진주 지부장의 패션이 회원
곳곳에 파고들어 어린애들을
잘못 뒀었으니 알아주세요
참고로 천주성의 거의 모든 옷은
어린애가거나 레이스있는 옷이랍니다
그래도 절대 공주는 아니에요.



올해 새로 선출된
임원들입니다
왼쪽부터 이기원,
이은경 공동대표님
서은희 부회장님입니다
공동대표님을 막대(?)를
보니까 마음 편한지요?



2000년 정기총회 및
겨울수련회를 마치고
기념사진 안장 촬영-
근데 올해에는
남성 회원도 참석했는데...
찾으면 용지-

보육교사 종합 취업지원 사업

보육교사의 종합적 취업지원사업은 일자리를 구하려는 보육교사, 함께 일할 교사를 찾는 보육시설을 한 자리에 모아 안정적인 고용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내 용

- 보육교사 종합정보망 구축 및 구인구직 연계사업
전화상담을 통한 구직, 구인 연계 - 직통 02-2271-1548
인터넷을 통한 구직, 구인 연계 및 취업정보망 구축
-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취업설명회(6월 / 11월)
창업설명회(6월 / 11월)
취업지원을 위한 특기 및 실무교육 (3-4월/ 9-10월)

대 상

- 보육교사 종합정보망 구축 및 구인구직 연계사업
취업을 원하는 보육교사, 예비 보육교사
새로운 보육교사가 필요한 민간 및 국/공립 보육시설, 유치원
-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실적 보육교사, 관련학과 및 보육교사교육원 졸업예정자

신청 방법

- 보육교사 종합정보망 구축 및 구인구직 연계사업
구인/구직 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 전화, FAX, E-mail로 접수
-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원하는 교육기간, 시간, 장소를 고려한 후 전화접수

기 간

2000년 1월 - 2000년 12월

접 수 처

한국보육교사회 내 보육교사 종합취업지원사업 팀
주 소 서울 중구 장충동1가 38번지 여성평화의 집 3층
홈페이지 www.kdta.or.kr
통신ID 천리안, 나우누리 kdta
상담전화 TEL) 02-2271-1548 FAX) 02-2275-8506

주관 : 한국보육교사회 주최 : 실업극복국민운동
후원 : 근로복지공단 한겨레신문 MBC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사업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중인 교사 예비보육교사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각각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1. 대 상 : · 실적 보육교사
·유아교육 및 관련학과, 보육교사교육원 졸업예정자

2. 교육내용

교육	내용	강의 일자	장소	참가비 (단위:원)	참가 인원
국악과 전래놀이	· 전래민요 및 전래놀이 배우기 · 국악지도 실제	3월 9일, 10일, 16일, 17일	청 산 교육장	20,000	25명
컴퓨터 교육	· 기본 서식 만들기 / 너만의 편집기법 · 인터넷, PC정보 활용법	3월 23-24일 : 1차 30-31일 : 2차	진보넷 교육장	10,000	1/2 차 각 25명
신체놀이	· 손으로 하는 놀이 · 몸으로 하는 놀이	4월 6일, 7일, 13일, 14일	청 산 교육장	20,000	25명
놀이감 제작	· 여러 가지 인형 만들기 / 활용하기 ·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 / 미술활동	4월 20일, 21일, 27일, 28일	청 산 교육장	20,000	25명

- 각 강의시간은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진행됩니다.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실적 보육교사 우선 순위로 마감합니다.
- 9월과 10월 2차 취업지원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2. 신청방법

- 전화 및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 www.kdta.or.kr
TEL 02-2271-1548 / FAX 02-2275-8506

주관 : 한국보육교사회 주최 : 실업극복국민운동
후원 : 근로복지공단 한겨레신문 MBC



|알|림|난|

1 재미있는 옛이야기 (자료집 안내) (가격 3,000원 우편발송비 500원 별도)

서울 북부지역의 옛이야기 공부모임에서 그간 공부해 온 옛이야기에 대해 정리한 자료집입니다.

목차

옛이야기란?	-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 / 형식으로 본 옛이야기와 중요성 옛이야기의 독특한 형식으로 살펴본 옛이야기
심리학적으로 본 옛이야기	- 옛이야기의 심리학적 해석 / 동화의 나라에서
옛이야기 들려주기	- 교사의준비 / 들려주기 사례
옛이야기와 함께 하는 활동	
재미있는 옛이야기 아홉가지	
동네방네 옛이야기 다섯가지	
유럽의 옛이야기 네 편	

문의: 2275-5805

2 '00한국보육교사회 현장연구 공모 안내

2000년 보육교사 현장연구 공모전

한국보육교사회는 보육교사의 연구·실천 작업을 지원·격려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현장연구 공모사업을 실시합니다. 보육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교사들의 연구, 실천내용을 발굴하여 확산하고, 현장의 요구와 제안을 보육제도 정책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에 보육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주 최 : 한국보육교사회

모집대상 : 보육교사

공모부문 : 보육의 고유한 특성이 담긴 교사의 연구·실천 내용(주제에 제한 없음)
보육교사 관련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자격제도, 재교육, 교사 처우 등)

상 금 : 연구하는 교사상 : 상금 30만원(1명) 실천하는 교사상 : 상금 30만원(1명)
발전하는 보육상 : 상금 30만원(1명) 장려상 : 상금 10만원(약간 명)

신청접수 : 한국보육교사회

접수기간 : 2000년 9월-2000년 12월 15일까지

접수및문의처 : 한국보육교사회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3층
전화02-2275-8505 전송02-2275-8506

접수는 우편으로 하고 마감 당일 소인 유효함.

※ 심사결과는 2001년 1월 중 개별통보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된 작품의 저작권은 본회가 소유합니다.

※ 시상식 및 발표회는 2001년 본회 총회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육|계|풍|향|

1 제3기 생애유아교육강좌

일 시 : 4월 7일~6월 2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장 소 : 부산대학교 보육종합센터 1층 원경시창각실

대 상 :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교사, 부모, 유아교육에 관심있는 연구자 등

참가비 : 8만원/ 개별강좌 12,000원

주 최 : 우리 아이드림이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부산대 보육정보센터

문 의 : 051-510-1586, 051-516-0486

2 서울시 육아정보 클릭하세요

3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children.metro.seoul.kr>)를 통해 쉽게 육아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제공할 보육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서울 시내 4천여개 보육시설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들어있다. 시설 운영에 대한 정보와 육아 상식 등 부모에게 필요한 육아 정보도 제공된다.

3 경찰박물관 관람안내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지하1층

개관 시간 : 9시~18시 (동절기는 17시) 단, 토요일은 13시

휴무일 : 매주 일요일 및 공휴일

관람료 : 무료 (기념품 증정)

교통편 : 지하철3호선 경보궁역 7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 출구

4 지구촌민속박물관 "세계민속인형 특별전"

일 시 : 2월부터 계속

전시 내용 : 세계 여러나라의 인형들을 통해 나라별 원주민의 복식문화와 인종적 특성을 다양하게 전시

문 의 : 773-9590~1





5 삼성어린이박물관 3월 문화 이벤트

일 시 : 월 5, 11, 12, 19, 26일

내 용 : 미래의 직업세계를 다채롭게 구성하여 어린이들이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꾸몄다.
미래의 직업- 요리사, 의상디자이너, 향수제조자, 환경엔지니어, 스포츠마사지사 등
영화의 세계 1인극 - 매월 둘째주 토요일 공연, 참가비 1,000원

문 의 : 424-5864

6 언어 장애 무료 검사 및 상담

일 시 : 3월 31일까지(오전 9시~오후 5시)

장 소 : 한국아동발달연구소 상담실

대 상 : 언어발달지체, 발음장애, 정신지체, 실어증, 청각장애, 자폐, 말하기 지체, 뇌성마비 등이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

문 의 : 932-2200

7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세상' 무료 이용권 이용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세상'의 PC통신과 인터넷 서비스에는 노동, 학생, 여성, 환경, 인권 등의 영역에서 활동 중인 200여개 사회단체들의 온라인 포럼(CUG)과 기관지, 소식지가 제공되며 사회운동 주소록과 시기별 이슈페이팅 등 사회운동의 소중한 정보 자원들을 구축하고 소통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들어 참세상이 필요한 단체와 개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참세상' 무료 이용권을 제작하였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 02-7744-551



■ 여성단체연합 제14차 총회

여연 총회가 1월 10-11일에 있었습니다. 본회는 여연의 회원 단체로 정희연 전회장님과 이기원 전부회장님, 이경녀 전조직부장이 대의원의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들에 걸친 총회에서는 2000년 여성운동의 방향에 대한 토론과 99년 사업보고, 2000년 사업 계획에 대한 인준 등이 있었습니다. 여연의 2000년 사업방향으로는 성평등주의와 남녀공동참여, 생태주의, 참여민주주의 등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며 빈곤과 폭력을 추방하는 운동 등입니다.

■ 총준위 3차회의

1월 14일에 총회준비위 3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2000년 사업방향과 계획에 대한 논의와 지부별 사업계획 검토, 총회 진행 준비에 대한 검토 등의 논의 안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1차 보육정책위 회의

지난해 진행되었던 교사정책단이 재정비하고 보육정책위로 전환하였으며 지난 1월 25일 보육정책위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보육정책위는 이윤경, 박금희, 황미혜, 이인희, 김미선으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장기적인 보육정책 과제 연구와 시급한 보육사안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신규 이사 상견례 및 학대간부연석회의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중앙 및 지부, 지회의 신규 임원들이 함께 모여 2000년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지부지회 사업 내용을 교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날 참석한 임원 여러분들 한해동안 힘내시기 바랍니다.

■ 여성단체연합 조직위

2월 2일 여연 조직위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2000년도 조직위 사업 내용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며 본회에서는 이경녀 조직부장이 참석했습니다.

■ 여성단체연합 복지위

2월 8일 여연 복지위 회의가 있었으며 이 회의에 정희연 전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 보육정책위 2차 회의

2월 8일 보육정책위 2차 회의가 있었으며 2000년 보육사업지침분석이 안건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한국보육교사회 제4차 정기 총회 및 겨울 수련회 개최

지난 2월 12-13일에 1박2일로 송실대사회봉사관에서 제4차 총회 및 수련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수련회에서는 백창우와 함께하는 작은 콘서트, 공동체놀이-감각술래 등이 진행되었으며 이날 총회에서는 2000년 사업 인준과 3대 임원진 선출과 인준이 있었습니다. 본회의 임원으로는 이기원(공동대표), 이윤경(공동대표, 서울지부장 겸임), 서은희(부회장), 박찬주(부산지부장), 이정미(광주지부장), 김정자(대구지부장), 최화영(인천지부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이은애 선생님이 한국보육정보연구소의 신임 소장이 되었습니다.

■ 2000년 종선 공약마련을 위한 여연 내부 워크숍

2월 22일 2000년 16대 총선에 요구하는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이 날 총 15개부문 40대 여성관련 정책 과제를 마련했으며 본회에서는 영아, 방과후 보육, 장애아 보육 등 특수보육활성화와 차등보육제도 도입, 교사자격증 제도 마련 등의 정책 제안을 했으며 이경녀 사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 여성단체장 간담회

여성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여성단체장 간담회가 지난 2월 24일에 있었으며 본회에서는 이기원 공동대표가 참석했습니다.

■ 집행위 MT

99년 집행위와 2000년 집행위가 모여 2월 26-27일 1박2일로 MT를 다녀왔습니다. 이후 보육교사회의 활동 방향 등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장소를 제공해 주신 박정애 상담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영유아보육사업 발전방향모색을 위한 회의

2월 28일 복지부가 마련한 영유아보육사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본 회의에서는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지부소식

서울지부

· 1월 16일 서울지부 회원의 날에 록 뮤지컬 "지하철 1호선" 관람과 먹거리-라우제-기행이 있었습니다. 이 날 참가한 회원들은 대부분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남부지회 - 3월 15~16일에 김지희씨를 감사로 인터넷 강좌를 마련합니다.

인천지부

· 1월에 인천지부 총회가 있었습니다.
· 2월 인천지역여성단체대표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각 단체별 사업 공유와 이후 공동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연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부산지부

· 2월에 낙천.낙선 운동 및 선거법 개정을위한 시민 서명운동에 참가했습니다.

- 제2차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 포구나무 어린이집이 이전을 했습니다. 교사들이 일정액을 부담해서 어린이집을 마련했습니다. 돈을 마련하느라 이리뛰고 저리 뛰어다닌 포구나무 선생님들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포구나무 어린이집이 좋은 어린이집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 2월 19일 국민참여권 회복 및 부패정치인 추방 범시민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광주지부

- 1월 22일 광주.전남보육교사회 3차 총회가 있었습니다.
- 2월 10일에 고 김양무 선생님 범민련 정신 계승 시민 결의대회에 참가했습니다.
- 3월 6일 소식지 발행 예정입니다.
- 3월 18일 회원강좌가 있으며 교육 내용은 '자연물을 이용한 미술활동 실제'입니다.

전북지부

작년 한 해 이보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를 하고 잠시 겨울잠을 잤던 전북지부가 올해 다시 기개를 켜며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은경 지부장을 중심으로 막둥이(?)회원까지 모두모두 올해 열심히 활동하려는 각오가 엄정합니다. 전북지부 선생님들의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들

축하합니다

- 나주의 한양대 이선주 선생님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태반이 내려와서(?) 입원 하는 등 조금 걱정스러웠는데 무사히 아들을 낳았습니다. 벌써부터 태아발에 겹게 그을려 산과 들로 뛰다니는 아이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씩씩

하게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 서울 서부의 이선미 선생님이 둘째 아이를 산했습니다. 자궁문이 열렸는데도 어린이집 일이 너무 바빠 애기도 못하고 힘들었을 선생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는데 무사히 아들을 낳았다는 기쁘네요. 두 남매가 오손도손 사이좋게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 서울 남부의 이미옥 선생님이 3월 26일에 보라매 공원에서 결혼을 하십니다. 만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불꽃 튀기며 결혼 날짜를 잡았답니다. 축하하고 오래도록 연애하는 기분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환영합니다

- 사무실에 새로운 식구들이 생겼습니다. 먼저 이윤경 공동대표님이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3월부터 상근을 할 예정이며 98년까지 조직부장을 지냈던 박정애 선생님이 상담 공부를 활용해서 상담팀장으로 3월부터 출근하십니다. 그리고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보육교사종합취업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예쁘고 씩씩한 구미진 간사가 2월부터 1년간 상근합니다. 같이 일할 사람들이 많아져 좁은 사무실이 더욱 좁아보여도 마음은 정말 든든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하나요?

- 부산지부의 한혜진 선생님이 새로운 회원으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 지탁연 시절부터 근 10여년간 회장단 활동을 하시고 그간 상근을 해 오신 정희연 전회장님이 2월 14일로 상근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동안 든든하게 보육교사회를 지켜 준 회장님의

깊은 애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멋지게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보육교사회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러니 꼭 그 점을 유지하세요.

- 최순옥 사무국장님이 3월 15일로 사무국 상근을 그만두십니다. 늘 푸근하게 보육교사회 회원들을 챙겨주시고 위로해 주시던 모습을 이제는 자주 보지 못한다니 안타깝군요. 그동안 어려운 보육교사회 살림을 꾸려나가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소장으로서 열심히 활동하셨던 조인숙 선생님이 소장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활발한 연구 활동 계속 하시리라 기대합니다.

- 보육교사취업지원사업을 담당할 간사가 없어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야말로 천사처럼 나타나 사무실 식구들에게서 큰 짐을 덜어준 유정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의 준비 등으로 바쁜 일정에도 꿰히 오셔서 사업에 필요한 밑작업을 시원스레 해 주셨습니다.

이직합니다

- 부천 동그라미의 현희정 선생님이 인천의 예술어린이집에서 3월부터 근무할 예정입니다.
- 인천의 문유미 선생님이 2월부터 이웃사랑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십니다.
- 인천의 이은희 선생님이 나래(예전의 새싹, 새싹둥이)어린이집에서 3월부터 근무하십니다.

회직합니다

- 서울 북부의 총무를 맡아오신 우리아이들의



|소|식|과|소|식|

나라 우리어린이집의 김정숙 선생님과 동근나라 어린이집의 유은성, 김금옥 선생님이 띄지를 하십니다. 오랫동안 아이들과 함께 지내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셨을 텐데 잘 쉬시고 건강과 활력을 찾아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회비를 내셨습니다. (1월11일~ 2월)

〈서울지부-북부지회〉 1월까지 완납

〈서울지부-남부지회〉 2월까지 완납

〈서울지부-서부지회〉 99년 12월까지 완납

〈인천지부〉 2월까지 완납

〈경기-수원지회〉 2월까지 완납

〈전북지부〉 12월까지 완납

〈광주전남지부〉 12월까지 완납

〈기타〉 이윤경 12만원, 전경희 3만원, 박부자 6만원, 김동준 2만원, 황미혜 2만원, 위양자 4만원, 임은영 2만원, 우민영 2만원

〈자료회원〉 서미연, 김호연, 이순덕, 김은영, 김명미, 이춘자, 안희진, 정정옥, 햇빛어린이집, 고종선

〈후원해주셨습니다〉 씩씩이어린이집 6만원,

박정애 5만원

본회 1·2월 활동일지

1월	5일	확대집행위
	8일	발도르프 모임
	10-11일	여연 총회
	14일	총회준비위
	19일	확대집행위
	25일	보육정책위 회의
	29-30일	확대간부연석회의
2월	2일	여연 조직위
	8일	보육정책위 회의
		여연 복지위
	9일	확대 집행위
	12-13일	제4차 정기총회 및 수련회
	19일	미술소모임
	22일	총선 공약 워크샵
	24일	여성단체장 간담회
	26-27일	집행위 M.T
	28일	복지부 회의



편집부에서

어느새 봄입니다. 여기저기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발걸음도 생기가 넘쳐 보임은 봄의 느낌때문인가 봅니다. 사무실에도 새 식구가 늘어나고 묵은 먼지도 털어내며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이 계시는 시설에는 새로운 얼굴의 아이들이 종일 벅악거리느라 정신이 도통없겠군요. 그렇게 1년을 서로에게 길들이며 지낼 준비를 하겠지요. 봄의 기운을 물씬 받아 모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집필진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읽기를 맡아 연재해 주신 주혜민 선생님이 교사에세이 형태의 「어린이집에서의 하루」라는 새로운 폭지를 집필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읽기는 본 회의 평생회원이신 박상희 선생님이 집필해 주십니다. 바쁜 와중에도 원고 집필을 승락해 주신 박상희 선생님과 주혜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사이버정보망을 소개해 주신 김지희 선생님이 개인의 사정으로 연재를 중단하고 강화도에서 인터넷을 누비고 다니시는 임미란 선생님이 새롭게 사이버 정보망 소개를 맡아 주셨습니다. 수고하신 김지희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진보넷 사무실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1/2월호에 실린 '대둔산 자락에서 만났습니다'의 내용중 본의 아니게 오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샘터어린이집 관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점 사과합니다. - 어린이의



교사선언문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치·문화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보육교사와 보육문제에 관심있는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 정회원이 되시면

- 매월 1만원+@ (연회비 12만원과 지부, 지회별 일정 회비)를 납부합니다.
- 지부, 지회의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회 중앙과 지부에서 주최하는 교육행사 참여시 10~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회 지부, 지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발간하는 자료집이나 판매자료 구입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 회원이 되시면

- 「우리네 아이들」 정기 구독료 30,000원(6개월 구독료 16,000원)을 납부하시고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주최하는 대내외 교육, 행사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 방법

- 자료 회원은 중앙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로 가입
- 정회원은 중앙 또는 홈페이지로 연락 → 지부, 지회로 연결
- 지부, 지회의 가입 절차에 따름

| 이런 일을 합니다 |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 한국보육교사회

- 보육프로그램, 보육정책/제도 연구, 개발
- 보육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다양한 전문소모임 운영
- 국내보육관련 단체, 사회단체와의 다양한 연대활동
- 보육관련 국제교류활동
- 교사들의 현장연구 및 자주적 활동
- 격월간지 '우리네아이들', 보육관련 자료 발간
-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본회활동 및 보육관련 정보 제공
- 어린이문화, 어린이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 보육관련 자료 및 책자 발간
- 보육종사자 교육
- 보육관련 연구 활동

부설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75-8505 / 전송 02-2275-8506 / 천리안, 나우누리 KDTA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kdta.or.kr>

한국보육정보연구소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68-3954 / 전송 02-2275-8506 / 천리안 KDIRC